



슈만:

피아노협주곡, 만프레도 서곡, 서곡과 스케르초

벨라 다비도비치(pf)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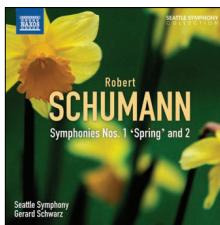
슈만은 낭만시대의 전형과도 같은 삶을 살았고, 그의 음악 또한 그러하였다. 그가 남긴 유일한 피아노협주곡은 그의 음악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이다. 1949년 소팽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벨라 다비도비치가 독주를 맡았다. 바이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만프레드' 서곡과 완벽한 교향곡에 가까운 관현악작품인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가 함께 수록되었다.

델로스 음원 재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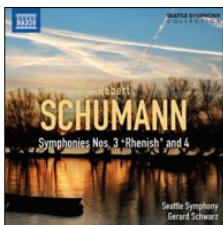
8.571214

##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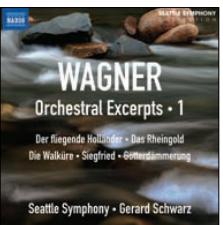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슈만:  
교향곡 1번 '봄', 교향곡 2번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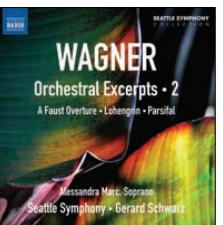
8.571212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교향곡 4번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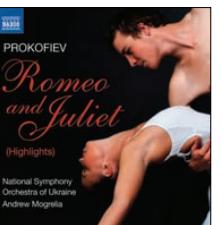
8.571213

비그너:  
교향곡 3번 '라인', 교향곡 4번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8.572767

비그너:  
교향곡 3번 '라인', 교향곡 4번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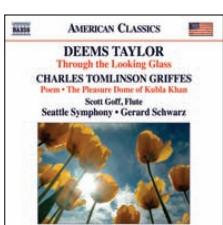
8.572768

비그너:  
교향곡 3번 '라인', 교향곡 4번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8.572928

퍼치스:  
아메리칸 래пси, 디비놈 미스테리  
움, 합주협주곡 외  
미카엘 루드비히(vn)  
풀 실버소른(va)/ 조안 팔레타  
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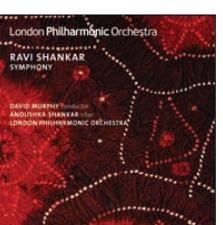
8.559723

테일러: 가을을 통해서  
그리피스: 시곡, 흰 공작, 비카날 외  
스캇 고프(ii)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8.559724

제이콥:  
Old Wine in New Bottles 외  
스티븐 L. 게이지  
영스타운 주립대학 관악 양상블

8.559726

라비 상카  
교향곡  
아누쉬카 상카(kitar)  
데이비드 머피  
영스타운 주립대학 관악 양상블

8.559726

드보르작:  
스티비트 마테르  
아니스 윗슨, 닉마르 페초코바,  
피터 오디, 피터 로즈  
느메 에르비  
린던 필과 합창단

LPO-0062

### \*Label Issue

## 세계 정상의 고음악 단체 Tafel Musik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DSO Live**

### \*\*Cover Story

##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걸작오페라 4차분

##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4차분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오페라 팬들의 안목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더불어 국내 오페라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시리즈의 4차 발매분으로 선택된 5종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ADVD-038

호색남 돈 조반니를 둘러싼 여성 심리의 전시장

### 16. 모차르트/ 돈 조반니

- 빈 테아터 안 데어 빈 극장 실황
- 역사적 극장의 시대적이고 아름다운 무대
-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에 로베르토 데 시모네의 연출

[줄거리] 돈 조반니는 여성정복을 업으로 삼는다. 하지만 오페라에 나오는 여자는 수천 명이 아니라, 단 셋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각기 다른 출신이며 성격도 다르고 인생관도 판이하다. 이것은 대본가 다 푼테와 작곡가 모차르트가 세상의 여자들을 압축하여 세 가지의 스타일로 정리한 것이다. 돈나 안나는 귀족으로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여긴다. 돈나 엘비라는 부르주아로 자유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애지상주의자다. 체를리나는 농부의 딸로서 욕망에 충실히 눈앞의 실리를 위해 행동한다. 오페라는 한 바람둥이의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남자를 둘러싼 여성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최고의 여성심리극이다. 게다가 모차르트의 수준 높은 음악은 대본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ADVD-040

광기를 통해서 엿보는 그녀의 고통과 슬픔

### 18.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실황
- 그레이엄 비크의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루치아 무대
- 스테파니아 본파델리의 명창

[줄거리] 루치아와 에드가르도는 서로 사랑하지만, 그들의 집안은 원수 사이다. 루치아의 오빠 엔리코는 여동생을 재력 있는 귀족과 정략결혼 시키려고 한다. 에드가르도가 외국에 간 사이에 엔리코는 그의 편지를 위조하여, 에드가르도가 변심한 것처럼 만들어 루치아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배반당했다고 믿는 루치아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혼을 승낙한다. 결혼식이 벌어지고 루치아가 서명을 하자마자, 에드가르도가 들이닥친다. 놀란 두 사람은 사태의 전모를 직감하게 되지만, 결혼은 결정된 후였다.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안 루치아는 미쳐버리고, 첫날밤 신랑을 죽이고 만다. 두 연인의 운명은 모두 죽음으로 끝난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들의 사랑이 하늘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ADVD-041

침엽수림에서 불어오는 거칠고 소박한 독일 정신

### 19. 베버/ 마탄의 사수

-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 파격 연출의 대명사 페터 콘비취니의 전위적인 무대의 흥미와 감동
- 한국 베이스 양희준의 열창

[줄거리] 막스는 솜씨가 뛰어난 사냥꾼으로서, 사격대회에서 우승하여 삼림보호관이 되고 더불어 사랑하는 아가테의 신랑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대회를 며칠 앞두고는 계속 종알이 표적을 빗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막스는 불안해진다. 이때 그의 친구 카스파르가 막스에게 마법의 힘으로 표적을 맞추는 마탄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물론 마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기에 몰린 막스는 유흥을 뿌리치지 못한다. 막스는 영훈을 팔고 마탄을 받는다. 드디어 사격대회가 열린다. 하지만 막스가 마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는 지역에서 추방령을 받는다. 그러나 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유예를 주자고 한다. 막스에게는 1년간 반성의 기간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젊은 남녀의 건강한 장래를 기원한다.



ADVD-042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자의 사랑과 집착

### 20.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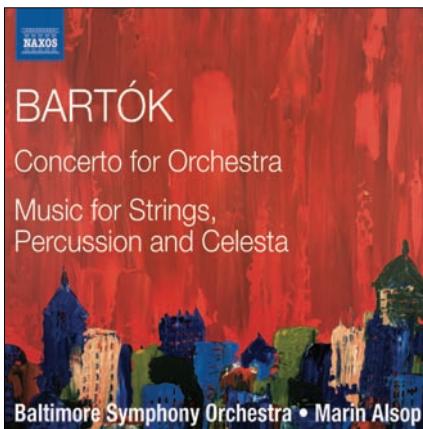
- 스트라스부르 린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 레반트의 동상적인 무대, 안젤라 데노케와 토르스텔 캐를의 열창
- 20세기 최고의 낭만 오페라

[줄거리] 벨기에의 아름다운 브뤼게에 사는 파울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잊지 못하여 집에 마리의 금발과 유물을 전시해놓는 등 과거에 집착하는 나날을 보낸다. 그런 그 앞에 죽은 아내와 꼭 같이 생긴 마리에타가 나타난다. 그는 단번에 그녀에게 반하여 그녀를 쫓아다니고, 결국 파울은 마리에타와의 사랑을 이룬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고, 그는 죽은 마리에 대한 사랑과 마리에타를 혼동한다. 마리에타는 자신은 마리가 아니라면서 마리의 유물을 부수고, 이에 파울은 그만 그녀를 죽이고 만다. 마리에타는 정말 마리와 같아진 것이다. 살은 자는 죽은 자와는 지장에서 만날 수 없다. 파울의 사랑의 꿈은 다 파괴되었다. 그는 죽음의 도시 브뤼게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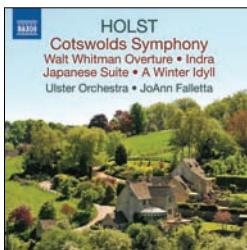
Naxos

[www.naxos.com](http://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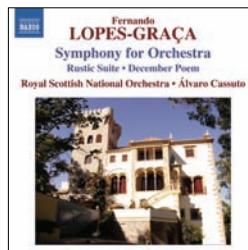


8.572486  
버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타악기와 첼로를 위한 음악  
마린 알솝 /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벨로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곡은 각 악기가 그 독특한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곡되었으며, 다양한 고전음악 형식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민속적인 리듬과 화음을 통한 협주곡만의 색채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현과 타악기, 첼로를 위한 음악>은 어두운 인상을 받지만, 곡 전체가 대칭을 이루는 신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



8.572914  
홀스트:  
코즈월즈 교향곡, 일본 모음곡,  
인드라, 월트 휘트먼 서곡 외  
조안 팔레타/ 얼스터 오케스트라  
<행성>으로 유명한 홀스트는 젊은 시절 바그너에 심취했다. 25세에 작곡한 <월트 휘트먼 서곡>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곧 이어 작곡한 <코즈월즈 교향곡>은 영국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 관을 반영한 2악장이 핵심이다. 대학 시절의 작품 <겨울의 목가>는 관현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며, <인드라>와 <일본 모음곡>은 동양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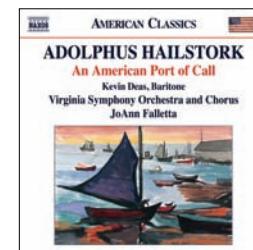
8.572892  
로페스-가르사: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시골 모음곡 1번, 축전행진곡 외  
알바로 카수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로페스-가르사는 가장 잘 알려진 20세기 포르투갈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시골 모음곡 1번>은 포르투갈의 흥겨운 민속음악을 낭만적으로 표현했다. <12월의 시>는 다소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축제 행진곡>은 반대로 화려하고 외향적인 작품이다. 신고전주의적인 <교향곡>은 민속적인 정취와 극적인 표현이 관현악의 다채로운 음색과 어우러져 있는 로페스-가르사의 대표작이다.



8.572827  
북구의 바이올린 애정곡  
(시벨리우스, 신딩, 스텐함마르, 할보르센 외)  
헤닝 크라게루드(vn)/ 비아르테 엔제세트/ 달라신포니에탄  
1910~30년 사이의 북유럽 바이올린 작품을 수록했다. 헨델 <파사칼리아> 편곡으로 유명한 할보르센의 민속 풍의 음악 <노르웨이 무곡>과 후기 낭만의 감성을 담은 신딩의 <밤의 정경>, 시벨리우스의 명작 <여섯 개의 유모레스크>, 스텐하마르의 열정적인 <감상적인 로망스> 등 신선한 리퍼토리로 가득하다. <노르웨이의 파가니니>라고 불렸던 올레 불의 화려하고 당찬 작품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8.572482  
펜데레초키:  
호른협주곡, 포노그라미, 파르티타 외  
여러 연주자들/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펜데레초키의 초기 관현악 작품은 그의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준다. <포노그라미>는 자극적인 음향과 통통 튀는 격렬한 소리, 그리고 친숙한 음악이 교대로 등장한다. <아나클라시스>는 여러 패턴이 교차되고 겹쳐지는 현대적인 기법을 보여주며 <자연의 소리 1번>과 <파르티타>는 재즈의 영향을 받은 즉흥성이 가미되어 있다. 2008년에 작곡된 신낭만적인 작품 <춘 협주곡>은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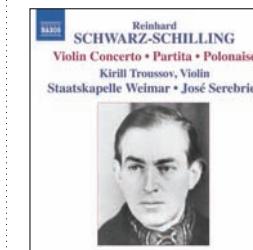
8.559722  
해일스톡:  
교향곡 1번, 3개의 흑인영화, 에미아징 그레이스 평파르 외  
케빈 디아스(br)/ 조안 팔레타/ 버지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애델퍼스 해일스톡의 음악은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향곡 1번>은 서정적이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작품으로, 그의 거장다움이 한껏 반영되어 있다. <세 개의 영가>는 본래 오르간곡으로,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오르간 음향을 재현한다. <놀라우신 은혜>에 의한 평파르는 유명한 영가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그의 대표작이며, <휘트먼의 여행>은 <삶의 바다>에서의 희망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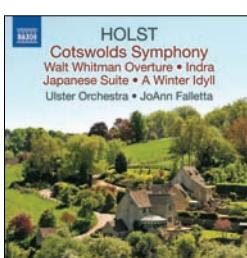
8.572924  
아당: 발레 <지젤> 하이라이트  
앤드류 모렐라/ 슬로박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젤>은 아돌프 아당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결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소녀의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으로, 아당의 팬들의 열성적인 요청으로 급히 작곡되었다. 짹사랑과 시기, 질투, 비극, 정화의 전형적인 로맨틱 발레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따뜻하고 우아하며 활기가 넘친다”는 호평을 얻은 앤드류 모렐라는 아당의 <지젤>에서도 호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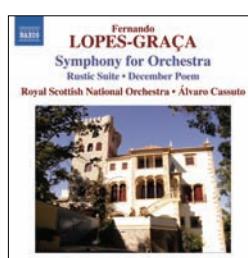
8.572714  
메시앙: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한다 외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카릴 트루소프( )/ 호세 세레브리에르/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  
슈바르츠-쉴링은 윤이상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전통의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을 찾았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쟁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곡-아리아-피날레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춤곡 풍의 명인기가 빛나는 3악장이 돋보인다. <파르티타>는 각 악장별 성격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지휘자 윤 매르클은 메시앙의 음반으로 ‘최고의 녹음’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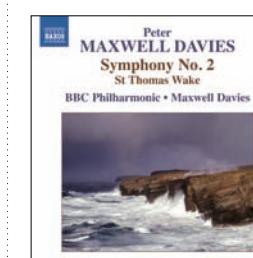
8.572801  
슈바르츠-쉴링:  
바이올린협주곡, 플로네이즈, 파르티타  
카릴 트루소프( )/ 호세 세레브리에르/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  
슈바르츠-쉴링은 윤이상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전통의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을 찾았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쟁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곡-아리아-피날레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춤곡 풍의 명인기가 빛나는 3악장이 돋보인다. <파르티타>는 각 악장별 성격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지휘자 윤 매르클은 메시앙의 음반으로 ‘최고의 녹음’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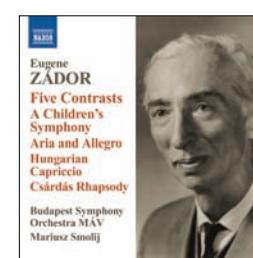
8.572914  
홀스트:  
코즈월즈 교향곡, 일본 모음곡,  
인드라, 월트 휘트먼 서곡 외  
조안 팔레타/ 얼스터 오케스트라  
<행성>으로 유명한 홀스트는 젊은 시절 바그너에 심취했다. 25세에 작곡한 <월트 휘트먼 서곡>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곧 이어 작곡한 <코즈월즈 교향곡>은 영국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 관을 반영한 2악장이 핵심이다. 대학 시절의 작품 <겨울의 목가>는 관현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며, <인드라>와 <일본 모음곡>은 동양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8.572892  
로페스-가르사: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시골 모음곡 1번, 축전행진곡 외  
알바로 카수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로페스-가르사는 가장 잘 알려진 20세기 포르투갈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시골 모음곡 1번>은 포르투갈의 흥겨운 민속음악을 낭만적으로 표현했다. <12월의 시>는 다소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축제 행진곡>은 반대로 화려하고 외향적인 작품이다. 신고전주의적인 <교향곡>은 민속적인 정취와 극적인 표현이 관현악의 다채로운 음색과 어우러져 있는 로페스-가르사의 대표작이다.



8.572748  
맥스웰 데이비스:  
교향곡 2번, 성 도마의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BBC 필하모닉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2차 세계대전 중에 완성된 오네게르의 <교향곡 2번>은 인간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공포를 그렸다. 피날레에 이르러 비가 울려 퍼지며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지만, 긍정적인 마무리로써 희망을 잃지 않는 오네게르의 기대가 담겨있다. 라자로프의 <이카루스>는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풍부한 관현악의 색채를 구현하며, 슈워츠의 결혼선물로 작곡된 <시>는 낭만적이면서도 화려하다.



8.572548  
자도르:  
어린이들의 교향곡, 5개의 콘트라스토, 아리아와 알레그로  
마리우스 스몰리/ MAV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도르는 비범한 색채감각을 가진다. 헐리우드 영화음악 작곡가였다. <아리아와 알레그로>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리드미컬한 알레그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섯 개의 대비>는 활기가 넘치는 작품으로 그의 풍부한 사운드의 세계를 들어볼 수 있다. 이해하기 쉽고 유쾌한 <어린이 교향곡>은 그의 가장 유명한 곡에 속한다. 이외에도 그의 조국 헝가리의 풍취가 가득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8.570927  
마이어:  
콘체르토 베르가마스코, 건반협주곡, 트리오 콘체르坦테  
여러 연주자들/ 프란츠 하우크/ 바이에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도니제티의 스승으로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몬 마이어는 관현악 작품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베르가마스코 협주곡>은 네 악장에서 각각 다른 악기가 독주를 맡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지만 민속적인 요소를 더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건반 협주곡>은 그의 가장 유명한 곡에 속한다. 이외에도 그의 조국 헝가리의 풍취가 가득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8.573029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 관현악 모음곡 ‘1941년’  
마린 알솝  
상 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솝은 상파울루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시리즈를 시작했다. 그 첫 앨범으로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5번>을 택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으로서 초연 당시 작곡가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교향곡’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폭발적인 호소력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1941년>은 독일의 소련 침공을 소재로 하는 곡으로, <교향곡 5번>을 예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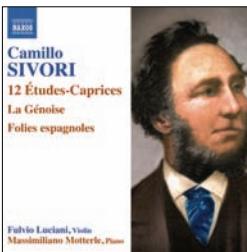


Sergey PROKOFIEV  
Symphony No. 5  
The Year 1941  
São Paulo Symphony Orchestra  
Marin Alsop  
마린 알솝은 상파울루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시리즈를 시작했다. 그 첫 앨범으로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5번>을 택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으로서 초연 당시 작곡자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교향곡’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폭발적인 호소력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1941년>은 독일의 소련 침공을 소재로 하는 곡으로, <교향곡 5번>을 예견한다.

## New Releases | CD



8.571208  
헨델: 콘체르토 그로소  
비발디: 플루트협주곡  
CPE 바흐: 플루트협주곡  
스캇 고프(pf) / 제럴드 슈워츠/  
시에를 심포니  
헨델의 <합주 협주곡, Op. 6>은 작은 현악 양성과 관현악이 대비되며 교대로 연주되는 음악적 유희를 펼친다. <흥방울사>라고 불리는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은 <사계>처럼 자연을 모방한 상쾌한 멜로디로 가득하다. CPE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단조>는 지극히 극적이며 마지막 악장의 명인기는 특히 유명하다. 시애틀 심포니를 이끄는 수석 연주자들이 독주를 맡아 18세기적 이미엄을 실현했다.



8.572484  
시보리:  
12개의 에튀드-카프리스, 스페인 풍 폴리아, 제네바 여인  
풀비오 루치아니(vn)/ 마시밀리  
아노 모테를레(pf)  
시보리는 파가니니의 제자로, 초기교적인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파가니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12개의 연습곡-카프리스>은 최고의 기교를 이용하는 어려운 곡이지만, 우아하고 서정적인 풍만 음악의 특징을 잊지 않았다. 주제와 일곱 개의 변주로 구성된 <제네바 여인>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동등하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 음반에서 네 곡을 들어볼 수 있다. 아센시오의 <사적인 수집>은 스페인의 유여와 활기찬 리듬으로 가득하다.

**Laureate Series •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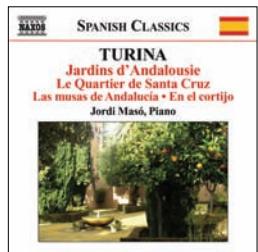
**Vladimir Gorbach**  
2011 Winner  
Guitar Foundation of America Competition

**GUITAR REC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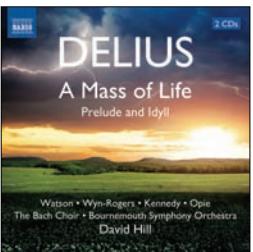
Astor PIAZZOLLA  
Domenico SCARLATTI  
Mauro GIULIANI  
Vicente ASENCO

Fulvio Luciani, Violin  
Massimiliano Motterle,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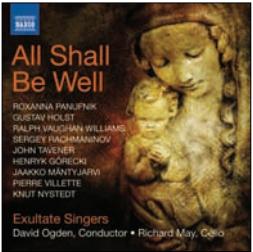
8.573023  
블라디미르 고르바흐 기타 리사이틀  
피아졸라: 사계, 스카를라티: 소나타, 줄리아니: 론돌레토, 아센시오: 사적인 수집  
차세대 기타리스트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고르바흐는 2011년 미국 국제 연주자 콩쿠르 기타 부문에서 우승했다. 피아졸라의 <향구의 사계>는 각 계절마다 색다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정을 담고 있다.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들은 최근에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편곡하여 연주하고 있는데, 이 음반에서 네 곡을 들어볼 수 있다. 아센시오의 <사적인 수집>은 스페인의 유여와 활기찬 리듬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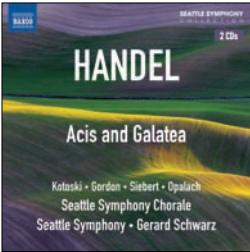
8.572682  
투리나:  
안달루시아의 정원, 산타크루스의 1/4 외  
조르디 마소(pt)  
투리나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최고의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산뜻한 색채와 다양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있고 춤곡이 많아 흥겹다. <안달루시아의 정원>은 궁전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리듬 변주곡>(<산타 크루즈의 4분의 1>)은 세비야의 사랑과 결투, 드라마를 노래한다. <농장에서>는 시골의 에피소드를 명인기적으로 펼쳐놓는다. 투리나 시리즈로 큰 호평을 얻은 조르디 마소가 그 명성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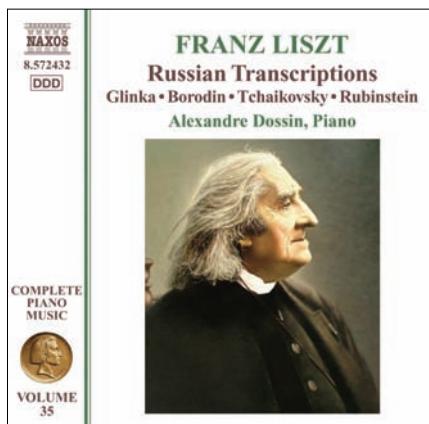
8.572861-62 [2CDs]  
델리어스:  
생명의 미사, 전주곡과 전원곡  
여러 가수들/ 바흐 콘서트/ 데이비드 힐/ 본머스 심포니  
델리어스는 니체의 열렬한 팬으로서, <차라투스트라>의 문구를 인용하여 <생명의 미사>를 작곡했다. 영웅적인 웅장함과 강렬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으며, 섬세한 아름다움도 겸비하고 있다. <전주곡과 전원곡>은 숨을 거둔 해에 작곡된 곡으로, 델리어스가 오래 전에 스스로 폐기했던 오페라로부터 이 곡을 만들었다. 삶과 사랑을 내용으로 하여 아름답고 평온하면서도 오페라적인 극적 표현도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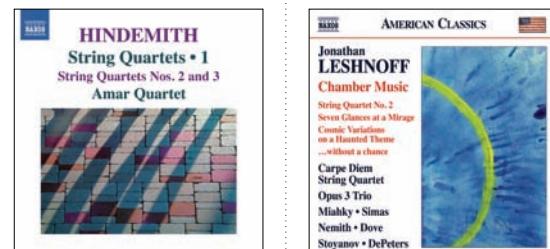
8.572760  
All shall be well  
(본월리엄스, 태브너, 구레츠키,  
홀스트 등의 종교합창곡)  
데이비드 옥든/ 엑슬라테 싱어즈  
이 음반의 폭넓은 프로그램은 연관되어있는 음악과 대비되는 음악을 포함한다. 평생 친구로 지냈던 홀스트와 본 월리엄스는 각자의 스타일은 매우 다르지만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라흐마니노프와 존 태브너는 러시아 정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비예트와 뉴스테는 성모에 대한 기도는 공통점이 있다. 파누프니코의 아름다운 기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은 세계최초녹음이다.



8.572745-46  
헨델:  
아시스와 갈라테아 (2CD)  
던 코토스키/ 데이비드 고든 외/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와  
합창단  
<아시스와 갈라테아>는 헨델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다. 헨델은 1708년에 같은 주제로 칸타타를 작곡했지만, 1739년에 2막의 극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곡에는 목가적인 아리아와 사랑스러운 대본, 한껏 기쁘기도 하고 슬픔을 자아내기도 하는 합창이 계속 이어진다. 특히 목동인 아시스와 님프인 갈라테아의 애듯한 시간을 훠방하는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우스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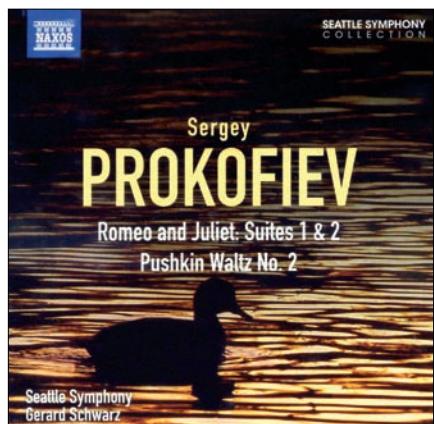


8.572432  
리스트:  
러시아 작품들의 피아노 편곡  
알렉산드르 도신(pf)  
레코드가 없던 19세기에는 많은 연주자들이 편곡으로 음악을 전파했다. 19세기의 피아니스트 리스트도 많은 편곡을 남겼다. 그런데 리스트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재창조하는 특별함이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러시아 음악 편곡집에 수록된 작품이 그 경우이다. 차이코프스키의 <에프게니 오네긴>의 유명한 ‘풀로네이즈’를 들어보면 리스트의 자유로운 영혼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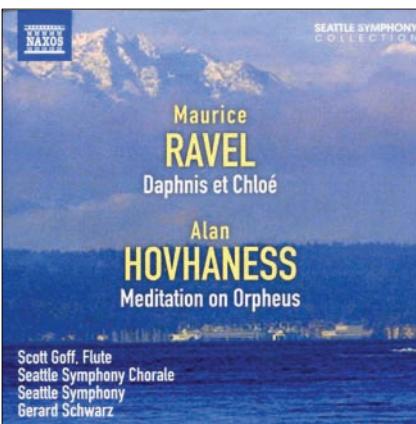


8.572163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2,3번  
아마르 콰텟  
힌데미트의 현악사중주곡들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였던 그의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음악관을 보여준다. 1918년에 작곡된 <현악사중주 2번>에서 2악장의 변주곡은 낭만시대의 과장된 표현을 모방한 것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포용하면서도 극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1920년대 초에 작곡된 <현악사중주 3번>은 힌데미트 음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자닌 작품으로, 풍부한 악상으로 가득한 명곡이다.

8.559721  
레쉬노프:  
현악사중주 2번, 우주 변주곡,  
우연 없이 외  
카르페 디엠 사중주단/ 오페스 3  
트리오 외 여러 연주자들  
레쉬노프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이다. <현악사중주 2번>은 동유럽의 유대인인 클레츠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노래한다. <신기루의 일곱 일별>은 신비로운 음향의 대비를 들려주며, <으스스한 주제>에 의한 우주 변주곡은 바흐의 코랄과 버르토크 풍의 극적 표현들을 넘나든다. 9/11 테러를 소재로 한 <우연 없이...>는 리듬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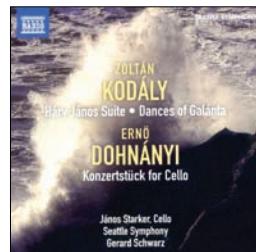


8.571210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1,2번, 푸시킨 월츠 2번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프로코피에프의 가장 유명한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소련에 정착한 후 완성된 첫 작품이었다. 하지만 키로프 발레단의 공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프로코피에프는 극적인 음악들과 유명한 장면들을 모아 원래의 순서에 관계없이 음악적 이디엄에 맞게 새롭게 배치하여 두 개의 관현악 모음곡으로 정리했다. 시애를 심포니의 거장 슈워츠가 이 두 모음곡을 모두 연주했다.



8.571211  
라벨: 발레 <다프니스와 클로에> 전곡  
호반네스: 오르페우스 명상곡  
스캇 고프(pf) /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디아길리프는 라벨에게 발레곡 <다프니스와 클로에>를 위촉했다. 안무는 미셀 포킨, 다프니스 역은 니진스키가 맡는 등, 최고의 발레 드림팀이 이 공연을 위해 꾸려졌다. 고대 그리스의 신비한 매력을 가진 흥상적인 장면들이 이어져 있으며,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라벨 특유의 화려한 음향이 가득하다. 호반네스의 <오르페우스 명상곡>도 고대 그리스의 신비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 New Releases |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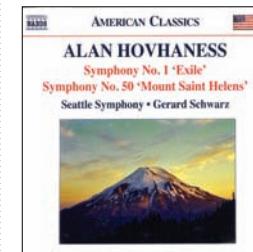
8.572749  
코다이: 하리 야노스 모음곡, 갈란타 춤곡/ 도흐나니: 첼로 콘체르슈튀크  
야노스 스타커(vc)/ 제러드 슈워츠/ 시애틱 심포니와 합창단

헝가리 민속음악을 클래식으로 승화시킨 줄탄 코다이는 오페라 <하리 야노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이 곡에서 사랑의 이중창, 거짓 영웅적 전투, 민속 음악 등 특징적이고 환상적인 여섯 장면을 골라 모음곡을 만들었다. <걸란터 무곡>은 헝가리 춤곡 ‘베르분코슈’를 바탕으로 한 곡으로, 열정이 식지 않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도흐나니의 <첼로 소협주곡>이 지난 낭만적인 선율은 지극히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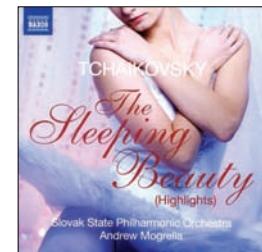
8.571209  
멘델스존:  
교향곡 2번 ‘찬양의 성가’  
마거릿 살커, 마릴린 리베라, 빙슨 콜/ 제러드 슈워츠/ 시애틱 심포니와 합창단

1840년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멘델스존은 <교향곡 2번 ‘경배찬송’>을 작곡했다. 이례적으로 열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독창과 합창이 등장하여 칸타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구텐베르크의 첫 인쇄물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인 만큼, 이 곡은 루터의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멘델스존의 풍부한 관현악과 아름다운 보컬 멜로디가 어우러진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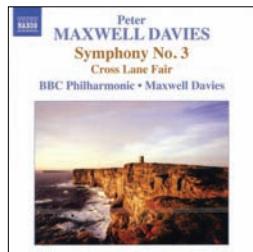
8.559717  
호바네스:  
교향곡 1번 ‘유랑’, 교향곡 50번  
'세인트 헬렌 산' 외  
론 존슨(marimba)/ 제러드 슈워츠/ 시애틱 심포니와 합창단

앨런 호바네스는 1930~40년대의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아르메니아 혈통과 일본에 대한 애정을 자신의 음악에 녹여냈다. <망명 교향곡>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트루크에 의해 쫓겨난 망명객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마림비를 위한 <일본 목판화 환상곡>은 섬세하고 매혹적이며 활동적인 작품이다. <교향곡 50번>은 세인트 헬렌스 산의 신비와 화산 폭발의 강력한 에너지를 출렁이 표현해냈다.



8.572931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하이라이트  
앤드류 모렐리아/ 슬로박 스테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중 두 번째 곡인 <숲속의 잠자는 공주>는 19세기 러시아 발레의 가장 뛰어난 걸작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설적인 안무가 프티파의 탁월한 안무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영국 출신으로 발레 음악에 탁월한 인물을 지닌 지휘자 앤드류 모렐리아는 이 음반으로 펙귄 가이드로부터 ‘따뜻하고 우아하며 생동감 있는 연주’라는 호평과 함께 세 개의 별을 받았다.



8.572350  
맥스웰 데이비스:  
교향곡 3번, 크로스 레인 페어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BBC 필하모닉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가 1984년에 완성한 교향곡 3번은 르네상스 건축물의 대칭미와 균형미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중세 찬트의 선율에서 자연의 새소리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이 작곡가의 개성적인 서법을 통해 교향곡의 형태로 갈무리되었다. 노섬브리안 피아프, 보드란 등의 개성적인 민속악기들이 큰 활약을 하는 ‘크로스 레인 페어’ 작곡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시장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이다.



8.572869  
하시모토:  
교향곡 2번, 3개의 와산, 스케초 콘센티멘토

아카이 후쿠시마(br)/ 타쿠오 유아사/ 도쿄 예술대학 필하모니아 쿠니히코 하시모토(1904~49)는 20세기 전반기 일본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했던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서구의 음악적 형식에 일본의 민속음악을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입했는데, 본 음반에는 2차 대전 직후 일본 국가간 위원회의 위촉 작품인 교향곡 2번과 불경을 텍스트로 완성한 성악곡인 3개의 와산, 신고 전주의에 기번을 둔 초기 관현악곡인 스케초 콘센티멘토가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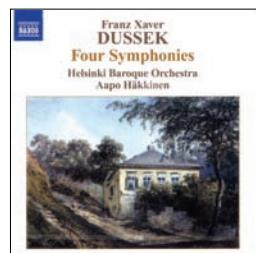
8.572917  
Street Song  
(틸손 토마스, 스트라빈스키, 콜랜드, 본 월리엄스 외)

이사시 쿼텟  
안드레스 이사시는 1890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중심도시인 빌바오에서 태어난 작곡가다. 그의 10대 후반의 작품인 현악사중주 0번은 그가 초기에 그리고 드보르작 등의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주며, 1920년에 완성한 현악사중주 2번은 그의 이전 관현악곡인 모음곡 2번의 악장들을 재활용한 작품으로, 교향곡을 방불케 하는 당당한 스케일과 치밀한 텍스처가 돋보인다.



8.572463  
이사시:  
현악사중주 0번, 현악사중주 2번  
이사시 쿼텟

세계 정상급 조지아 대학 원드 앙상블은 관악의 폭넓은 표현력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오원의 <상승하는 탑>은 도시적인 파워를, 로렌스의 <벽>은 라킨 아메리카의 세계를 들려주며, 지휘자로 유명한 마이클 틸슨 토마스의 <거리의 노래>는 옛 음악과 새로운 음악의 관점을 포괄한다. 콜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광파>는 유명한 명곡이며,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은 화려한 기교를 선보인다.



8.572683  
두색:  
4개의 심포니아  
아포 헤키넨/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친구였던 프란츠 두세는 프라하를 중심으로 큰 명성을 누렸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으며, 여러 후진들을 양성했던 음악교사였다. 빈에서 유학하는 동안 하이든, 디터스도르프 등에게서 큰 영향을 얻었던 이 작곡가가 1760~70년대에 완성했던 4편의 심포니아가 본 신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빈 고전 양식에 충실했면서도 뛰어난 선율감각을 자랑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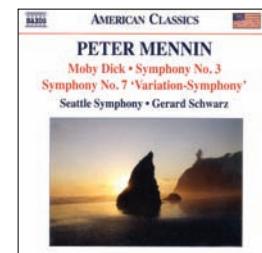
8.572485  
마르티누:  
하프시코드협주곡, 발레 <부엌의 익살극>, 실내악 1번 외  
로버트 휠(cemb)/ 클라우스 사이먼/ 출스트 심포니카디 로마

클라리넷협주곡, 코미디서곡, 론도 아를레카네스코, 탄초발처 외 자마르코 카사니(cl)/ 프란체스코 라 베카이/ 오케스트라 심포니카디 로마  
마르티누의 관현악 작품들은 고전주의적이지만,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가벼운 <코미디서곡>은 모차르트적인 면이 있지만, <정령들의 춤의 노래>는 섬세하고 우아하다. <클라리넷 협주곡>은 협주곡으로서 부조니의 고전적인 구성력이 발휘되어 있으며, <플루트 디베르티멘토>는 보다 희극적이다. <왈츠>와 <광대 풍의 론도>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비견되는 부조니의 위트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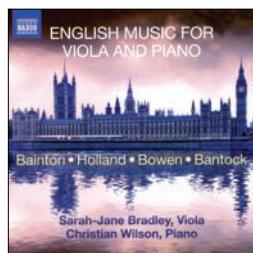
8.572922  
메닌:  
교향곡 3번, 교향곡 7번 ‘변주교향곡’, 모비 딕

제러드 슈워츠/ 시애틱 심포니카디 로마  
피터 메닌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중요한 관현악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시카고 트리뷴’ 지는 이 음반에 대해 “미국 음악의 한 세기를 정식화하는 인물에 대한 훌륭한 헌시”라고 평했다. <교향곡 3번>은 거대한 에너지와 타악기적인 악센트, 추진력 있는 리듬을 갖고 있으며, <교향곡 7번>은 각 부분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모비 딕>은 소설에 대한 감상을 순수하게 표현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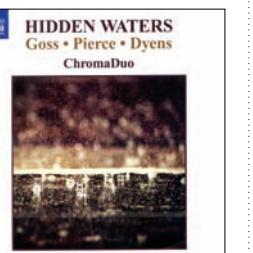
8.559718  
메닌:  
교향곡 3번, 교향곡 7번 ‘변주교향곡’, 모비 딕

제러드 슈워츠/ 시애틱 심포니카디 로마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영국음악(홀랜드, 벤톡, 보웬, 베인턴) 사리-제인 브래들리(va)/ 크리스찬 월슨(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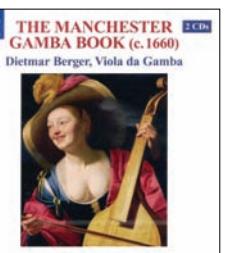
8.572761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영국음악(홀랜드, 벤톡, 보웬, 베인턴)  
사리-제인 브래들리(va)/ 크리스찬 월슨(pf)

크로마두오의 데뷔 앨범으로, ‘클래식 기타 리부’에서 “한마디로 감동 이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고스의 <날 것과 익힌 것>은 정고 라인하르트에서 피아졸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어스의 작품들은 감각적이면서 화려하고 극적이다. 디앙스의 <나테루아>는 혁신적이며 리드미컬하다. 고스의 <날 것과 익힌 것>을 제외하고 모두 세계최초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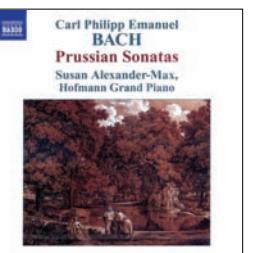
8.572757  
기타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고스, 피어스, 디옹)  
크로마두오

크로마두오의 데뷔 앨범으로, ‘클래식 기타 리부’에서 “한마디로 감동 이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고스의 <날 것과 익힌 것>은 정고 라인하르트에서 피아졸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어스의 작품들은 감각적이면서 화려하고 극적이다. 디昂스의 <나테루아>는 혁신적이며 리드미컬하다. 고스의 <날 것과 익힌 것>을 제외하고 모두 세계최초녹음이다.



8.572863~64 [2CDs]  
맨체스터 비올라 다 감바 필사본  
디에트마 베르거(viola da gam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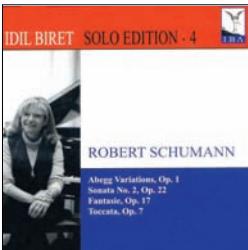
C.P.E. 바흐는 약 30년간 프레데릭 대왕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던 그는, 1742년에 작곡된 여섯 개의 ‘프리시아 소나타’에서 뛰어난 작곡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 곡은 최상의 표현력을 지니고 있으며, 양식적으로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 C.P.E. 바흐는 언어로서의 음악을 추구했는데, 이 곡에서 대담한 대비와 폭넓은 다이나믹, 극도의 감성적 표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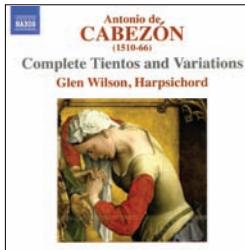
8.572674  
C.P.E. 바흐:  
프리시안 소나타 1~6번  
수잔 알렉산더-막스(pf)

C.P.E. 바흐는 약 30년간 프레데릭 대왕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던 그는, 1742년에 작곡된 여섯 개의 ‘프리시아 소나타’에서 뛰어난 작곡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 곡은 최상의 표현력을 지니고 있으며, 양식적으로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 C.P.E. 바흐는 언어로서의 음악을 추구했는데, 이 곡에서 대담한 대비와 폭넓은 다이나믹, 극도의 감성적 표현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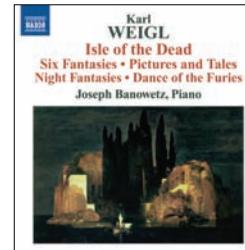
## New Releases |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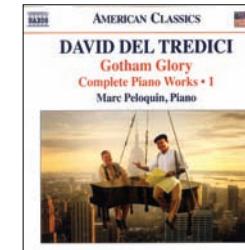
8.571291  
슈만:  
아베크변주곡, 환상곡 C장조, 토  
카타, 소나타 2번  
이딜 비렛(pf)  
비레트는 비르투오조 연주자로서 매력을 갖고 있다. 내가 만났던 가장 출중한 원초적인 슈만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사실 나는 슈만의 <환상곡>을 이보다 더 좋은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다.”(몬트리올 스타) “이딜 비렛은 당연히 낙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이다.”(클라시크 포럼) “이딜 비렛의 연주는 안정되어있으면서 감각적이고, 각 곡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있어 있다.”(펭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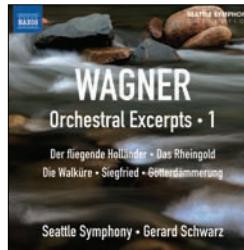
8.572475-76 [2CDs]  
카베손:  
티엔토스와 변주곡 전곡  
글렌 윌슨(cemb)  
안토니오 데 카베손은 맹인이라 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서양 음악 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반음악의 거장으로 큰 족적을 남겼던 이름이다. 스페인의 황금기였던 카를 바이글(1881-1949)은 빈의 후기낭만음악을 계승했던 작곡가였지만,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라흐마니노프의 동명 작품과 마찬가지로 브루클린의 유명한 그림을 소재로 완성한 ‘죽음의 섬’, 밀리의 교향곡 7번 중의 ‘야’과 관련이 있는 ‘밤 환상곡’, 민속음악적인 소재를 활용한 ‘그림과 이야기’, 그의 미국 시절 작품인 ‘6개의 환상곡’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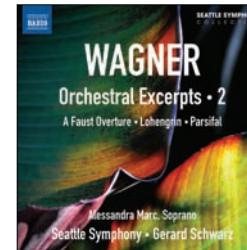
8.572423  
바이글:  
죽음의 섬, 6개의 환상곡, 그림  
과 이야기, 밤 환상곡 외  
조셉 바노베프(pf)  
카를 바이글(1881-1949)은 빈의 후기낭만음악을 계승했던 작곡가였지만,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라흐마니노프의 동명 작품과 마찬가지로 브루클린의 유명한 그림을 소재로 완성한 ‘죽음의 섬’, 밀리의 교향곡 7번 중의 ‘야’과 관련이 있는 ‘밤 환상곡’, 민속음악적인 소재를 활용한 ‘그림과 이야기’, 그의 미국 시절 작품인 ‘6개의 환상곡’ 등이 수록되었다.



8.559680  
델 트레디치:  
고담의 영광, 노란 발라드, 라벤  
더 발라드 외  
마크 펠로킨(pf)  
미국 신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델 트레디치는 풀리처 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예를 얻었다. 이 음반에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작곡된 최근의 피아노 작품들을 들을 수 있다. 마크 펠로킨은 델 트레디치가 <S/M 발라드>를 작곡해줄 정도로, 이 둘은 음악적 동료이며, 이 음반에서 이 곡을 들을 수 있다. 뉴욕의 정경을 배트맨의 도시 ‘고담’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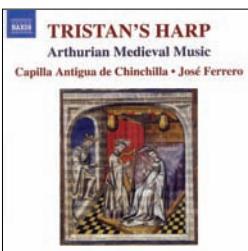
8.572767  
바그너: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 니벨룽의  
반지 관현악 발췌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거친 바다의 이미지와 환란인의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젠타의 아름다운 선율이 교차하는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은 독립 관현악 레프트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바그너 일생의 역작인 4부작 ‘니벨룽의 반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관현악 피스들인 ‘신들의 발할라 입장’, ‘보탄의 이별과 불의 음악’, ‘숲의 속삭임’, ‘지크프리트의 라인 여행’, ‘장송행진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델로스 음원 재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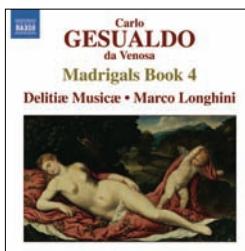
8.572768  
바그너:  
로엔그린, 파르자팔 관현악 발  
췌, 파우스트 서곡  
알레산드라 마르크(sop)/ 제러  
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파우스트’ 서곡은 바그너가 파리 체류 기간 중에 고테와 베를리오즈의 영향을 받아서 완성한 연주 화용 서곡이다. 작곡가 스스로 로맨틱 오페라라고 명명한 ‘로엔그린’ 중에서 1,3막 전주곡과 결혼 행진곡, 그리고 미국의 드라마틱 소프라는 알레산드라 마르크가 노래하는 ‘엘자와의 기도’를 노래하였다. 작곡가 최후의 걸작인 ‘파르자팔’ 중에서 1,3막 전주곡과 ‘성 금요일의 음악’이 함께 수록되었다. 델로스 음원 재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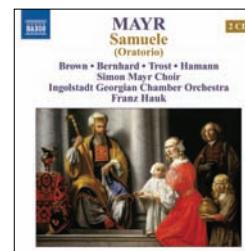
8.559723  
퍼치스:  
아메리칸 랩소디, 디비눔 미스테리움, 합주협주곡 외  
미카엘 루드비히(vn)/ 폴 실버스  
론(va)/ 조안 팔레타/ 런던 싱포니 오케스트라  
케네스 퍼치스는 현재 미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Atlantic Riband’는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일구는 과정을 파워풀한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비아울린과 관현악을 위한 서정적인 작품인 아메리칸 랩소디, 단악장의 비올라 협주곡인 ‘Divinum Mysterium’, 현악사중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협주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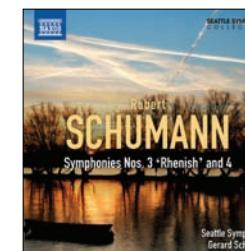
8.572784  
트리스탄의 하프  
(아서 왕을 다룬 중세 음악들)  
호세 페레로/ 카피야 안티구아  
데 친치아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에 관한 전설은 중세의 기사관련 구전 문학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소재였다. 이 이야기는 도버해협을 건너서 대륙의 각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12/3세기에 활동했던 많은 트루바두르들도 이와 관련된 여러 노래들을 만들었다. 카스티야의 ‘현왕’ 알폰소 10세,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를 비롯한 중세 음유시인들의 아서 왕 관련 노래들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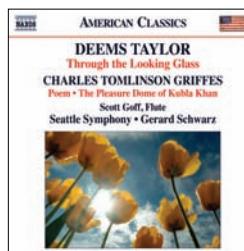
8.572137  
제수알도:  
마드리갈 4권  
마르코 롱기니/ 멜리티에 무지카  
베노사의 영주였던 카를로 제수알도는 외도를 한 아내와 연적을 살해한 살인자로, 그리고 당대로는 횡기적일 정도로 대담한 반응을 선율을 즐겨 애용했던 아마추어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시리즈로 큰 호평을 얻었던 멜리티에 무지카가 제수알도 마드리갈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에는 드라마틱한 텍스트를 토대로 모험적인 음악서법을 과감하게 동원했던 마드리갈 4권이 수록되었다.



8.572721-22 [2CDs]  
마이어:  
오라토리오 <사무엘>  
여러 가수들/ 시몬 마이어 콰이어/ 프란츠 하옥/ 임글슈타트 그레고리안 챔버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북부에서 활동했던 시몬 마이어는 이탈리아의 통일 이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던 비운의 작곡가이지만, 생전에는 당대 유럽의 그 어떤 작곡가들에 뒤지지 않는 큰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인물이다. 그의 오라토리오 <사무엘>은 독일 고전음악 스타일과 이탈리아의 벨 칸토 성악을 멋지게 조합했던 그의 탁월한 재능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8.571213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교향곡 4번  
제러드 슈워츠/ 시애를 심포니  
슈만은 클라리와 더불어 라인강 선상여행을 마친 뒤에 그 때 받았던 영감을 교향곡으로 표현하였다. 그 작품이 바로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인 ‘라인’이다. 라인강 일대의 풍광과 여행의 흥분을 특유의 유려한 선율로 표현한 이 작품은 작곡가를 대표하는 교향곡 걸작으로 사랑 받고 있다. 교향곡 4번은 교향곡 1번 직후에 완성된 작품이지만, 이후의 개정작업 이후 마지막 번호를 부여 받게 되었다. 델로스 음원 재발매.



8.559724  
테일러: 거울을 통해서/ 그리프스:  
Old Wine in New Bottles 외  
스티븐 L. 게이지/ 영스타운 주립대학 관악 양상들  
팀즈 테일러(1885-1966)를 대표하는 관현악작품인 ‘Through the Looking Glass’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독일 낭만주의와 프랑스 인상주의를 조합했던 찰스 그리프스(1884-1920)의 대표작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시곡’, ‘하얀 공작’, ‘쿠빌라이 칸의 쾌락의 궁전’, ‘바카날’ 등등 다양한 소재의 독특한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델로스 음원 재발매.



8.572762  
제이콥:  
Old Wine in New Bottles 외  
스티븐 L. 게이지/ 영스타운 주립대학 관악 양상들  
관악 양상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다섯 작품이 수록된 음반. 그랜섬의 ‘Starry Crown’은 1920/30년대 미국의 가스펠 스타일을 차용하였으며, 브라이언트의 ‘Ecstatic Waters’는 모순과 조화를 오가는 현대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다. 제이콥의 ‘새 병’에 담긴 옛 포도주’ 연작은 옛 영국 민요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치있게 변용하였다. 서정적인 선율이 돌보이는 편의 ‘Hold this boy & Listen’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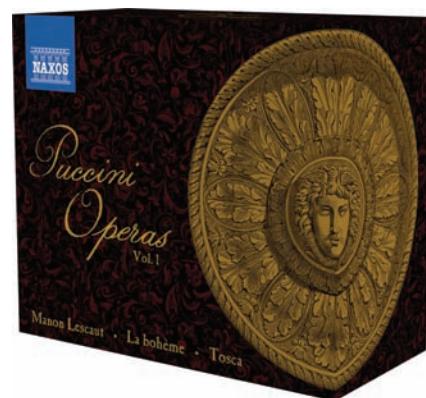


8.660312-13 [2CDs]  
메르카단테:  
오페라 <가마초의 결혼식에 온 돈 키호데>  
여러 가수들  
안토니노 폴리아니/ 브루노 체코 험보 솔로이스트  
로시니, 도니체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메르카단테는 지금은 플루트협주곡 한 작품으로 세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큰 명성을 누렸었다.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소설을 기반으로 완성한 이 오페라는 당시에 유행하던 나폴리 오페라 스타일에 스페인 민속음악의 요소들을 적절히 접목시켰던 독특한 개성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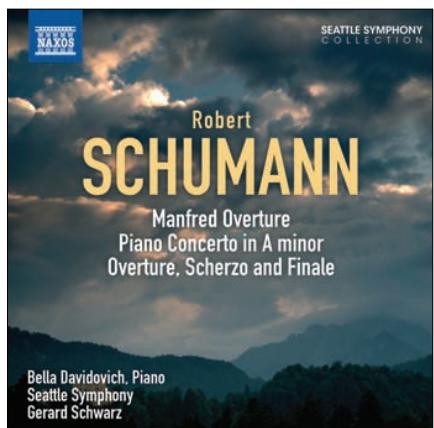
8.505230 [5CDs]  
양상블 유니콘 고음악 레코딩  
베톨레헴으로의 순례, 검은 마돈나, 트루바두르의 음악, 파엔차 코덱스  
외

중세/르네상스 음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다섯 연주자들이 함께 결성한 양상블 유니콘은 이 분야에 있어서 낙소스의 카탈로그를 풍요롭게 만든 일등 공신들이다. 그들의 대표 음반 다섯 장(베톨레헴으로의 순례, 몽세라트 수도원의 순례자들의 노래, 트루바두르의 음악,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기교적인 춤곡, 파엔차 코덱스)을 함께 모은 이 박스를 통해 중세/르네상스 음악의 신선한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8.506028 [6CDs]  
푸치니 오페라 박스  
마농 레스코, 라 보엠, 토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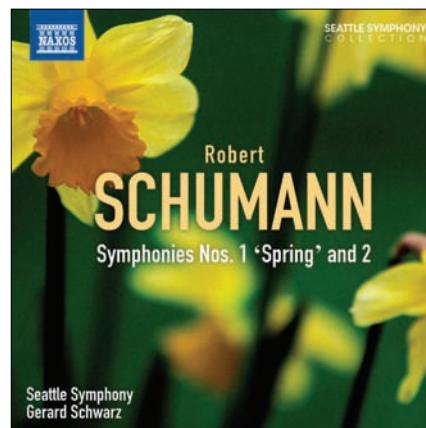
자코모 푸치니는 베르디를 통해 정점에 올랐던 벨 칸토 중심의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과 바그너에 의해 혁명적으로 제시된 라이트 모티프 중심의 드라마 중심의 오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오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기존에 낙소스를 통해 출시되었던 그의 대표 오페라들인 〈라 보엠〉, 〈토스카〉, 〈마농 레스코〉의 전곡을 함께 묶은 BOX Set이다.



8571214  
슈만:  
피아노협주곡, 만프레드 서곡, 서곡과 스케르초  
벨라 다비도비치(pf)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슈만은 낭만시대의 전형과도 같은 삶을 살았고, 그의 음악 또한 그러하였다. 그가 남긴 유일한 피아노협주곡은 그의 음악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이다. 1949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벨라 다비도비치가 독주를 맡았다. 바이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만프레드' 서곡과 완벽한 교향곡에 가까운 관현악작품인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가 함께 수록되었다. 멜로스 음원 재발매.



8.571212  
슈만:  
교향곡 1번 '봄', 교향곡 2번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교향곡 분야에서 베톨베이 이뤘던 위대한 업적을 경외해왔던 슈만은 자신의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적 특징을 출렁하게 이입한 교향곡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봄의 영감'을 표현한 교향곡 1번은 1841년 초연 당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기작이며, 교향곡 2번은 보다 진중한 분위기의 서사적 성격의 작품이다. 멜로스 음원 재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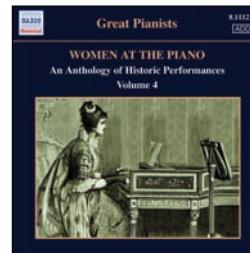
## Naxos Historical



8.112072  
야사 하이페츠 앙코르 모음집 Vol.1

브람스, 하차투란, 파가니니, 스트라빈스키,  
소스타코비치, 드뷔시, 디니쿠, 라벨 외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ニ스트였던 하이페츠는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장인정신과 깨질 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였다. 그가 남긴 여러 편곡들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리흐마니노프 편곡들과 베넷의 〈노래 소나타〉는 연주회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도 연주했으며, 1960년에 LP로 출시되었던 음원들도 수록되어있다. 이 음반에서 하이페츠 바이올린 예술의 진면목을 만나보자.



8.111218  
피아노 앞의 여인 Vol.4

이본느 르페비르, 로티 모렐, 로사 타마르키나, 지나 바하우어, 릴리 디옹 외

여성 피아니스트 시리즈 4집에서 부당하게 잊혔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타마르키나는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30세의 나이에 요절했으며, 체코 출신의 푸흐소비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지만 희귀한 1944년 HMV 녹음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 디몬트는 1930년에서 베를린에서 녹음했을 뿐이다.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연주자이며,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희귀한 자료이다.



8.111386  
에밀 길렐스 초기 레코딩 Vol.3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리스트: 형가리 랩소디, 라 캄파넬라, 쇼팽: 발라드 1번 외

젊은 에밀 길렐스가 가진 폭넓은 표현력이 이 음반에 담겨져 있다. 1929년에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하여 1950년대 서방세계 투어에서도 연주할 정도로, 스카를라티는 길렐스의 레퍼토리였다. 그리고 그는 리스트와 등등한 수준의 기교를 가진 매우 드문 연주자이기도 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리스트의 〈황상곡〉은 1933년 제1회 소련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연주했던 곡이기도 하다.



## L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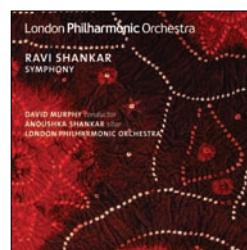
LPO-0062

드보작:

스타바트 마테르

아니스 웃슨, 닉마르 페츠코바, 피터 오디, 피터 로즈/느메 예르비/ 런던 필과 합창단

드보작이 자신의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완성한 작품인 스타바트 마테르는 로시니, 페르골레지의 그것과 더불어 가장 큰 뛰어난 스타바트 마테르로 손꼽히는 걸작이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성모를 다른 이 작품에는 자식을 잃은 자신의 괴로움이 절실히 스며들어 있다. 본 신보는 2010년 10월 9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거장 느메 예르비의 노련한 지휘가 빛을 발한다.



LPO-0060

라비 상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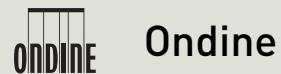
교향곡

아누쉬카 상카(sitar)

데이비드 머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비 상카는 인도의 민속 악기인 시타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거장 연주자이며, 작곡가로서도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남겼다. 2010년에 초연된 교향곡은 그가 서구의 통상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을 위해 완성한 최초의 작품으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악기인 시타르로 표현되는 인도의 독특한 정취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신보는 초연무대를 담은 것으로, 작곡가의 딸인 아누쉬카가 시타르 독주를 담당하였다.

## New Releases |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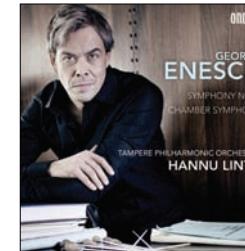
Ondine



ODE1209-2  
JS 바흐:  
골트베르크 변주곡 (아코디언 연주)  
아네 래티아(accordion)  
아코디언으로 <골트베르크 변주곡>에 담겨진 바흐의 마음을 풀어내다  
아네 래티아가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아코디언으로 연주했다. 그는 스페인 아리사테 이리아 콩쿨 등 여려 콩쿨에서 우승하여 주목받았으며, 오늘날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골트베르크 변주곡>의 건반악기 이미지를 아코디언으로 성공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아코디언의 감각적이고 섬세한 표정을 더했다. 또 다른 해석으로 풀어낸 여덟 곡의 얼터너티브 트랙도 수록했다.



ODE1193-2  
크라우스:  
2개의 비올라 협주곡,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va)/ 리타 페졸라(vc)/ 타피올라 신포니에타  
'스웨덴의 모차르트' 크라우스의 새롭 발견된 비올라 협주곡  
"나는 두 명의 전재를 알고 있다. 모차르트와 크라우스이다." 하이든의 이 말은 크라우스의 존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크라우스는 독일 출신으로 스웨덴에서 활동하면서 36세에 요절했으며, 아직도 많은 작품들이 일어져 있지 않다. 최근에 세 개의 비올라 협주곡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최초로 녹음하는 영에는 레너드 번스타인 상과 애버리 피셔 상에 빛나는 카펜터에게 돌아갔다. 바로 이 음반이다.



ODE1196-2  
에네스쿠:  
교향곡 2번, 12악기를 위한 첼비 심포니  
한누 린투/ 탐페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색을 창조하고 배합하는 에네스쿠의 천재적인 능력을 놓치지 말라. 에네스쿠는 그가 태어난 지역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루마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인이다. 탐페레 필하모닉을 맡고 있는 한누 린투는 에네스쿠의 교향곡으로 그의 위대한 예술적 성과를 조명한다. 린투는 서울시향과 KBS 등을 지휘하여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프랑스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향곡 2번>에서 음색을 창조하고 배합하는 에네스쿠의 천재적인 능력에 놀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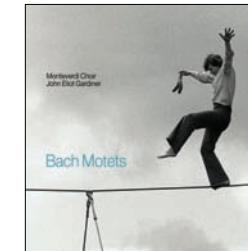
ODE1200-2  
베를리오즈: 에르미네, 여름 밤 라벨: 세레라자데  
베로니크 장(ms)/ 존 악셀로드/ 패드 라 루아르 국립 교향악단  
베로니크 장의 또 하나의 모습, 그녀의 프랑스 노래를 듣는다. 바로크 음악으로 큰 명성을 얻은 베로니크 장의 또 다른 장기는 바로 프랑스의 음악이다. 그녀가 모국어로 부르는 노래는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베를리오즈의 <여름 밤>과 라벨의 <세에라자드>는 깔끔한 발음과 부드럽고 화사한 그녀의 음성에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태어난다. <환상 교향곡>을 예견하는 <에르미네>는 들을 기회가 매우 드문 작품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www.ondine.net](http://www.ondine.net)



Soli Deo Gloria[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http://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716  
JS 바흐: 모테트 BWV 159, 225-230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콘서트

바흐의 모테트는 연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로 악명 높은 작품들이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일부 연주들의 경우는 표지의 곡 예시와 같은 아슬아슬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가디너의 경우는 이 걸작들에 대한 놀라운 혜안과 능숙한 접근법을 통해, 이 작품들 속에 내재된 춤곡과 유사한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강조하였으며, 뛰어난 기교를 자랑하는 그의 합창단은 따뜻하고도 투명한 양상으로 지휘자의 의도에 반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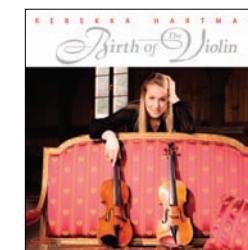
'Komm, Jesu, Komm' BWV229

단 트랙 만으로도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반이다." Stephen Pritchard, The Observer 2012 May



Solo Musica

[www.solo-musica.de](http://www.solo-musica.de)



SM151

바이올린의 탄생

(베스토프, 비버, 피젤텔, 제미니아니 외)

레베키 하르트만(1669년 아마티, 1675년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의 탄생'에 이은 기대작 '바이올린의 탄생'

하르트만은 베스토프와 비버, 피젤텔 등 가장 오래된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들을 연주했다. 이 곡들은 당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곡들이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이올린에 속하는 1669년 니콜로 아마티의 '레티'와 1675년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17세기의 고색창연한 음색을 들려준다. 세계최초녹음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



Dynamic

[www.dynamic.it](http://www.dynamic.it)



CDS712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RAI 토리노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베를린필 상임이 되기 전, 35세의 젊은 카라얀이 들려주는 LEGATO 카라얀이 35세 때인 1953년은 독일 전음악감독이라는 직책을 얻어 지휘자로서 큰 명예를 얻게 된 해이다. 이 음반은 바로 이 해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녹음으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의 두 번째 녹음이다. 카라얀의 레가토 스티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으로서, 이 녹음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레가토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 함께 수록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도 같은 해에 녹음된 것으로, 카라얀이 지휘한 이 곡의 첫 녹음이다. 젊음의 힘을 숨기지 않고 열정을 폭발시키는 카라얀의 당찬 연주는 이 녹음만의 특징이다.



CDS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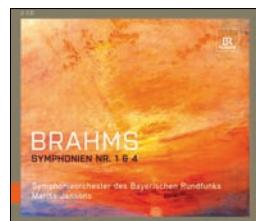
리스트: 교향시의 피아노 편곡

오리치오 소르티노(피아노)

리스트의 교향시는 본래 피아노곡이었다? 리스트의 교향시 다섯 곡의 리스트 자신과 다른 작곡가에 의한 피아노 편곡을 수록하고 있다. 피아노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던 리스트는 관련 악에도 큰 앙망을 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작곡했지만, 그의 악상은 피아노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로 연주해도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소르티노는 작곡가와 지휘자로도 성공한 천재 음악가이다. 그는 이 편곡에서 리스트의 교향시에 숨겨진 피아니즘을 이끌어냈으며, 남만적인 영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구조적인 해석과 풍부한 음향으로 보다 완전한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BR Klassik



900112 [2 for 1.5]

브람스: 교향곡 1,4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최고의 콤비, 안손스와 바이에른이 만들어낸 가장 브람스다운 브람스 안손스는 2003년에 바이에른을 맡은 이래, 세 번이나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깊은 신뢰로 만들어진 음악은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아한 고음과 중후한 저음의 환상적인 하모니는 뛰어난 녹음 기술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템포와 다이나믹은 음표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사려 깊게 처리되어 있다. 브람스의 성격과 매우 닮아있는 해석이다.



900113

말러: 교향곡 9번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콘체르트하우스 시절에 밀려 교향곡 전곡을 녹음했던 하이팅크는, 오랜 침묵을 깨고 2006년에 시카고 심포니와 사이클을 시작했다. 이 사이클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으로 이어졌고 5번에 이어 2011년 12월에 9번이 녹음되었다. 이 곡은 마지막 악장에 '죽는 듯이'라고 적은 등, 죽음을 직감하고 세상에 대한 고별인사를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말라는 삶에 대한 애정과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드라마가 이어진다. 82세의 노거장 하이팅크는 나이가 많아지지 않을 때 감한 표현과 극적인 템포로 이러한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펼쳐놓는다.

[www.br-klassik.de](http://www.br-klassik.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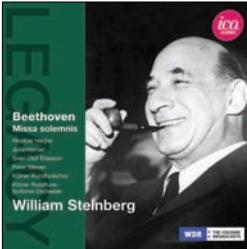
## ICA(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www.icartist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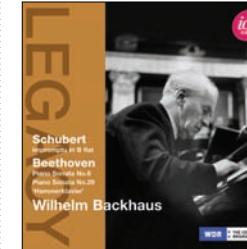


ICA5053  
홀스트: 행성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BBC 교향악단, 겐나지 로제스트  
벤스키(지휘)  
러시아의 살아있는 전설, 로제스  
트벤스키의 예술

구 소련에 대한 거장의 귀환을 환영하는  
김격적인 현장  
1899년 뮌헨에서 태어난 슈타인  
버그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  
너가 '윌리엄 스타인버그'로 이  
름을 고쳤다. 1945년부터 1972  
년까지 미국의 여러 관현악단을  
맡으면서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  
는, 1973년에 드디어 고향 뮌헨  
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이 음반에서 그 때의 감각  
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뮌헨  
을 대표하는 뮌헨 방송교향악단  
과 뮌헨 방송합창단이 연주한 베  
토벤의 <청소년 미사>는 거대한 스  
케일과 영웅적인 음향으로 위대  
한 거장의 귀환을 환영한다. 당시  
독일 최고의 독창자들이 참여  
하여 더욱 깊은 감동으로 이끈  
다. WDR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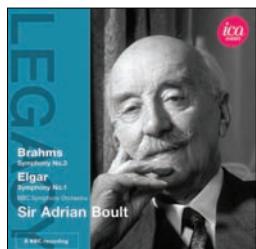
ICA5054  
베트벤: 장엄 미사  
쾰른 방송합창단, 쾰른 방송교향  
악단, 윌리엄 스타인버그(지휘)  
위대한 거장의 귀환을 환영하는  
김격적인 현장



ICA5055  
슈만: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 소  
나타 30번, 에로이카 변주곡  
아니 피셔(피아노), 쾰른 방송교  
향악단, 오제프 카일베르트(지휘)  
빌헬름 박하우스(지휘)  
낭만 시대의 감수성을 간직한 박  
하우스의 감미로운 터치



빌헬름 박하우스는 20세기 독일  
피아니스트를 상징하는 아이콘  
이며, 그 시절의 사운드를 그리  
워하는 향수의 대상이기도 하다.  
박하우스는 특히 베트벤과 독일  
낭만음악에 많은 찬사를 받았는  
데, 1959년 본에서의 실황 연주  
를 수록한 이 음반에서 그의 진  
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슈베르  
트의 <즉흥곡>에서 멜로디 라인  
을 연주하는 영롱한 터치와 화음을  
연주하는 은은한 사운드는 다른  
어떠한 연주도 잊힐 만큼 감  
미롭다. 베트벤의 두 개의 소나  
타에서도 선율을 무겁지 않고 부  
드럽게 연주하면서, 베트벤을 마  
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로 이  
끈다. WDR 녹음



ICA5063  
브람스: 교향곡 3번  
엘가: 교향곡 1번  
BBC 교향악단  
아드리안 볼트(지휘)  
승리의 정합한 멜로디와 함께 온몸  
에 전율을 느끼다.  
아드리안 볼트는 90세까지 콘서트  
의 포디움에 올랐으며, 그 이후에는  
스튜디오 녹음을 진행하는 등 남다  
른 열정의 소유자였다. 이 음반에 수록된 브람스 <교향곡 3번> 녹음은  
88세였던 1977년에 있었던 실황으로, 대부분 연주와 같이 다급하거나  
감정적이기보다는 여유 있는 템포 위에 거장다운 넓은 음향 표현으로  
철학적인 사색과 정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낸 해석을 들려준다.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엘가의 <교향곡 1번>은 볼트의 중요한 레퍼토리로서, 행  
진곡 리듬 위에 승리의 정합한 멜로디가 등장할 때부터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BBC 녹음



ICA5066  
베르디: 진혼 레퀴엠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등 여섯  
개의 서곡  
비쉬넵스카야(소프라노), 이사코바  
(메조-소프라노), 이바놉스카(테너),  
페트로프(베이스)  
국립 아카데미 합창단, 모스크바 필  
하모닉, ORTF 국립 관현악단, 이  
고르 마르케비치(지휘)  
구 소련 최고의 독창진과 함께 역사적인 모스크바 연주회 실황  
마르케비치는 우크라이나의 키에프 출신이지만, 두 살 때인 1914년에  
유럽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디아길리프, 스트라빈스키 등과 교류하는  
등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1960년 모스크바  
에서 이루어진 베르디의 <진혼 레퀴엠> 연주는 그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또한 로스트로포비치의 뷰인인 비쉬넵스카야 등 구 소련  
최고의 독창진들로 꾸며진 역사적인 연주회로 기록되고 있다. 로시니의  
서곡은 과거에 LP로 발매되었던 마르케비치의 명반으로, 드디어 CD로  
재발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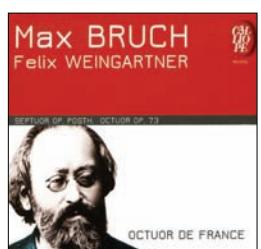
ICA5069  
라흐마니노프: 종  
프로코피에프: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프로카(소프라노), 슈토바(테너), 라이파쿠스(바리톤), BBC 심포니 합  
창단과 관현악단, 핫손(메조-소프라노), 필하모니아 합창단과 관현악단,  
에프케니 스베틀라노프(지휘)  
스베틀라노프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남긴 위대한 유산 BBC  
Recording  
구 소련의 위대한 거장 스베틀라노프는 옛 멜로디아에서 많은 녹음을  
남겼지만, 음질이 좋지 않은 틈에 아쉬움이 많았다. 그렇기에 런던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매우 반갑다. 라흐마니노프의 <종>은 그의 러시아적  
향취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스베틀라노프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이 녹음에는 삶을 갈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느  
낄 수 있다. 라이파쿠스의 중후한 음성은 연주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에서는 마치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는 듯한 환상  
을 불러일으킨다.



ICA5070  
보케리니: 스페인의 여군주  
모차르트: 사냥  
베토벤: 사중주 15번  
이탈리아 사중주단  
뛰어난 해석을 넘어 영혼을 정화시키는 이탈리아 사중주단의 명연주  
BBC Recording  
이탈리아 사중주단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현악사중주단 중 하나였  
다. 특히 고전 음악으로 큰 명성을 얻었으며, 폴리니, 푸르니에 등 거장  
들과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이 음반은 1965년 2월 런던에서 열린 공  
연 실황으로, 이탈리아 사중주단에게 명성을 안겨준 고전작품들이 수록  
되었다. 흔히 연주되지 않는 보케리니의 사중주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베토벤 <현악사중주 15번>에서 20분에 이르는 장대한 3악장 '신성한  
감사의 노래'에서 이탈리아 사중주단은 뛰어난 연주를 넘어 감상자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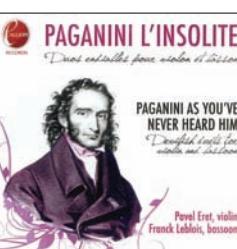


Caliope



CAL1103  
브루흐: 7중주, 바인가르트너: 8중주  
프랑스 팔중주단

독일 낭만의 두 거장, 브루흐와 바인가르트너의 완성도 높은 실내악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유명한 브루흐는 작곡 신동이었다. 11세 때  
에 작곡된 <7중주>가 바로 그 증거이다. 30분이 훨씬 넘는 대곡을 다루  
는 솜씨는 이미 성숙한 작곡가였음을 보여준다. 바인가르트너는 지휘자  
로 유명하지만, 그의 여러 작품들이 녹음되면서 작곡가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결정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음색을 지닌 그의 <8중주>는 바  
그너 스타일의 거대한 스케일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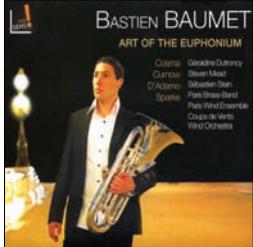


CAL1206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바순을 위한 세 개의 이중주 등  
파벨 에레트(바이올린), 프랑크 르블루아(바순)  
'세계 두 번째 녹음'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바순의 독특한 듀엣  
바이올린과 바순의 듀엣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파가니니는 1800년  
즈음에 바이올린과 바순을 위해 세 곡의 듀엣을 작곡했는데, 오늘날 들  
을 기회가 매우 드물다. 그렇기에 이 세 곡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이 음  
반은 새로운 음악을 찾는 애호가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  
다. 파가니니 특유의 명쾌하면서도 낙천적인 분위기는 바이올린과 바순  
이중주에서도 여전하며, 음악의 즐거움이 한껏 배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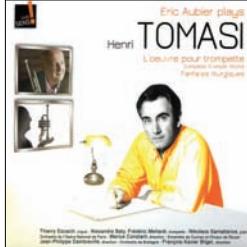


## Indesens

www.indesen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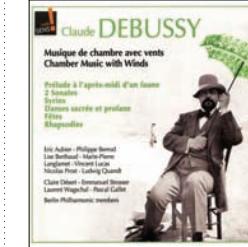
**INDE034**  
**커나우:**  
 교향적 협주곡  
**코스마:**  
 유피니움 협주곡 등  
**바스티앙 보메(유피니움), 파리 원드 양상블, 쿠드방 원드 오케스트라 등**  
**제주국제관악제 1위에 빛나는 바스티앙 보메의 유피니움의 예술**  
**바스티앙 보메는 지난 2008년 가장 중요한 금관 콩쿨 중 하나인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유피니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상으로 세계 최고의 유피니움 연주자로 인정받은 그는 드디어 데뷔 음반을 선보였다. 유피니움은 류비보다 조금 작으며, 테너 파트를 담당한다. 현악기로 보면 첼로에 해당하는 악기로, 훈과 같이 따뜻하고 듀비와 같이 풍부하며, 첼로와 같이 감성적인 음향에 매료될 것이다.



**INDE038**  
**토마시:**  
**트럼펫 협주곡 등 트럼펫 작품 전곡**  
**에릭 오비에(트럼펫),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브레타뉴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음악의 컬리아리스트, 에릭 오비에가 그리는 토마시의 트럼펫 작품**  
**에릭 오비에는 프랑스 최고의 트럼펫으로서, 음악의 컬리아리스트로 불린다.** 그는 이 음반에 양리 토마시의 트럼펫 음악 전곡을 녹음했다. 토마시의 작품은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표현적이면서도 내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가장 프랑스적인 금관 작품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44년작 〈기도 광파르〉부터 1963년작 〈그레고리안 협주곡〉까지 20년 동안 탄생된 프랑스 금관 예술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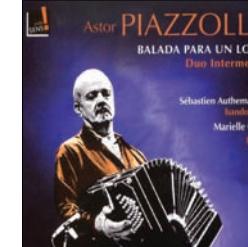
**INDE039**  
**모차르트, 베토벤:**  
**슈흐(피아노), 케로(오보에), 만초(클라리넷), 트레넬(바순), 알론소(훈)**  
**28세의 모차르트와 26세 베토벤, 두 청년의 열정이 탄생시킨 두 개의 오중주**  
**모차르트는 28세에 피아노와 오보에, 클라리넷, 훈, 바순을 위한 〈오중주〉를 작곡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생애에서 가장 잘 작곡된 곡”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만족해했다. 26세 때에 이 곡을 들은 베토벤은 매우 감동하여 같은 편성, 같은 조성, 같은 악장 수, 그리고 비슷한 빠르기로 〈오중주〉를 작곡했다. 고전 시대의 두 청년의 열정이 탄생시킨 두 개의 오중주를 함께 들어보자.



**INDE040**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클라리넷 랩소디, 색소폰 랩소디 등**  
**뤼키스(플루트), 베로(클라리넷), 프로(알토색소폰), 크반트(첼로), 랑글라메(하프) 등**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하프 – 드뷔시를 상징하는 악기들의 종집합**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플루트는 드뷔시를 대표하는 악기가 되었다.** 드뷔시는 이후에도 〈플루트와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와 〈시링크스〉 등 플루트를 위한 명곡을 남겼다. 하지만 드뷔시는 목관에 대한 통찰력은 플루트에 국한되지 않았다. 〈클라리넷 랩소디〉와 〈색소폰 랩소디〉은 그 훌륭한 결과물들이다. 〈첼로 소나타〉는 피아노 대신 하프로 반주하여 드뷔시적인 환상을 물씬 풍긴다.



**INDE043 [3CDs for 2]**  
**프랑세:**  
**실내악곡집**  
**프랑스 팔중주단, 장 프랑세(피아노, 지휘)**  
**프랑스인이 누리는 삶의 즐거움, 프랑세 실내악 예술의 모든 것!**  
**장 프랑세는 20세기를 살았지만 아방가르드에 동참하지 않고 프랑스 6인조를 잇는 신고 전주의적인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경쾌하고 활기차며, 삶을 즐기는 프랑스인의 낙천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이 음반은 25세 때의 〈현악사중주〉에서 83세 때의 〈9중주〉까지, 그리고 이중주부터 10중주까지 프랑세 실내악 예술의 모든 것을 담았다. 작곡가가 직접 참여하여 더욱 가치가 높다.



**INDE046**  
**피아졸라:**  
**미켈란젤로 '70, 항구의 거울, 리베라탕고, 아디オス 노니노 등**  
**세바스티앙 오테마유(반도네온), 마리엘 가르(피아노)**  
**피아졸라 전문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반도네온과 피아노의 색다른 하모니**  
**피아졸리를 연주한 음반은 무수히 많지만, 이 음반은 가장 피아졸라적인 악기, 반도네온을 위한 음반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세바스티昂 오테마유는 생데니에 음악원에서 아코디언으로 1등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여러 콩쿨에서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툴롱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피아니스트 마리엘 가르와 함께 ‘두오 앵테르메조’를 만들어 피아졸라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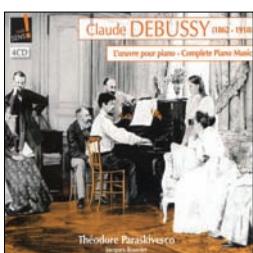


**INDE047**  
**티에리 제르베의 트럼펫 예술**  
**티에리 제르베(트럼펫), 앨런 비주티(트럼펫), 폴란드 방송 교향악단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트럼페터 티에리 제르베가 선택한 여섯 작곡가의 협주곡**  
**티에리 제르베가 대중과 모더니즘을 넘나드는 트럼펫 예술의 모든 것을 담았다.** 바실렌코의 협주곡은 극적이고 활동적이라면, 토마시의 〈쿠스코의 성주간〉은 신비롭고 이국적이다. 비주티의 〈안단테와 광시곡〉은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으며, 즐윌리크의 〈협주곡〉은 현대적인 매력이 있다. 샤를의 〈나의 아빠는 원치 않으셔〉와 스티유의 〈복고 풍 모음곡〉은 재밌는 선율과 재즈 리듬이 흥을 돋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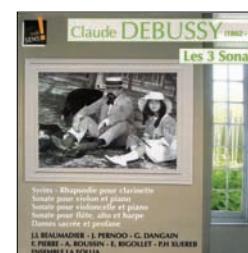


## Sono Luminus(구. D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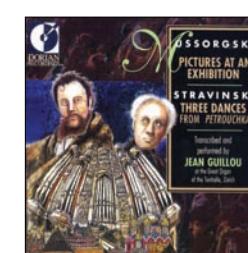
www.sonolumin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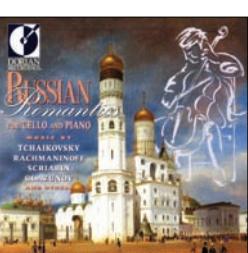
**INDE041 [4CDs for 2.5]**  
**드뷔시:**  
**피아노 전곡**  
**테오도르 파라스키베스코(피아노)**  
**가장 뛰어난 드뷔시 연주자를 위한 ‘드뷔시 상’ 수상자, 파라스키베스코의 연주**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파라스키베스코는 1961년에 조르주 에네스쿠 콩쿨에서 1등을 수상하여 루마니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았으며, 1971년에는 ‘클로드 드뷔시 상’을 수상하여 명실 공히 최고의 드뷔시 연주자로 공인되었다.** 이 음반은 수상 후 얼마 되지 않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녹음한 전곡으로, 내연적이면서 밀도가 높고 풍부하지만 과장하지 않는, 가장 드뷔시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INDE042**  
**드뷔시:**  
**세 개의 기악 소나타, 시링크스, 신성한 춤과 세속의 춤 등**  
**루생(바이올린), 페르노(첼로), 보마디에(플루트), 쉬럽(비올라), 피에르(하프) 등**  
**가장 프랑스적인 연주자들로부터 듣는 드뷔시의 기악 소나타들**  
**드뷔시는 밀년이 되어 여섯 개의 소나타를 계획했지만, 절반인 세 개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것이 〈바이올린 소나타〉와 〈첼로 소나타〉, 그리고 〈플루트와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로, 이 음반에서 가장 프랑스적인 연주자들이 이 세 곡을 연주했다. 또한 ‘드뷔시의 악기’ 플루트를 위한 〈시링크스〉와 하프를 위한 〈신성한 춤과 세속의 춤〉을 수록하여 드뷔시의 인상주의적인 환상을 가득 채웠다.



**DOR90117**  
**무소륵스키:**  
**전시회의 그림,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중 세 개의 춤곡**  
**장 기유(취리히 툰할레 오르간)**  
**이제는 〈전시회의 그림〉을 오르간으로 들어야 할 때**  
**위대한 프랑스 심포닉 오르간 전통의 계승자, 장 기유.** 그는 오르간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곡능력으로 오르간을 교회 음악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음반은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무소륵스키의 〈전시회의 그림〉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중 세 개의 춤곡〉은 본래 피아노 작품이지만, 장 기유는 이 개성적인 작품들을 오르간으로 연주하여 하나의 건반악기와 같은 파이프가 울려내는 관현악적인 웅장함과 색채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펼쳐낸다.



**DOR90188**  
**차이코프스키 등 러시아 낭만 작곡가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첼로소품**  
**안드레스 디아스(첼로), 새뮤얼 샌더스(피아노)**  
**뉴욕타임즈가 “깊음이 있는 연주자”라고 평가한 첼리스트, 안드레스 디아스 안드레스 디아스는 첼레 출신으로, 다섯 살 때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밟아 미국의 중견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즈로부터 “깊음이 있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차이코프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작곡가들의 소품을 수록한 이 음반에서 그의 미를 알 수 있다. 영화의 감동적인 명장면을 모아놓은 것 같은 짙은 감수성과 소품을 뛰어넘는 멀도는 어느 거장 첼리스트의 연주에서도 듣기 힘든 것들이다. 이것은 모든 음과 모든 프레이즈를 소중히 다루는 그의 진지함에서 기인한다. [20bit 고해상도 녹음]



**타펠무지크 (TAFELMUSIK)**

1979년에 창립된 세계 정상의 고음악 단체로 잔느 라몽은 1981년부터 이 단체의 음악감독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그녀는 자신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자체 레이블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Tafelmusik Media이 바로 그것으로 2012년 3월에 첫 음반을 출시했습니다. Tafelmusik Media는 실황 연주와 스튜디오 연주의 녹음과 영상을 제공하며 과거에 Sony와 CBC 레이블로 출시되었던 음원들도 재발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황 영상으로 출시된 몬테베르디와 비발디, 바흐, 헨델 등 여러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수록한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청중과 함께 노래하는 '싱-얼롱 메시아'는 타펠무지크의 아심찬 기획 연주회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획기적인 음악회에 Tafelmusik Media를 통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afelmusik Media의 일부 음원들은 홈페이지의 'Watch & Listen' 섹션에서는 미리 들어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음반과 영상들은 Naxos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TMK1004CD2 [2CDs]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1995 JUNO Award Winner

20년이 지난 지금 더욱 그 진가가 빛나는 타펠무지크의 연주  
1994년에 출시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음반은 1995년에 대규모 양상을 부문에서 '최고 클래식 앨범'으로서 주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어 화제가 되었던 앨범이다. 완벽한 밸런스와 최고의 연주 능력, 그리고 화려하면서도 안정된 표현력으로 수많은 고음악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더욱 그 진가가 빛나고 있다. 특히 타펠무지크 독주자들의 고른 수준은 합주 협주곡 형식의 이 작품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TMK1007CD

비발디: 사계,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신포니아 '거룩한 무덤'  
잔 라몽(바이올린),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1994

Winner of England's "Rosette"

새소리를 새소리답게,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장식으로 더욱 고상하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 등을 수록한 이 음반은 1992년에 출시되었던 녹음으로,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다함께 공감하고 즐기기 위한 음악을 추구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81년부터 타펠무지크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잔 라몽이 협연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새소리를 새소리답게 연주하고 있으며,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장식으로 감상자를 매혹시킨다. 양상불과의 호흡은 최상이다.



TMK1009CD

비발디: 현을 위한 협주곡집  
잔 라몽(바이올린), 앤리 빌스마(첼로),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1992 Critics' Choice

더 이상 최고일 수 없는 빌스마와 라몽의 협연  
1979년에 창립된 세계 정상의 고음악 단체인 타펠무지크는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고 과거 Sony에서 발매된 음반을 재발매했다. 1995년에 출시되었던 이 음반은 노래와 연극, 무용 등이 어우러진 '세미-오페라' 혹은 '영국 오페라'로 분류되는 파셀의 네 작품에서 발췌한 관현악곡집으로, <요정 여왕> 이외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소개하여 큰 이슈가 되었다. 파셀은 영국적인 멜로디에 프랑스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17세기 말 영국 음악계에서 크게 성공했는데, 타펠무지크는 절도 있는 리듬과 과감한 극적 표현으로 이러한 과거의 영화를 성공적으로 되살려놓았다.



TMK1010CD

퍼셀: 요정 여왕, 아서 왕, 디오클레시안, 인도의 여왕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파셀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네 편의 세미-오페라

1979년에 창립된 세계 정상의 고음악 단체인 타펠무지크는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고 과거 Sony에서 발매된 음반을 재발매했다. 1995년에 출시되었던 이 음반은 노래와 연극, 무용 등이 어우러진 '세미-오페라' 혹은 '영국 오페라'로 분류되는 파셀의 네 작품에서 발췌한 관현악곡집으로, <요정 여왕> 이외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소개하여 큰 이슈가 되었다. 파셀은 영국적인 멜로디에 프랑스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17세기 말 영국 음악계에서 크게 성공했는데, 타펠무지크는 절도 있는 리듬과 과감한 극적 표현으로 이러한 과거의 영화를 성공적으로 되살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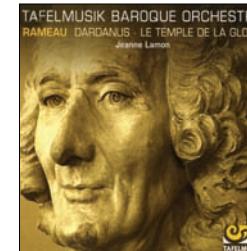


TMK1011CD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두 관악 양상불을 위한 협주곡 1~3번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잔 라몽(음악감독)

JUNO Award Winner

1998년 <최고의 클래식 앨범>으로 주노상을 수상한 전설의 앨범 <수상음악>과 함께 쟁벽을 이루는 <왕궁의 불꽃놀이>는 영국 왕실의 축하 행사를 위해 작곡되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비교될 만한 작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웅장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타펠무지크는 이 곡에 섬세한 뉘앙스를 가미함으로써, 그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두 관악 양상불을 위한 협주곡>은 관현악단에 두 개의 관악 양상불이 추가되어 입도하는 음향을 가진 작품으로, 헨델의 여러 오라토리오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곡에서 <메시아>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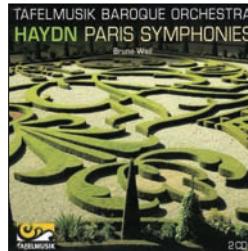


TMK1012CD

라모: 다르다누, 영광의 사원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잔 라몽(음악감독)

JUNO Award Winner

2005년에 주노상을 수상하고 그레미상을 후보에 오른 타펠무지크의 걸작 <서정비극>과 <오페라-발레>는 노래와 합창, 그리고 발레가 등장하는 프랑스 바로크만의 독특한 장르이다. 이 둘 중 <서정비극>은 그리스의 비극을 모델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라모는 당시 대표적인 서정비극과 오페라-발레 작곡가였다. <다르다누>와 <영광의 사원>은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이 음반에는 서곡과 발레곡들을 모았다. 타펠무지크 단원들의 여러 사진에서 그들이 한껏 머금은 미소를 보았다면, 이 음악은 바로 그 미소를 음악으로 듣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쾌하고 즐겁다.



TMK1013CD2

하이든: 교향곡 82~86번 '파리 교향곡'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브루노 바일(지휘)

Cannes Classical Music Award

간 클래식 음악상에 빛나는 타펠무지크의 역작! 간 클래식 음악상에 빛나는 타펠무지크의 역작, 하이든의 <파리 교향곡> 앨범이 재발매되었다. 브루노 바일은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한 정상급 지휘자로서, 특히 18세기 고전 음악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하이든의 82번부터 87번까지 여섯 교향곡은 하이든이 <로 콩세르 드 라 로쥬 올리피크>라는 파리의 대규모 관현악단을 위해 작곡했기 때문에 '파리 교향곡'이라고 불린다. 가벼운 프레이징과 활기로 가득한 리듬에도 귀족적인 고귀함을 잃지 않는 바일과 타펠무지크의 연주는 지금히 매혹적이다.



C5126 [2CDs]

A. 스카를라티: 죄, 회개, 은혜  
스트라델라: 2개의 칸타타

여러 가수들/ 미하엘 슈나이더/ 라 스타지오네



바로크 시대의 밀라노를 대표하는 A. 스카를라티의 희귀한 오라토리오 건반 소나타로 유명한 도메니코 스트라델라의 아버지인 알레산드로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걸쳐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다. 예수의 수난을 노래한 오라토리오 <죄, 회개, 은혜>(1708)는 한 시간 반에 이르는 대규모 작품으로, 오늘날 그의 작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 음반은 더없이 가치가 높다. 죄와 회개, 은혜가 의인화되어 노래하는 독특한 구성도 매우 흥미롭다.



##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 Grand Piano는

2012년 3월에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신생 레이블입니다. 이 레이블의 특징은 지금까지 거의 녹음되지 않은 피아노 작품을 중점적으로 녹음한다는 것입니다. 생상스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의 피아노 음악 전곡과 함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들도 Grand Piano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레퍼토리를 위해 Naxos 레이블을 통해 검증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연주자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Grand Piano는 세계 최초 녹음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1년에 10~15 타이틀 정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 음반들의 표지는 도시의 고독한 풍경을 유화로 표현한 그로 토르센의 작품들로 장식될 것입니다.



GP601  
생상스 피아노 전곡 1집: 18개의 연습곡 전곡  
제프리 벌슨(피아노)

최고의 건반연주자였던 생상스의 모든 것 연습곡 전곡 피아노를 위한 진정한 레이블 Grand Piano가 기념비적인 첫 음반으로 생상스를 택했다. 생상스는 당대 최고의 건반 연주자로서 상당히 많은 피아노곡을 작곡했음에도 오늘날 자주 연주되지 않고 있는데, 드디어 생상스가 추구했던 음악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첫 1집에는 세 개의 연습곡 세트가 수록되어있다. 생상스의 연습곡은 화려한 기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음악의 모든 것에 정통했던 19세기 최고의 음악천재로운 선택이다. 제프리 벌슨은 낙소스에서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로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로, 생상스의 작품에서도 진취적인 신선히 배어있다.



GP602  
라프 피아노곡 1집:  
봄의 전령들, 세 개의 피아노곡, 환상곡  
뜨라 응우옌(피아노)

WORLD PREMIRE RECORDINGS  
잊혀졌던 19세기 스위스의 낭만을 라프의 피아노곡에서 발견하다  
19세기 스위스의 작곡가 요아힘 라프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멘델스존의 인정을 받아 악보를 출판했으며, 슈만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오늘날 열 한 개의 교향곡이 그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작품목록에는 피아노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라프의 피아노곡 1집에 수록된 초기작품(봄의 전령들)은 멘델스존의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19세기 낭만으로 가득하며, <세 개의 피아노곡>은 리스트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환상곡>도 귀중한 선물이다. 칙그히 아름다움이 작품들이 모두 세계최초녹음이라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GP603  
바인베르크 피아노 전곡 1집:  
소나타 1번, 소나타 2번 등  
앨리슨 브루스터 프란체티(피아노)

WORLD PREMIRE RECORDINGS  
프란체티의 환상적인 연주가 당신을 바인베르크 예찬자로 만들 것이다  
2002, 2003,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그레미상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앤리슨 프란체티가 미에치스와피 바인베르크를 연주했다. 그는 폴란드 태생으로 나치를 피해 소련으로 건너갔으며, 쇼스타코비치의 동료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작품을 많이 연주했다. 바인베르크 또한 적지 않은 피아노 작품을 남겼는데, 20~30대에 집중되어있다. 1집에 수록된 세 개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는 짧음이 기득한 진취적인 특징이 강하며, 쇼스타코비치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 매혹적인 환상적인 음향을 들려주는 프란체티의 연주는 당신을 바인베르크 예찬자로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GP606  
프로멜:  
피아노 소나타 1~3번  
타타나 블로메(피아노)

낭만주의 전통에 강렬한 리듬이 더해진 프로멜의 개성적인 피아노 소나타  
게르하르트 프로멜(1906~1984)은 온전히 20세기의 독일에서 살았지만, 근대의 국민주와나 신베르크의 음률음악으로 대표되는 아방가르드 음악을 거부했다. 그는 전통의 범주 안에서 개성을 다듬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 결과 낭만주의 전통에 강렬한 리듬이 더해진 독특한 음악 세계를 이루었다. 특히 <소나타 1번>은 낭만적인 서정이 가득하며 <소나타 2번>은 자유로운 리듬이 인상적이다. 단역장의 <소나타 3번>은 이 두 특징이 하나로 더해져 감각적인 인상주의의 모습을 띤다.



GP607

바인베르크 피아노 전곡 2집:  
파르티타, 소나타나, 소나타 4번  
앨리슨 브루스터 프란체티(피아노)

WORLD PREMIRE RECORDINGS  
대표작 <파르티타>를 비롯한 바인베르크의 완숙한 피아노 작품들  
세 차례의 그레이상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프란체티가 미에치스와피 바인베르크(1919~1996)를 연주했다. 폴란드 태생의 바인베르크는 나치를 피해 소련으로 건너갔으며, 쇼스타코비치와 가까운 동료이기도 했다. 이 음반은 그가 30대 초인 1950~55년에 작곡된 곡들을 수록했다. <파르티타>는 서정적이면서 내밀한 극적 표현을 가진 그의 대표작이며, <소나타나>는 그의 명인기로 응축된 구조 속에 아담한 서정미를 품고 있다. <소나타 4번>은 생동하는 리듬에 감추어진 애수를 전달한다.



GP608  
A. 체레프닌 피아노 전곡 1집:  
피아노 소나타 1, 2번, 열 개의 연습곡 등  
기오르기오 쿠클(피아노)

WORLD PREMIRE RECORDINGS  
개성 넘치는 사운드와 역동적인 리듬으로 활력이 넘치는 러시안 피아니즘  
알렉산드로 체레프닌(1899~1977)은 러시아 혁명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프랑스와 미국에 정착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계에 낭만적인 환상법을 적용했으며, 명확하고 역동적인 리듬을 더해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음악을 만들 어냈다. 이 음반은 초기작인 <소나타 1번>과 여러 소품들과 함께 완숙한 시기의 <소나타 2번>을 수록하여 체레프닌의 피아노 음악의 개요가 되고 있다. 쿠클은 Naxos에서 마르티누 사이클에서 보여주었던 활력이 넘치는 터치로 체레프닌을 연주했다.



GP612  
라프 피아노곡 2집:  
환상 소나타, 주제와 변주, 네 개의 피아노 소품  
뜨라 응우옌(피아노)

WORLD PREMIRE RECORDINGS  
라프의 피아노곡에서 잊혀졌던 19세기 스위스의 낭만을 찾아내다  
스위스 출신의 요아힘 라프는 멘델스존의 인정을 받아 악보를 출판했으며, 슈만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대표작으로 열 한 개의 교향곡이 손꼽히지만, 그의 작품목록에는 피아노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라프의 피아노곡 2집은 원숙한 시기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환상 소나타>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이며, <주제와 변주>는 다양한 변주 속에 라프의 특출한 작곡 능력이 집합되어있다. <네 개의 피아노 소품>은 뚜렷한 캐릭터와 지극히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겸비되어있다.



GP613~14 [2CDs for 1.5 ]

크라머: 피아노 연습곡 전곡  
부조니: 피아노 연습곡 7권  
지안루카 루이지, 지암피파울로 스투아니, 알레산드로 델자반(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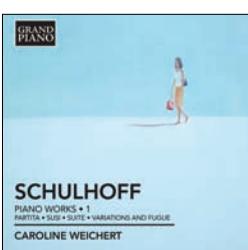
FIRST COMPLETE RECORDING

베토벤으로부터 천사를 받았던 크라머의 연습곡 전곡  
독일 태생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크라머는 클레멘티의 제자였으며, 베토벤으로부터 천사를 받았다. 그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출판하고 <황제>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음반은 총 84곡의 방대한 양의 연습곡 전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 곡은 바흐와 스키를 라티의 영향이 배어있으며, 베토벤과 슈만이 즐겨 연주하기도 했다. 또한 20세기 초의 부조니는 이 곡에 김명을 받아 <피아노 연습곡 7권>을 썼다. 이 음반에서 크라머의 연습곡과 함께 부조니의 이 곡도 들을 수 있다.



GP615~16 [2CDs for 1.5 ]  
네페: 열 두 개의 소나타  
베토벤: 드레슬러 행진곡에 의한 변주곡  
수잔 케이건(피아노)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넘어가는 길을 닦은 베토벤의 스승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네페(1748~1798)는 본래 서 베토벤을 가르쳤던 첫 번째 정식 스승으로서,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넘어가는 길을 닦은 작곡가였다. 그는 25세 때인 1773년에 고전 형식을 갖춘 열 두 개의 소나타를 작곡했다. 18세기 후반 갈랑트 풍의 우아한 품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고뇌가 스며들어있다. 함께 수록되어있는 베토벤의 <드레슬러 행진곡에 의한 변주곡>은 베토벤의 첫 출판 작품으로, 이미 스승을 뛰어넘는 천재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GP604  
슐호프 피아노곡 1집: 파르티타, 수시, 모음곡 3번, 변주곡과 푸가  
카롤리네 바이히트(피아노)

재즈를 수용한 20세기 초 작곡가의 아이콘, 슐호프의 상큼한 피아니즘  
체코 작곡가 에르빈 슐호프는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재즈 등의 대중음악의 특징을 받아들인 작곡가로서, 그의 피아노 작품을 접종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파르티타>는 재즈의 폭스, 탱고, 보스턴, 레그тайム 등 미국으로부터 온 음악들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한 모음곡으로, 슐호프 입문에 최적이다. <수시>는 슐호프 특유의 재즈 스타일의 멜로디로 유명하며 교향곡 4번과 5번에도 차용할 정도로 중요한 곡이다. <원순을 위한 모음곡 3번>과 <변주곡과 푸가>는 고전적인 곡이면서도 재즈의 자유로운 정신이 배어있는 혼상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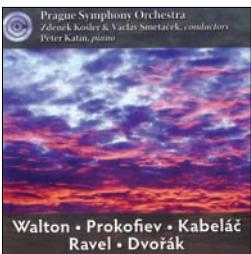
GP605  
생상스 피아노 전곡 2집: 피아노 모음곡, 여섯 개의 푸가 등  
제프리 벌슨(피아노)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던 생상스의 모든 것 모음곡과 푸가  
생상스는 당대 최고의 건반 연주자로서 상당히 많은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이 작품들은 그가 추구했던 음악의 진정한 모습이 아로 새겨져 있다. <피아노 모음곡>은 옛 프랑스의 고전 형식인 춤 모음곡 형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여섯 개의 푸가>는 전혀 다른 독일적 인 형식미를 추구하여 음악의 모든 것에 정통했던 19세기 최고의 음악천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제프리 벌슨은 Naxos에서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로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로, 생상스의 작품에서도 진취적인 신선히 배어있다.



## Orchestral Concerts CD(OCCD)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드리는 레이블입니다.

이 음반사를 설립한 영국인 제프리 테리(Geoffrey Terry)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활동했던 클래식 음악 전문 레코딩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귀는 두 개라는 것, 그리고 관객은 객석에 앉아서 감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반 제작은 무대 위에 수십 개의 마이크를 배치하여 녹음한 후, 음악의 밸런스와 음색을 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객석에서 음향의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곳을 찾아 단 두 개의 마이크를 배치했습니다. 이외의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휘자와 음악가들의 뒷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녹음은 참여했던 모든 음악가들을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이 녹음들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출시를 위해 2008년 11월에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 CD용 음질 개선 기술인 CNSR(Certified Natural Sound Technique Recording)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음악 이외의 잡음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제프리 테리는 친분이 있었던 당대의 뛰어난 연주자들과 동구권 오케스트라의 녹음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당시 뛰어난 음악가들의 연주를 OCCD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Virtual Concert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D2/2008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벨:** 에스파냐 광시곡 등  
**피터 카틴(피아노), 프라하 심포니, 코슬러(지휘), 스메타체크(지휘)**

체코를 대표하는 프라하 심포니의 1967/68년 영국 투어를 재현하다  
체코를 대표하는 프라하 심포니는 1960년대 냉전시대에서도 동구권 최고의 오케스트라였다. 이 음반은 1967년과 1968년에 가졌던 영국 연주회를 수록했다. 월튼의 <스카피오 서곡>에서의 강렬함과 라벨의 <에스파냐 광시곡>에서의 신비함은 프라하 심포니의 뛰어난 표현 능력을 증명하며, 피터 카틴이 낭만 유일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감격적이다. 전설적인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는 객석에 녹음하여 실제 콘서트홀에서 듣는 듯한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했다.



CD4/2009

**베토벤:** 유령, 드보르작: 둘기 등  
**체코 삼중주단**

첼의 장막 뒤에서 노래했던 체코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오늘날 체코는 실내악의 산실로서 최고의 실내악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체코 삼중주단과 같은 훌륭한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72년 런던의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 가진 성공적인 연주회가 이를 증명한다. 고전 작품인 베토벤의 <유령>은 이들의 완벽한 히모니를 들려주며,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둘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듯 사랑스럽고 감동적이다. 전설적인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는 객석에서 녹음하여 실제 콘서트홀에서 듣는 듯한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했다.



CD3/2009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  
**알프레도 캄폴리(바이올린), 피터 카틴(피아노)**

당신은 알프레도 캄폴리의 하우스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바이올리ニ스트 알프레도 캄폴리가 당신을 집으로 초대했다!  
캄풀리와 영국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피터 카틴은 전설적인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테리는 캄풀리의 집에서 이 두 연주자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을 녹음하는 행운을 얻었으며, 그 행운을 당신에게도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두 거장의 향연은 기습 벽찬 순간이 될 것이다. 페어필드 홀에서의 모차르트와 베트벤 소나타의 연주 또한 1960년대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대로 전달한다.



CD5/2009

**브람스:** 교향곡 1번,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코다이: 갈란터 무곡 등  
**헝가리 국립 교향악단, 야노슈 페렌체크(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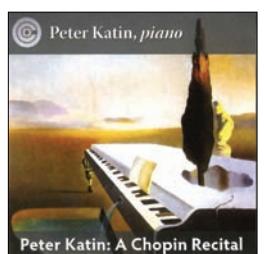
콘서트 전체를 하나의 음반에 오롯이 담아낸 완성된 앨범  
전설적인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는 음반도 하나의 콘서트라는 생각을 갖고 연주회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이 음반이 바로 그 훌륭한 예이다. 헝가리 국립 교향악단이 1966년 런던에서 가졌던 연주회에서 고전적인 베토벤과 브람스의 레퍼토리를 독일인보다 더욱 독일적으로 연주하여, 음악을 넘어 그들의 이상과 정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자국을 대표하는 코다이의 곡과 앵콜곡 베를리오즈의 헝가리 풍 작품 <라코치 행진곡>은 헝가리 국립 심포니만이 들려줄 수 있는 사운드로, 객석의 환호에 동감하게 될 것이다.



CD6/2009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지휘)**

중후함에 절음을 더한 40세 마주어의 창조적인 브루크너 사운드  
쿠르트 마주어가 동독에서 활동했던 젊었을 때의 녹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음반은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 1967년 40세의 마주어는 동베를린을 대표하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런던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그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을 곡이 가진 중후한 무게감에 다이나믹을 살린 젊은 시각을 더하여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만의 브루크너를 창조해냈다.



CD11/2010

**쇼팽:**  
**소나타 3번, 네 개의 폴란드 노래(리스트 편곡) 등**  
**피터 카틴(피아노)**

쇼팽 스페셜리스트와 최고의 레코딩 엔지니어 만남이 탄생시킨 OCCD의 역작  
영국의 피아니스트 피터 카틴은 쇼팽의 권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 쇼팽 리사이틀 음반은 그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5년에 런던 남부 크로이don의 페어필드 홀에서 열린 음악회는 그가 전성기 때의 연주로, 그의 절친한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의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녹음이기도 하다. 카틴의 연주에는 음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소리는 내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의 쇼팽은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이미지가 담겨있다. 쇼팽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다.



CD8/2009

**바흐:**  
**관현악 모음곡 1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등**  
**게르하르트 보세(지휘), 바이올린, 라이프치히 개반트하우스 바흐 오케스트라**

현대 오케스트라의 바흐 연주에 해답을 제시한 라이프치히의 음악가들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 이곳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흐의 음악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라이프치히 개반트하우스 바흐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1966년 런던에서 가졌던 연주회에서 연주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1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당시 현대 관현악단이 어떻게 바흐를 연주할 것인가의 해답이 되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의 갈링트 분위기는 우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든의 <교향곡 6번 '아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혁신적인 레퍼토리이다.



CD12/2011

**브리튼:**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코프斯基: 교향곡 4번**  
**반다 비우코미로스카(바이올린), 바르사바 필하모닉, 비틀드 로비초크(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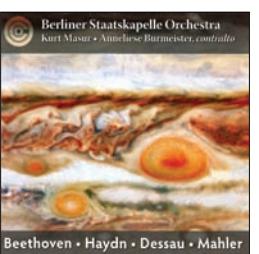
놀랍다! 오늘날에도 듣기 어려운 비우코미로스카의 확신에 찬 연주  
폴란드를 대표하는 바르사바 필하모닉은 1967년 런던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에는 폴란드 최고의 거장 비틀드 로비초크와 바이올리ニ스트 비우코미로스카가 함께했다. 방문지 영국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연주된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멋진 선택이었다. 비우코미로스카의 민첩하고 확신에 가득 찬 연주는 오늘날에도 듣기 어려운 명연이다. 정말 놀랍다! 차이코프斯基의 교향곡은 바르사바 필하모닉의 완성된 레퍼토리로, 각 장면마다 차이코프斯基의 당시 상황처럼 인생의 드라마를 그려낸다.



CD9/2009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자연의 왕국에서, 수크: 동화**  
**사샤 베츠토보프(첼로), 중앙 보헤미아 관현악단**

잊혀진 체코의 거장 사샤 베츠토보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사샤 베츠토보프는 20세기의 위대한 거장 중 한 사람인 앙드레 나바리의 제자로, 체코의 위대한 첼리스트였다. 하지만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서방 세계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오늘날 많이 잊하고 말았다. 전설적인 레코딩 엔지니어 제프리 테리는 베츠토보프의 초창으로 이 연주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물론 녹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실에서 체코의 전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베츠토보프는 매우 섬세한 연주자로서, 모든 프레이즈에서 다양한 표정을 담아 매혹적인 만화경을 그려낸다.



CD13/2011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하이든: 교향곡 88번 등**  
**아넬리스 부르마이스터(메조소프라노),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쿠르트 마주어(지휘)**

지친 현대인의 영혼에 젖어드는 부르마이스터의 풍부하고 따스한 음성  
40세의 마주어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를 이끌고 영국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극적 진행을 재미있게 살려내는 그의 섬세한 해석은 이 연주에서도 발휘된다. 베토벤의 <로이노레 3번>은 그 자체가 완성된 드라마이며, 하이든의 <교향곡 88번>은 악기의 음색이 살아있는 녹음으로 마주어의 지휘를 듣보이게 한다. 말려는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부르는 부르마이스터의 풍부한 음성은 지친 현대인의 영혼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옛 동독의 거장 데사우의 곡에서 동독의 음악세계도 반드시 경험해보라!



DSO Live

www.dallassymphony.com

## DSO LIVE 는

최근 10년 사이에 그라모폰 상, 클래시컬 브릿 상 등 여러 영예를 얻으면서 급성하면서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는 댤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2년 4월 1일에 DSO Live라는 레이블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DSO Live는 댤러스 심포니와 세계적인 지휘자 이자 댤러스 심포니의 음악감독인 압 판 즈벤던의 실황 연주를 음반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던 지난 시즌의 베토벤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과 관현악곡 연주들이 이미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음반을 발매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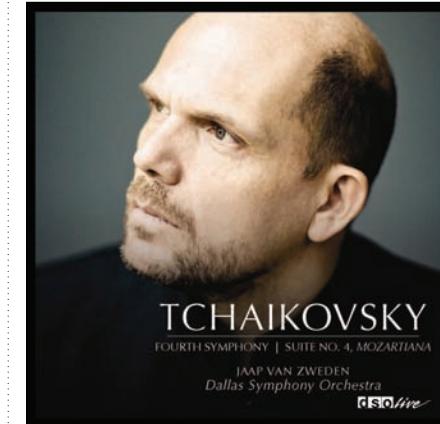
DSOLIVE 001

## 베토벤:

교향곡 5번, 교향곡 7번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압 판 즈벤던(지휘)

아드레날린을 연료로 달리는 전차와 같은 거대한 에너지의 질주  
1900년에 탄생한 댤러스 심포니는 최근 10년 사이에 그라모폰 상, 클래시컬 브릿 상 등 여러 영예를 얻으면서 급성하고 있다. 현재 음악감독인 압 판 즈벤던은 바로 그 주역이다. 판 즈벤던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마치 새로운 작품이 발견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연주는 아드레날린을 연료로 달리는 전차와 같으며, 빠른 속도에 거대한 에너지에 감상자는 빨려들어가고 만다. <교향곡 7번>은 극도의 흥분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판 즈벤던의 완벽한 통제 하에서 진행된다.



DSOLIVE 002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모음곡 4번 '모차르티아나'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압 판 즈벤던(지휘)

<판 즈벤던과 댤러스 심포니의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한 연주<  
'댈러스 모닝 뉴스'의 스콧 캔트렐 기자는 압 판 즈벤던과 댤러스 심포니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듣고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하다>라고 평했다. 판 즈벤던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돌진하는 추진력으로 흥분 상태로 몰아가며, 결국 음악적 희열로 이끈다. <모음곡 4번 '모차르티아나'>는 잘 연주되지 않는 곡이지만, 판 즈벤던은 마치 발레곡과 같은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부여했다. 3악장 '기도'는 모차르트의 <아베 베를 코르푸스>의 편곡으로서 색다른 흥미를 끈다.



DSOLIVE 003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이탈리아 광시곡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압 판 즈벤던(지휘)

굉장히 멋진 연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연주! 최고 수준의 연주!  
'댈러스 모닝 뉴스'의 스콧 캔트렐 기자는 판 즈벤던과 댤러스 심포니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듣고 <굉장히 멋진 연주였다. 그 연주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극도로 복잡한 구조가 명확하게 들렸다.>라고 평했다. <라 세나 무시칼레>의 폴 로빈슨 기자는 이들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광시곡>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탈리아 광시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고 멋진 연주였다. 최고 수준의 연주였다>라고 평했다. 이 두 기자가 들었던 그 연주가 바로 이 음반에 있다.



www.opera-australia.org.au

## 푸치니: 라 보엠

박지민(로돌포) / 타케사 메세 키자트(미미) / 호세 카르보(마르첼로) / 타린 피비(무제타) / 세인 로렌세프(쇼나 르) / 데이비드 파킨(클리네) 외 / 사오-치아 루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한국 성악계가 배출한 새로운 스타, 테너 박지민이 노래하는 '라 보엠'

2011년 7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 펼쳐졌던 '라 보엠' 영상물이 특별한 이유는 남자 주인공인 로돌포를 맡은 가수가 바로 우리나라 출신의 새로운 기대주 박지민이라는 점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얄 오페라하우스의 전속 아티스트로 발탁된 이후, 세계의 유수 오페라 무대를 누비며 활약 중인 이 자랑스러운 젊은 성악가의 놀라운 기량을 본 영상물을 통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랑스런 미미를 노래한 미국 출신의 소프라노 유망주 타케사 메세-키자트 역시 본 프로덕션을 통해 스타덤에 올라섰다. 예술과 철학에 대한 저마다의 열정으로 기난과 추위를 극복하는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원작의 분위기를 충실히 반영한 상태에서 1930년대 초반 베를린의 리버럴한 분위기와 퇴폐적인 카바레 스타일을 적절히 접목해놓은 게일 에드워드의 감각적인 연출도 흥미진진하다.



EPC OPOZ56021

## 들리브: 라크메

엠마 매튜스(라크메) / 스티븐 베넷(닐라칸타) / 알도 디 토로(제랄드) / 도미니카 매튜스(말리카) 외 / 엠마누엘 조엘-호낙 /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 '꽃의 이중창', '종의 노래' 등의 명곡들이 담긴 드리브의 대표 오페라

레오 드리브는 <코페리아>, <실비아> 등의 로맨틱 발레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작곡가지만, 오페라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기작 하나를 후대에 남겼다. 그가 만년에 완성한 <라크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오페라의 공간적 배경은 인도다. 인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반영한 이 작품은 유럽의 군인과 현지의 아름다운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푸치니의 <나비부인>, 마이어베어의 <아프리카의 여인>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고금의 여성 이중창을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인 '꽃의 이중창', 클로라투라 소프라노 아리아의 대표곡 중 하나인 '종의 노래'가 바로 이 오페라에 수록된 대표곡들이며, 2막에 등장하는 화려한 발레음악 역시 콘서트 레프트와로 자주 공연되는 명곡이다. 오페라의 지명도에 비해 영상물로 만날 기회가 드문 작품인데, 2011년 9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본 영상물이 그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것이다.



EPC OPOZ56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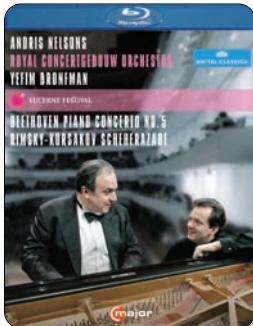
## 모차르트: 돈 조반니

테디 나후 로즈(돈 조반니) / 코널 코드(레포렐로) / 레이철 더킨(돈나 안나) / 재클린 다크(돈나 엘비라) / 타린 피비(체를리나) / 헨리 추(돈 오타비오) 외 / 마크 위글워스 /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색한 상징과도 같은 전설적인 캐릭터인 돈 환의 이야기는 17세기 중반부터 유럽 일대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몰리에르의 희곡 '돈 주앙-석상과의 만찬', 바이런의 서사시 '돈 주앙' 등도 이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들이다. 돈 환은 음악에서도 불세출의 걸작의 소재가 되었다. 다 푼테의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완성한 모차르트의 이탈리아어 오페라 <돈 조반니>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오페라를 통틀어서도 지금까지 가장 자주 무대에 오르는 인기작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0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최신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연출가 고란 예르베펠트는 파격이나 현대적인 재해석을 배제한 채, 고전적인 의상과 단정한 무대세트를 통해 이 작품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재현하였다. 타이틀 롤을 맡은 바리톤 테디 나후 로즈는 성악과 연기 양쪽 모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영국 지휘자 마크 위글워스의 생동감 넘치는 지휘도 훌륭하다.



[www.cmajor-entertainment.com](http://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10204

###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에필 브론프만(pf) / 안드리스 넬슨스/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 젊은 지휘자와 관록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악단의 멋진 양상을

라트바이 출신의 안드리스 넬슨스는 동향의 선배인 마리스 앤손스와 스스로 그의 멘토를 자임하는 다니엘 바렌 보임 등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오페라와 콘서트 양 분야 모두에서 걸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젊은(1978년생) 지휘자다. 2011년 여름 그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를 이끌고 루체른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는데, 그 공연실횡들이 발 빠르게 DVD와 Blu-ray로 출시되었다. 본 영상물에는 2011년 9월 5일의 콘서트 전체가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베토벤의 '아테네의 폐허' 서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정상급 피아니스트 에필 브론프만이 독주를 맡은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로 이어진다. 브론프만은 자신의 당당한 파워와 뛰어난 초절기교를 맘껏 발휘된 이후, 소령의 에튀드 Op.10-8로 객석의 환호에 화답하였다. 연주회의 대미는 콘체르트헤보우의 고품격 사운드를 맛보기에 최적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가 장식하였고, 양코르로 연주된 드보르작의 슬라브춤곡 3번까지 빼놓지 않고 수록되었다.



C Major 711004

###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말라: 탄식의 노래/ 베르크: 루루 모음곡, 포도주)

안나 프로하스카(sop)/ 도로테아 뢰슈만(sop)/ 안나 라르손(alt)/ 요한 보타(te)/ 빈 슈타츠오퍼 합창단/ 피에르 불레즈/ 빈 필하모니커

#### 불레즈가 지휘한 청년기 말려의 대편성 칸타타 '탄식의 노래'

2011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성대한 시작을 알렸던 개막 콘서트가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2008년에 이어서 피에르 불레즈가 다시 이 개막 콘서트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들인 베르크와 말려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베르크의 걸작 오페라 '루루'에서 발췌한 다섯 곡들로 구성된 연주회용 모음곡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가 독창을 맡았고, 샤를로 보들레르의 의인체 시에 곡을 붙인 관현악반주의 가곡 '포도주'(Der Wein)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도로테아 뢰슈만의 신선한 변신을 경험할 수 있다. 콘서트의 후반을 장식하는 작품은 청년 사절 말려가 완성했던 대편성의 칸타타 '탄식의 노래'(Das klangen Lied)다. 이 작품은 1880년 완성 당시에는 3개의 파트(숲의 전설, 음유시인, 결혼식)로 구성되어있었는데, 1889년의 개정작업을 통해 '숲의 전설'이 생략되고 나머지 두 파트만으로 작품이 재편되었다. 본 연주회에서는 개정버전을 연주하였다.



C Major 710004

### 소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바그너: 리엔치 서곡/ R. 슈트라우스: 일곱 베일의 춤

안드리스 넬슨스/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 라트바이의 기대주 안드리스 넬슨스와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만남

1978년 라트바이의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난 안드리스 넬슨스는 사이먼 래틀과 사카리 오라모의 뒤를 이어서 현재 바밍엄 싱포니의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인 젊은 지휘자다. 2009년에는 '투란도트'로 메트로, 2010년에는 '로엔그린'으로 바이로이트에 차례로 데뷔하였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일련의 젊은 지휘자 그룹 중에서도 오페라와 콘서트 양쪽 모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기대주이다. 본 영상들은 2011년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공연실횡을 수록한 것으로, 동향의 선배인 마리스 앤손스가 이끌고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것이다. 소스타코비치의 이른바 전쟁 교향곡 3부작 중에서 가운데 작품인 교향곡 8번이 메인 프로그램을 장식하였으며,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과 R. 슈트라우스의 관능적인 작품인 오페라 〈살로메〉 중의 '일곱 베일의 춤'을 함께 연주하였다. 젊은 지휘자의 패기와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유려한 양상을 만들어낸 멋진 시너지를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를 통해 만나보시라.



C Major 711204

### 베르디: 팔스타프

암브로조 마에스트리(팔스타프)/ 바르바라 프리톨리(알리체)/ 마시모 카발레이(포드)/ 예바 리바우(나네타)/ 하비에르 카바레나(멘톤)/ 이본느 나예프(퀴클리) 외/ 다니엘레 가티/ 취리히 오페라극장

#### 우리 시대의 대표 팔스타프, 암브로조 마에스트리의 최신 공연실황

세익스피어의 희극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을 기반으로 완성한 〈팔스타프〉는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학극 오페라다. 늙은 뚱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좌충우돌과 그를 끌어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이 유쾌한 오페라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열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본 영상은 2011년 봄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의 무대에 올랐던 명연출가 스벤-에리 베헤톨프의 프로덕션을 옮긴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팔스타프인 암브로조 마에스트리와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알리체 포드의 우아한 매력을 고시했었던 바르바라 프리톨리를 주축으로 한 실력파 가수들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다니엘레 가티의 지휘 아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화려한 색채의 의상과 무대미술, 전통적이고도 사설적인 연출, 일곱 가수들의 뛰어난 양상을, 친절한 한글자막이 조화를 이룬 본 영상을 통해 베르디가 남긴 마지막 걸작의 매력을 유감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C Major 710604

### 브람스: 교향곡 1번/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닐센: 교향곡 3번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네 편의 위대한 교향곡 걸작들

1925년 설립된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통틀어 서도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룬 일금 오케스트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내한 공연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은 지난 2009년 여름, 베 캐트 재단과 손을 잡고 전통적인 교향곡 레퍼토리와의 대중화를 위해서 심포니 섬이라는 굵직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영상들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연주되었던 네 편의 교향곡들을 C Major가 자랑하는 뛰어난 화질의 영상물로 출시한 것이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그리고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보컬리제를 담은 독특한 작품인 닐센의 교향곡 3번을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다이내믹한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7년 이 악단을 크게 성장시켰던 지휘자 토마스 다우스고르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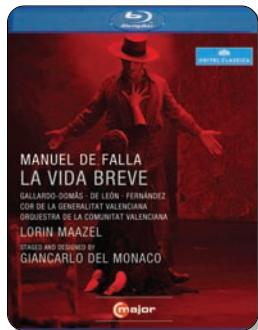
C Major 710404

### 글루: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아나타 라흐벨리슬리빌리(오르페오)/ 마이테 알베를라(에우리디체)/ 옥실리아도라 톨레다노(아모레)/ 고르دون 니콜리치/ 오르케스타 반다르트

#### 환상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글루 최고의 오페라 걸작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오의 이야기는 오페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두 걸작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음악애호가들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명실상부한 최초의 오페라 걸작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와 볼거리에 치중한 익습을 깨고 오페라 본연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던 글루의 오페라 개혁의 결과물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가 그것이다. 본 영상들은 2011년 7월 카스텔 데 페랄디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발렌시아의 '킹' 사이클로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스페인의 행위예술 공연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종합예술지향적인 무대가 다시금 큰 화제를 낳았던 프로덕션을 담고 있다. 힙창단은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도 의상과 분장을 갖춘 상태로 무대 위에서 드라마의 전개에 한 뜻을 담당하는 점이 이채로우며, 미니멀한 무대배경 위로 각종 CG 효과를 동반한 다채로운 영상을 효과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가능케 했다.



C Major 710804

### 파야: 허무한 인생

크리스티나 가야르도-도마스(살루드)/ 호르헤 데 레온(파코)/ 마리아 루이사 코르바코(라 아부엘라)/ 펠리페 보우(엘 티오 사르바오르) 외/ 로린 마젤/ 오케스트라 데 라 코무니타트 발렌시아나

#### 스페인의 향토색으로 가득 채워진 파야의 매력적인 오페라 걸작

오페라 <허무한 인생>(La Vida Breve)은 근대 스페인 민족주의 대표 작곡가인 파야가 완성한 최초의 본격적인 오페라이다. 그는 이 작품 속에 민속음악적인 요소와 더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개성 또한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오페라의 공간적 배경인 그라나다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했던 땅이며, 집시들의 보금자리였다. 여주인공인 살루드 역시 집시의 딸이다. 그는 스페인 청년 파코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서로 다른 혈통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 그라나다의 독특한 향토색이 느껴지는 음악으로 기득한 이 오페라 중에서 특히 2막 첫 머리에 등장하는 스페인 춤곡은 바이올린을 위한 편곡으로도 널리 연주되는 인기곡이다. 본 영상들은 2010년 4월 발렌시아 팔라우 소피아에서 공연되었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거장 로린 마젤이 지휘를 맡았고 칠레 출신의 명 소프라노 가야르도-도마스가 살루드를 열연하였다. 명 테너 마리오 멀모나코의 아들로서 이제 명연출가의 반열에 오른 잔카를로 릴 모나코의 사실주의적인 연출도 큰 볼거리를 제공한다.

**ARTHHAUS MUSIK** [www.arthaus-musik.com](http://www.arthaus-musik.com)



Arthaus 108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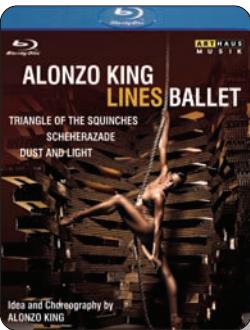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2012년 신년음악회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과 이탈리아 오페라 합창과 아리아들

제시카 프라트(sop)/ 벌터 프라카로(te)/ 알렉스 에스포시토(bass)/ 디에고 마테우스/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엘 시스테마'의 또 다른 열매 디에고 마테우스의 2012 라 페니체 신년음악회

수상도시 베네치아에는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가 있다. 1792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잣더미가 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다시 부활하였다. 두 번째 재개관 이후 이 극장에서는 매년 초하루마다 화려한 신년음악회가 펼쳐진다. 본 콘서트에서는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여러 오페라 작곡가들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2012년의 신년음악회는 이 극장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베네수엘라의 젊은(1984년생) 지휘자 디에고 마테우스가 지휘봉을 잡았다. 두다발에 이어 '엘 시스테마'를 통한 또 다른 쾌거로 화제를 모은 이 지휘자는 콘서트의 전반부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전곡으로 채우는 모험적인 선곡으로 화제를 모았고, 후반부는 콘서트의 전통 그대로 베르디, 도니제티, 푸치니 등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으로 채웠다. 영국의 신성 제시카 프라트와 이탈리아의 일급 남성가수들인 벌터 프라카로와 알렉스 에스포시토가 콘서트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Arthaus 108043

### 알론조 킹의 세 가지 모던 발레

#### Triangle of the Squinches, Scheherazade, Dust & Light

#####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 알론조 킹의 대표작 3편

알론조 킹은 오늘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 발레 안무가의 한 사람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란 그는 1982년 Lines 발레단을 설립한 이후 200편에 가까운 안무 작품을 만들었다. 킹은 고전발레의 테크닉과 형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새로운 움직임의 안무를 만들어 낸다. 그는 저명한 작곡가와 뮤지션, 비주얼 아티스트 등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종합예술로의 현대무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해오고 있다. 본 영상물에는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세 편의 모던 발레를 담고 있다. 다양한 우주의 음향과 티베트 승려들의 노래 등을 접목한 미키 하트의 전위적인 음악을 바탕으로 한 2011년 최신작 'Triangle of the Squinches', 바로크 작곡가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서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육체의 매력을 담아낸 2009년작 'Dust & Light', 그리고 린스카-코르사코프의 명곡을 인도의 세계적인 타악기연주자인 자카르 후사인이 재해석한 음악을 기반으로 완성한 'Scheherazade'는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되었던 그의 대표작이다.



Arthaus 108051

### 글라주노프: 발레 <라이몬다>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발레단

##### 프티파가 안무한 마지막 로맨틱 발레의 걸작을 최신 실황으로 만나다

<라이몬다>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를 맡았던 마지막 걸작이다.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프티파는 그의 제자였던 글라주노프에게 음악을 위촉했고, 글라주노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작품을 자신을 대표하는 걸작 발레음악으로 완성하였다.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음악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발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러시아 밖에서 이 작품의 인기는 그리 높지 못했지만, 누리에프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은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에 버금 가는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들은 2011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세르게이 비하레프가 리비아별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2002년 바가노바 발레 콩쿠르에서 입상 이후 키로프 발레단의 히로인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올레시아 노비코바가 타이틀 룰을 우아하게 연기하였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인기스타인 프리데만 포겔이 상대역인 장 드 브린느를 맡았다.



Arthaus 108054

###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네델란드 국립 발레단

##### 최고의 화질로 만나는 네델란드 버전의 독특한 호두까기 인형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다. 본 영상들은 2011년 암스테르담 뮤지 시어터에서 있었던 네델란드 국립 발레단의 최신 공연실황을 담았다.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 이후 유수의 발레단들이 저마다의 개성적인 프로덕션을 내놓고 있는데, 네델란드 국립 발레단의 이 공연 역시 1996년 처음 공개된 투르 판 사이과 웨인 이글링의 안무를 토대로 하였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 겨울 명절인 성 니콜라스 축일의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하는 이 프로덕션은 클라라의 남동생인 프리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생쥐 왕이 1막이 아닌 2막에 죽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달라졌다. 볼쇼이 발레단과 빈 국립 발레단을 거친 뒤 2007년부터 네델란드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약 중인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앙상 치간코바가 클라라를 열연하였다.



OpusArte [www.opusarte.com](http://www.opusar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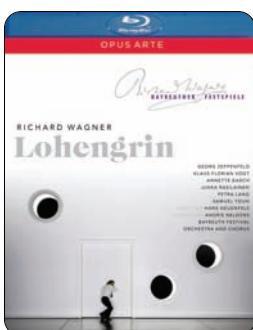


OpusArte OABD 7101D

### R.슈트라우스: 알프스교향곡, <아라벨라> 마지막 장면, 가곡 르네 플레밍(sop)/ 크리스티안 틸레만/ 빈 필하모니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R.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들의 특별한 만남.

2011년 8월 질주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본 영상들은 R.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아끼는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작곡가의 관현악걸작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스케일과 변화무쌍한 악곡전개를 자랑하는 '알프스 교향곡'을 틸레만의 당당한 지휘와 빈 필하모니커의 빼어난 양상들로 만나는 즐거움이 각별하며, OpusArte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면과 사운드가 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이다. 르네 플레밍의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만나는 가곡들 또한 대단히 매혹적이다. 오리지널 관현악반주 가곡인 '아풀로 무녀의 노래' 외에도, 그의 대표 가곡들인 '황혼의 꿈', '해방' (Befreit), '겨울사랑'을 작곡가 자신 또는 로베르트 헤거에 의한 관현악반주로 연주하였다.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서정성을 자랑하는 작품인 <아라벨라> 중의 유명한 모노로그 '나의 엘리마!' 까지 함께 수록됨으로써, 작곡가의 관현악, 가곡, 오페라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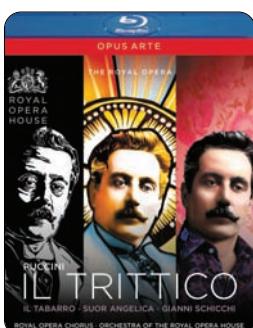
OpusArte OABD 7103D

### 바그너: 로엔그린

클라우스 프로리안 포그트(로엔그린)/ 아네테 디슈(엘자)/ 페트라 랭(오르투르트)/ 유카 라실라이넨  
(텔마문트)/ 게오르크 체펜펠트(하인리히)/ 사무엘 윤(전령) 외/ 안드리스 넬슨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 바그네리언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담은 최신 영상물

2011년 바이로이트를 열광케 만들었던 화제의 프로덕션이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원로 연출가 한스 노이엔펠즈의 이 프로덕션은 2010년 처음 바이로이트에 공개되었을 당시, 취로 분장한 합창단과 텔 빠진 기괴한 백조, 그리고 충격 그 자체인 마지막 피날레 장면으로 많은 바그네리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었다. 이듬해에 재현된 무대를 담은 본 영상은 보다 음악적으로 원숙해진 가수진의 열창이 더해짐으로써, 이 시대 최고 수준의 바그너 오페라 프로덕션을 가정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로엔그린 클라우스 프로리안 포그트가 들려주는 서정성과 영웅성을 겸비한 가창, 엘자의 불안한 심리를 리얼하게 표현한 아네테 디슈의 열연에 더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베이스 사무엘 윤(윤태현)이 왕의 전령 역할을 당당하게 연기하였다. OpusArte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첨단 무인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드레스리하설이 아닌 공연실황 그 자체를 영상물로 출시해오고 있는데, 전곡이 마무리된 이후 축제극장을 가득 올리는 바그네리언들의 우렁찬 포효만으로도 격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OpusArte OABD 7102D

### 푸치니: 3부작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 스키키)

루치오 갈로(미켈레, 스키키)/ 에바 마리아 베스트브로엑(조르제타)/ 에르모넬라 하호(안젤리카)/ 에카테리나 시우리나(라우레타)/ 프란체스코 데무로(리누초)/ 안토니오 파파노/ 로알 오페라 코번트가든

#### 로알 오페라 코번트 가든의 역량이 충동원된 <일 트리티코>의 결정판

3편의 단막 오페리를 묶은 <Il Trittico>는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원성도에 비해 연주의 빈도가 떨어지는 작품에 속한다. 단테의 '신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푸치니는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지옥(외투), 연옥(수녀 안젤리카), 천국(잔니 스키키)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3부작이다. 여러 외적인 제한 때문에 세 작품을 따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의 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 무대에서 3편을 같이 공연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로알 오페라의 음악감독인 안토니오 파파노는 이 3부작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림으로써, 2011/12 시즌을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공연실황이 본 영상물에 수록되었다. 연출가 리처드 존스는 원전히 상이한 세 작품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세 명의 무대 미술가들에게 한 작품씩을 할당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덕션은 각 작품의 성격을 잘 반영한 미장센과 세 작품을 일관하는 동일한 기조의 연출이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파파노의 노련한 지휘와 루치오 갈로,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 에카테리나 시우리나, 안나 라르손, 에르모넬라 하호를 비롯한 성악진의 가창과 연기 또한 발군이다.



[www.accentus.com](http://www.accentus.com)



Accentus 10243

### 브루크너: 교향곡 5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 모습을 최고의 화질로 담은 영상을

자신을 위해 결성된 스페셜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과 더불어 만년의 예술훈을 완전히 불사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품 레이블인 Accentus의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선보인다. 2011년 8월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브루크너가 완성한 가장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을 연주한 것이다. 아바도가 1990년대에 빈 필과 더불어 선보였던 몇 편의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들은 자신의 말려 레코딩에 비해 저평가되었지만, 최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던 교향곡 7번(2005년)과 이번에 등장한 교향곡 5번의 실황연주들은 과거의 연주에 비해 더 한층 따뜻한 색조와 유려한 흐름으로 이 작품가 특유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현재 독일 회단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화가인 미카엘 트리겔의 미스터리한 작품 'Anthropishes Prinzip'을 사용한 커비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격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



[www.euroarts.com](http://www.euroarts.com)



EuroArts 2059314

### 12 첼리스트의 40주년 기념 콘서트와 이들에 관한 특별한 다큐멘터리

####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창립 40주년 기념 콘서트

피아졸라: 천사의 모음곡, 비틀즈: 예스터데이, 피아프: 장밋빛 인생, 포레: 파반느 외  
아네테 디슈(sop)/ 틸 브뢰너(trp)/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베를린 필의 철로 단원들이 함께하는 독특한 챔버 앙상블인 '12 첼리스트'는 1972년 질주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처음 결성된 이후 40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클래식 명곡들의 철로 양상을 편곡과 자신들만을 위해 위촉된 다양한 현대작품들은 물론, 피아졸리의 행고나 비틀즈의 히트송과 같은 대중적인 영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결성40주년을 기념하는 본 영상물과 함께 서울과 대구를 포함하는 월드 투어를 시작하였다. 본 영상물에는 2012년 5월 9일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40주년 기념 콘서트와 이 단체의 과거와 현재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인 'The 12 Cellists'가 함께 수록되었다. 포레의 '파반느', 라벨의 '보칼리스-에튀드', 비틀즈의 'Yesterday',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듀크 엘링턴의 'Caravan', 피아졸라의 '천사 3부작', 미셀 르그랑과 엔리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 등등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이 수록되었으며, 이를 중 상당수는 나한공연에서도 연주될 예정이다.



EuroArts 2058874

### 포레: 레퀴엠, 파반느, 엘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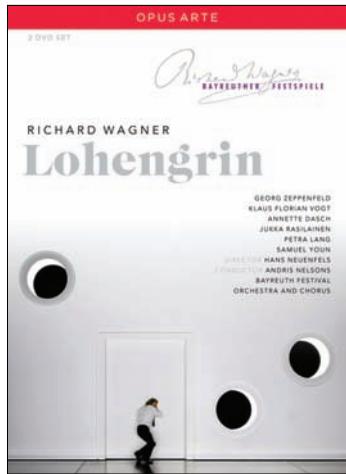
#### 레퀴엠을 비롯한 대표 걸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포레의 레퀴엠은 막대한 관현악 편성으로 심판의 공포를 강조했던 베리오즈나 베르디의 그것과 달리, 망자의 영혼에 대한 진잔한 위로라는 레퀴엠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던 작품이다. 포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미와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채워진 이 걸작을 뛰어난 화질의 최신 영상물로 감상하는 묘미가 각별하다. 파보 예르비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단아한 연주와 더불어 세계적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중후한 가창도 이 걸작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다양한 편곡들을 통해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한 작품인 파반느의 합창버전, 단아한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또 다른 합창걸작인 '장 라신 찬가', 시편 137에 곡을 불인 '바빌론 강가에서'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여기에 젤로의 중저음을 통해 표현되는 애상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작곡가의 또 다른 인기작인 '엘레지'가 파리 오케스트라의 철로수석인 에릭 피카르드의 독주로 함께 수록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영상물이다.

opus ARTE

##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71D  
[ 2DVDs ]

## 바그너: 로엔그린

클라우스 프로리안 포그트(로엔그린)/ 아네테 다슈(엘자)/ 페트라 랑(오르트루트)/ 유카 라실라이넨(텔라문트)/ 게오르크 체펜펠트(하인리히)/ 사무엘 윤(전령) 외/ 안드리스 넬슨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 바그네리언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담은 최신 영상을

2011년 바이로이트를 열광케 만들었던 화제의 프로덕션이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원로 연출가 한스 노이엔펠즈의 이 프로덕션은 2010년 처음 바이로이트에 공개되었을 당시, 쥐로 분장한 합창단과 털 빠진 기괴한 백조, 그리고 충격 그 자체인 마지막 피날레 장면으로 많은 바그네리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었다. 이듬해에 재현된 무대를 담은 본 영상은 보다 음악적으로 원숙해진 가수진의 열창이 더해짐으로써, 이 시대 최고 수준의 바그너 오페라 프로덕션을 가정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로엔그린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가 들려주는 서정성과 영웅성을 겸비한 가창, 엘자의 불안한 심리를 리얼하게 표현한 아네테 다쉬의 열연에 더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베이스 사무엘 윤(윤태현)이 왕의 전령 역할을 당당하게 연기하였다. OpusArte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첨단 무인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드레스리허설이 아닌 공연실황 그 자체를 영상물로 출시해오고 있는데, 전곡이 마무리된 이후 축제극장을 가득 울리는 바그네리언들의 우렁찬 포효만으로도 격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 [ 보조자료 ]

○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왕 하인리히는 군대모집을 위해 브리반트를 찾는다. 이곳의 설정 텔라문트는 죽은 영주의 딸 엘자를 동생 고트프리트의 친족 살해범으로 왕에게 고발한다. 때 맞춰 백조가 이끄는 배를 타고 온 정체불명의 기사가 텔라문트를 내쫓고 엘자의 마음을 차지한다. 기사 역시 엘자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다. 텔라문트의 아내 오르트루트는 엘자에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낳게 만들고, 결국 첫날밤 엘자는 금기의 질문을 하고 만다. 기사는 자신이 성배의 수호자 로엔그린임을 고백하고, 오르트루트가 마법으로 백조로 변신시켰던 고트프리트를 제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뒤 엘자에게 작별을 고한다. 상심한 엘자가 숨을 거두면서 막이 내린다.

○ 현재 영국의 음악계는 30대 지휘자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런던 필), 안드리스 넬슨스(버밍엄 심포니), 바실리 페트렌코(로얄 리버풀 필), 키릴 카라비초(본머스 심포니), 에드워드 가드너(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인물로는 라트비아 출신의 안드리스 넬슨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동향의 선배인 마리스 앤손스와 스스로 그의 멘토를 자처한 다니엘 바렌보임 등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오페라와 콘서트 양 분야 모두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0년에 '로엔그린'(본 영상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한스 노이엔펠즈의 프로덕션)을 통해서 바이로이트에 데뷔하였다.



Opus Arte DVD OA 1075D

## 로시니: 비단 사다리

다니엘레 잔파르디노(다르몬트)/ 올가 페레차트코(줄리아)/ 안나 말라바시(루칠라)/ 호제 마누엘 자파타(도르빌)/ 카를로 레포레(브란삭) 외/ 클라우디오 시모네/ 오케스트라 하이든 디 볼차노 에 트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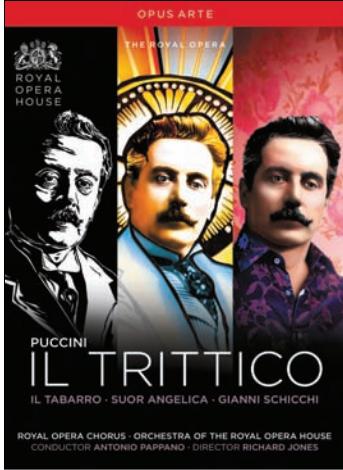
## 재색을 겸비한 러시아 디바 올가 페레차트코의 매력을 가득 담은 코믹오페라

로시니는 자신의 최고 인기작인 〈세비야의 이발사〉를 불과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완성했을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다. 그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매력적인 작품들을 다수 완성했었다. 파르사(farsa)라고 불리는 단막의 코믹오페라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연주되는 것이 20세 때의 작품인 〈비단 사다리〉다. 비밀리에 도르빌과 결혼한 줄리아는 후견인으로부터 블랑자크와의 결혼을 중용받는다. 하지만 남편을 놔두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일. 이로 인해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좌충우돌로 펼쳐진다. 오페라의 제목처럼 도르빌이 줄리아의 방을 몰래 오가기 위해서 비단사다리를 이용한다. 2009년 페사로 로시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을 담은 본 영상들은 러시아 출신의 매력적인 디바 올가 페레차트코의 매력을 유감없이 경험하게 한다. 아파트 평면도를 응용한 파울로 펀틴의 세련된 무대미술과 무대 상부의 큰 거울을 통해서 배우들의 동선을 다각도에서 엿보게 만든 다미아노 미키엘레토의 기발한 연출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 [ 보조자료 ]

○ 〈비단사다리〉는 서곡의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서곡이 아닌 오페라 본편의 경우도 꽤나 매력적인 단막의 코믹 오페라다. 로시니는 20세 되던 해인 1812년 5월에 베네치아에서 이 작품을 초연하였다. 오페라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줄리아는 도르빌이라는 청년과 비밀리에 결혼했다. 도르빌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비단사다리를 타고 줄리아의 방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줄리아의 후견인인 도르몽은 그녀를 부자인 블랑자크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남편을 놔두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일. 여기에 줄리아의 시촌인 루칠라가 블랑자크에게 반하고, 줄리아를 짹사랑하는 도르몽의 하인 제르마노가 끼어들면서 갖가지 에피소드들이 신나게 펼쳐진다.

○ 본 영상에서 여주인공 줄리아를 노래한 올가 페레차트코는 훌륭한 노래실력과 매력적인 외모 양쪽 모두로 유럽 오페라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대주다. 1980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마린스키 극장의 어린이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악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2007년 플라시도 도밍고 주최의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함부르크 슈타츠오페, 빈 슈타츠오페, 베네치아 라 페니체, 질츠부르크 페스티벌, 액상프로방스 페스티벌, 페사로 로시니 페스티벌 등의 정상급 무대들을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해왔다. 그녀는 현재 Sony의 전속 아티스트이다.



Opus Arte DVD OA 1070D  
[ 3 DVD-5 SINGLE LAYER DISCS ]

#### 푸치니: 3부작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 스키키)

루치오 갈로(미켈레, 스키키)/ 에바 마리아 베스트브로엑(조르제타)/ 에르모넬라 하호(안젤리카)/ 에카테리나 시우리나(라우레타)/ 프란체스코 데무로(리누초)/ 안토니오 파파노/ 로얄 오페라 코번트가든

#### 로얄 오페라 코번트 가든의 역량이 총동원된 <일 트리티코>의 결정판

3편의 단막 오페라를 묶은 <Il Trittico>는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완성도에 비해 연주의 빈도가 떨어지는 작품에 속한다. 단테의 '신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푸치니는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주제로, 연옥(수녀 안젤리카), 천국(잔니 스키키)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3부작이다. 여러 외적인 제한 때문에 세 작품을 따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 무대에서 3편을 같이 공연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로얄 오페라의 음악감독인 안토니오 파파노는 이 3부작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림으로써, 2011/12 시즌을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공연실황이 본 영상물에 수록되었다. 연출가 리처드 존스는 완전히 상이한 세 작품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세 명의 무대 미술가들에게 한 작품씩을 할당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덕션은 각 작품의 성격을 잘 반영한 미장센과 세 작품을 일관하는 동일한 기조의 연출이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파파노의 노련한 지휘와 루치오 갈로,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 에카테리나 시우리나, 안나 라르손, 에르모넬라 하호를 비롯한 성악진의 가창과 연기 또한 발군이다.

#### [ 보조자료 ]

○ <외투>는 베리즈모의 색채가 진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나이 많은 남편이자 거룻배 선장인 미켈레(바리톤)의 젊은 아내 조르제타(소프라노)는 젊은 하역부 루이지(테너)와 정을 통한다. 자신을 멀리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미켈레는 결국 루이지가 연적임을 알아채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내를 시체 위로 밀어 넣으며 분노를 폭발시킨다.

○ <수녀 안젤리카>의 주인공은 7년 전에 사생아를 낳았다가 회개하려 수녀원에 왔다. 어느 날 그녀의 백모가 찾아와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으니 재산을 양도하라고 한다. 세상과 격리되어 아이의 안부도 모르던 안젤리카는 자신의 아기가 2년 전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슬픔에 빠진 안젤리카는 아이를 만나고 싶은 환상에 빠져들면서 신비스런 황홀경 속에서 독을 마시고 죽어간다.

○ <자니 스키키>는 희가극이다. 피렌체의 부자 부오조 도나티가 죽자 친척들이 몰려든다. 모두 유산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망자의 유언은 유산을 모두 수도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깜짝 놀라 꾀 많은 자니 스키기가 부오조 도나ти로 위장한 채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운다. 물론 자니 스키기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멋대로 유언을 한다. 친척들은 화가 나지만 이미 죄를 공모한 것이 되어 어쩌지 못한다. 널리 알려진 소프라노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니 스키기의 딸 라우레타가 부르는 노래다.



Opus Arte OA 1069D

#### R.슈트라우스: 알프스교향곡, <아라벨라> 마지막 장면, 가곡

르네 플레밍(sop)/ 크리스티안 틸레만/ 빈 필하모니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R.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들의 특별한 만남.

2011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R.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아끼는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작곡가의 관현악걸작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스케일과 변화무쌍한 악곡전개를 자랑하는 '알프스 교향곡'을 틸레만의 당당한 지휘와 빈 필하모니카의 빼어난 앙상블로 만나는 즐거움이 각별하며, OpusArte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면과 사운드가 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이다. 르네 플레밍의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만나는 가곡들 또한 대단히 매혹적이다. 오리지널 관현악반주 가곡인 '아풀로 무녀의 노래' 외에도, 그의 대표 가곡들인 '황혼의 꿈', '해방' (Befreit), '겨울사랑'을 작곡가 자신 또는 로베르트 헤거에 의한 관현악버전으로 연주하였다.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서정성을 자랑하는 작품인 <아라벨라> 중의 유명한 모놀로그 '나의 엘리마!' 까지 함께 수록됨으로써, 작곡가의 관현악, 가곡, 오페라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 Dynamic DVD

[www.dynamic.it](http://www.dynamic.it)



Dynamic 3371  
[ 2 for 1 ]

#### 베르디: 운명의 힘 + 팔스타프

베르디가 완성한 가장 어두운 비극과 가장 밝은 희극을 함께 담았다

'운명의 힘'은 베르디의 중기를 대표하는 걸작의 하나다. 러시아 황실의 위축으로 1862년에 완성한 이 오페라는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도 어두운 분위기가 지배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잉카 제국의 후손인 돈 알바로와 스페인 유력 귀족의 딸인 레오노라의 비극적인 사랑은 예상치 못한 큰 비극을 낳고, 레오노라의 오빠인 돈 카를로는 복수의 일념으로 이들을 뒤쫓는다. 제복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세 주인공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손아귀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마침내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한다. 본 DVD에는 2006년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모데나에서의 실황이 수록되었다. <팔스타프>는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희극 오페라다. 늙은 뚱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좌충우돌과 그를 골려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이 유쾌한 오페라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열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본 DVD에는 명 바리톤 루제로 라이몬디가 열연했던 2009년 오페라 르와얄 드 월로니의 실황이 수록되었다.



##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DVD 711108



## 베르디: 팔스타프

암브로조 마에스트리(팔스타프)/ 바르바라 프리톨리(알리체)/ 마시모 카발레티(포드)/ 에바 리바우(나네타)/ 하비에르 카바레나(펜톤)/ 이본느 나에프(퀴클리) 외/ 다니엘레 가티/ 취리히 오페라극장

## 우리 시대의 대표 팔스타프, 암브로조 마에스트리의 최신 공연실황

세익스피어의 희극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을 기반으로 완성한 <팔스타프>는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희극 오페라다. 늙은 뚱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죄충우돌과 그를 골려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이 유쾌한 오페라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력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본 영상은 2011년 봄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의 무대에 올랐던 명연출가 스벤-에릭 베흐톨프의 프로덕션을 옮긴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팔스타프인 암브로조 마에스트리와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알리체 포드의 우아한 매력을 과시했던 바르바라 프리톨리를 주축으로 한 실력파 가수들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다니엘레 가티의 지휘 아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화려한 색채의 의상과 무대미술, 전통적이고도 사실적인 연출, 일급 가수들의 빼어난 양상을, 친절한 한글자막이 조화를 이룬 본 영상을 통해 베르디가 남긴 마지막 걸작의 매력을 유감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 보조자료 ]

- 쟁쟁한 명성의 오페라 스타들이 대거 동원된 이 프로덕션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풍부한 성량과 자신감 넘치는 연기로 타이틀 룰을 열연한 암브로조 마에스트리다. 10여 년 전 베르디의 고향인 부세토에서의 공연영상(EuroArts를 통해 출시)에서 불과 31세의 나이로 같은 배역을 멋지게 소화해내었던 이 마에스트리는 본 영상에서는 한결 원숙해진 기량과 농익은 연기로 현존 최정상급의 이탈리아 저음가수라는 자신의 위상을 확실히 증명해준다.

- 80세를 넘긴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작곡가의 통찰력과 예술적인 완성도가 극한까지 이른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평생토록 역사와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혁신했던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을 이토록 유쾌하고 호탕한 희극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는 세익스피어의 원작보다 극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곤 한다.

- 스벤 에릭 베흐톨프는 독일의 배우 겸 연출가로 빈의 부르크테아터의 주요멤버이기도 하다. 라ム슈타트 출신의 그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취리히, 보훔, 함부르크 등지에서 배우로 각광받았다. 1999년부터 빈 부르크테아터에 합류하였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였다. 2000년 취리히 오페라에서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로 오페라연출 데뷔를 한 이래, 바그너와 현대오페라 분야에서 개성적인 연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빈 국립오페라 무대에 올렸던 R 슈트라우스의 <아리발라>와 바그너의 링 사이클로 주목받았다.



C-Major DVD 71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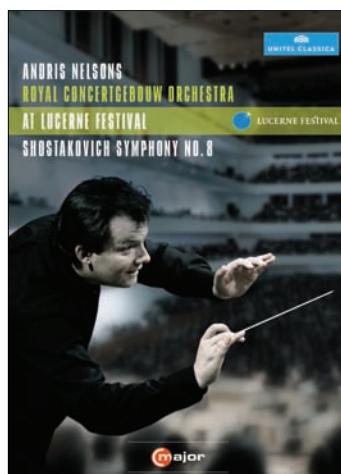
##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에핀 브론프만(pf)/ 안드리스 넬슨스/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 젊은 지휘자와 관록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악단의 멋진 양상을

라트비아 출신의 안드리스 넬슨스는 동향의 선배인 마리스 앤손스와 스스로 그의 멘토를 자임하는 다니엘 바렌보임 등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오페라와 콘서트 양 분야 모두에서 결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젊은(1978년생) 지휘자다. 2011년 여름 그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를 이끌고 루체른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빨 빨게 DVD와 Blu-ray로 출시되었다. 본 영상에는 2011년 9월 5일의 콘서트 전체가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베토벤의 '아테네의 폐허' 서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정상급 피아니스트 에핀 브론프만이 독주를 맡은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로 이어진다. 브론프만은 자신의 당당한 파워와 빼어난 초절 기교를 맘껏 발휘된 이후, 쇼팽의 에튀드 Op.10-8로 객석의 환호에 화답하였다. 연주회의 대미는 콘체르트헤보우의 고품격 사운드를 맛보기에 최적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가 장식하였고, 양코르로 연주된 드보르작의 슬라브춤곡 3번까지 빼놓지 않고 수록되었다.



C-Major DVD 709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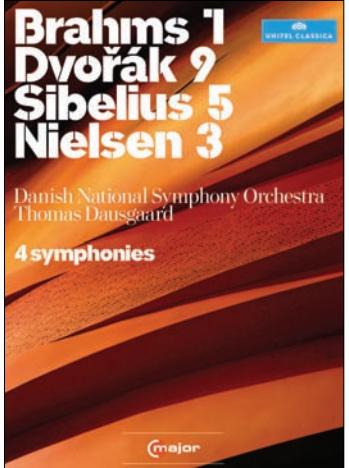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 바그너: 리엔치 서곡/ R. 슈트라우스: 일곱 베일의 춤

안드리스 넬슨스/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 라트비아의 기대주 안드리스 넬슨스와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만남

1978년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난 안드리스 넬슨스는 사이먼 래틀과 사카리 오라모의 뒤를 이어서 현재 베밍엄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인 젊은 지휘자다. 2009년에는 '튜란도트'로 메트에, 2010년에는 '로엔그린'으로 바이로이트에 차례로 데뷔하였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일련의 젊은 지휘자 그룹 중에서도 오페라와 콘서트 양쪽 모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기대주이다. 본 영상은 2011년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동향의 선배인 마리스 앤손스가 이끌고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것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이른바 전쟁 교향곡 3부작 중에서 기운데 작품인 교향곡 8번이 메인 프로그램을 장식하였으며,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과 R. 슈트라우스의 관능적인 작품인 오페라 <살로메> 중의 '일곱 베일의 춤'을 함께 연주하였다. 젊은 지휘자의 패기와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유려한 양상들이 만들어낸 멋진 시너지를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를 통해 만나보시라.



C-Major DVD 710508  
[ 2DVD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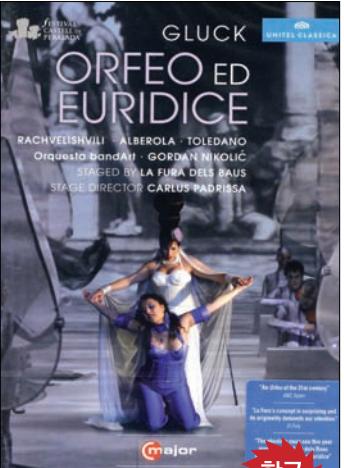
브람스: 교향곡 1번/ 드보르자: 교향곡 9번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닐센: 교향곡 3번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네 편의 위대한 교향곡 걸작들

1925년 설립된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근 팔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룬 일곱 오케스트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내한공연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은 지난 2009년 여름, 베케트 재단과 손을 잡고 전통적인 교향곡 레프트와의 대중화를 위해서 심포닉 섬머라는 굵직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영상물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연주되었던 네 편의 교향곡들을 C Major가 자랑하는 뛰어난 화질의 영상으로 출시한 것이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드보르자와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그리고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보컬리제를 담은 독특한 작품인 닐센의 교향곡 3번을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다이나믹한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7년 이 악단을 크게 성장시켰던 지휘자 토마스 다우스고르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C-Major DVD 710308

글루: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아니타 라흐벨리슈빌리(오르페오)/ 마이테 알베롤라(에우리디체)/ 옥실리아도라 틀레다노(아모레)/ 고르دون 니콜리치/ 오르케스타 반다르트

환상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글루 최고의 오페라 걸작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오의 이야기는 오페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두 걸작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음악애호가들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명실상부한 최초의 오페라 걸작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와 불거리에 치중한 악습을 깨고 오페라 본연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던 글루의 오페라 개혁의 결과물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가 그것이다. 본 영상물은 2011년 7월 카스텔 데 페랄다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발렌시아의 '링' 사이클로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스페인의 행위예술 공연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종합예술지향적인 무대가 다시금 큰 화제를 낳았던 프로덕션을 담고 있다. 합창단은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도 의상과 분장을 갖춘 상태로 무대 위에서 드라마의 전개에 한 몫을 담당하는 점이 이채로우며, 미니멀한 무대배경 위로 각종 CG 효과를 동반한 디자인으로 영상을 효과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가능케 했다.

#### [ 보조자료 ]



C-Major DVD 710908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말러: 탄식의 노래/ 베르크: 룰루 모음곡, 포도주)

안나 프로하스카(sop)/ 도로테아 뢰슈만(sop)/ 안나 리르손(alto)/ 요한 보타(te)/ 빈 슈타츠오페 합창단/ 피에르 불레즈/ 빈 필하모니카

불레즈가 지휘한 청년기 말러의 대편성 칸타타 '탄식의 노래'

2011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성대한 시작을 알렸던 개막 콘서트가 영상으로 출시되었다. 2008년에 이어서 피에르 불레즈가 다시 이 개막 콘서트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들이 베르크와 말러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베르크의 걸작 오페라 '룰루'에서 발췌한 다섯 곡들로 구성된 연주회용 모음곡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가 독창을 맡았고, 사울르 보들레르의 의인체 시에 곡을 불인 관현악반주와 가곡 '포도주' (Der Wein)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도로테아 뢰슈만의 신선한 변신을 경험할 수 있다. 콘서트의 후반을 장식하는 작품은 청년 시절 말러가 완성했던 대편성의 칸타타 '탄식의 노래' (Das Klangen Lied)다. 이 작품은 1880년 완성 당시에는 3개의 파트(숲의 전설, 음유시인, 결혼식)로 구성되어있었는데, 1889년의 개정작업을 통해 '숲의 전설'이 생략되고 나머지 두 파트만으로 작품이 재편되었다. 본 연주회에서는 개정버전을 연주하였다.

○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1714~87)은 오페라 개혁을 추구한 작곡가로 유명하다. 빈에서 활동하면서 나폴리 스타일 오페라의 폐해를 목도하고,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자는 오페라 초창기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이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 대표작이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알체스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이상은 빈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모차르트조차 외면했다. 때문에 글루은 파리로 귀거지를 옮겨 프랑스풍의 오페라에 매진하게 된다.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가 파리 시대의 대표작이고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도 프랑스 스타일의 개정판을 만들었다.

○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는 오페라 역사의 초창기인 바로크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소재인데, 이중에서도 1762년 빈에서 초연된 글루의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 지난친 기교주의와 불거리로 가득한 무대장치가 판을 치는 나폴리 스타일의 오페라에 반기를 들고 고대 그리스 극예술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오페라 개혁의 취지를 담은 역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 1979년 바르셀로나에서 결성된 전위예술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는 이크로바틱이 접목된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중공연으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단체다. 이들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최근 오페라 연출과도 자주 접목되고 있는데, 세간의 화제를 낳았던 주빈 메타 지휘의 발렌시아 '링' 사이클과 게르기예프 지휘의 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이 특히 유명하다. 이들은 톰 티크베어 감독의 2007년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군중장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1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Rainbow Drops'라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Arthaus DVD 710708

## 파야: 허무한 인생

크리스티나 가야르도-도마스(살루드)/ 호르헤 데 레온(파코)/ 마리아 루이사 코르바코(라 아부엘라)/ 펠리페 보우(엘 티오 샤르바오르) 외/ 로린 마젤/ 오케스트라 데 라 쿠모니타트 발렌시아나

## 스페인의 향토색으로 가득 채워진 파야의 매력적인 오페라 걸작

오페라 〈허무한 인생〉(La Vida Breve)은 근대 스페인 민족주의 대표 작곡가인 파야가 완성한 최초의 본격적인 오페라이다. 그는 이 작품 속에 민속음악적인 요소와 더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개성 또한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오페라의 공간적 배경인 그라나다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했던 땅이며, 집시들의 보금자리였다. 여주인공인 살루드 역시 집시의 딸이다. 그는 스페인 청년 파코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서로 다른 혈통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 그라나다의 독특한 향토색이 느껴지는 음악으로 가득한 이 오페라 중에서 특히 2막 첫 머리에 등장하는 스페인 춤곡은 바이올린을 위한 편곡으로 널리 연주되는 인기곡이다. 본 영상물은 2010년 4월 발렌시아 팔라우 소피아에서 공연되었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거장 로린 마젤이 지휘를 맡았고 칠레 출신의 명소프라노 가야르도-도마스가 살루드를 열연하였다. 명 테너 마리오 멜 모나코의 아들로서 이제 명연출가의 반열에 오른 잔카를로 멜 모나코의 사실주의적인 연출도 큰 불거리를 제공한다.

## [ 보조자료 ]

○ 트럼펫과도 같은 강렬한 음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테너, 마리오 멜 모나코의 아들인 잔카를로 멜 모나코는 현재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 보수적 전통을 대표하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때 현대적인 연출을 지향하는 일군의 연출가 그룹이 드세하면서 그 위상도 다소 흔들리는 듯한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여려 중요 프로덕션을 통해 호평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는 연출 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종종 무대 세트와 의상까지 도맡곤 하는데, 본 영상물에서도 연출과 무대미술을 겸하였다.

○ 1967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 가야르도-도마스는 1990년 〈나비부인〉으로 데뷔한 이래, 스칼라, 메트, 빈 슈타츠오페, 파리 가르니에와 같은 대서양 양안의 일급 오페라 극장들을 누비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 히로인의 한 사람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오페라 영상물들 중에서 게르기에프 지휘의 〈투란도트〉에서 류를 노래하였고, 흥해경이 무제티를 노래했던 라 스칼라의 〈라보엠〉에서는 미미를 노래했었다.

○ 오페라의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집시 여인 살루드는 스페인 청년 파코를 사랑한다. 하지만 파코는 그녀를 버리고 부자집 딸인 카르멜라와 결혼을 결심한다. 카르멜라의 오빠인 마누엘의 집에서 파코와 카르멜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살루드는 결혼식장에 난입하지만, 파코는 냉정히 그녀를 거부한다. 상심한 살루드는 파코 앞에 몸을 던진 뒤에 절명한다.



Arthaus DVD 101 625

## 치마로사: 비밀 결혼

요제프 그라인들(제로니모)/ 에리카 케트(카롤리나)/ 리자 오토(엘리제타)/ 패트리샤 존슨(피달마) 외/ 로린 마젤/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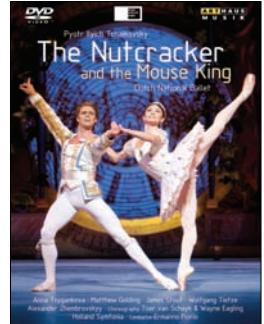
## 청년 로린 마젤이 지휘한 치마로사의 결작 오페라 부파

베를린 도이치오페라는 2차 대전 종전 후 동베를린에 속하게 된 명문 오페라극장인 베를린 슈타츠오페에 대형하기 위해 서베를린 측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오페라극장이다. 냉전 시대 양 진영의 힘겨루기에 힘입어 이 극장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큰 후원을 받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본 DVD에는 이 극장에서 1967년에 공연된 치마로사의 〈비밀 결혼〉이 수록되었다. 〈비밀 결혼〉은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부파보다 약간 늦게 작곡되었지만 몰래 사랑하는 연인들, 그들이 벌이는 계략에 넘어가는 바소 부포, 시종일관 실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같은 부파의 전형적인 면모를 모차르트의 작품들에 비해 보다 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30대 후반의 나이로 상종기를 달리던 로린 마젤이 지휘봉을 잡은 이 공연은 당대의 관습대로 독일어로 노래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요제프 그라인들, 라지 오토, 도날드 그로브와 같은 주역의 가수들의 전성기 활약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값진 기록이다.

[ 흑백영상, 모노채널 오디오 ]

## [ 보조자료 ]

○ 이 오페라 부파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신흉부자 제로니모의 고용인 파울리노는 주인의 막내 딸 카롤리나와 비밀리에 결혼했지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제로니모의 마음을 미리 누그러뜨리고자 큰딸 엘리제타의 남편감으로 몰락한 귀족 로빈슨 백작을 끌어들인다. 문제는 이윽고 등장한 백작이 카롤리나에게 반해서 파울리노의 계략과 달리 작은딸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황한 파울리노는 제로니모의 여동생 피달마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이미 파울리노를 짹사랑하던 터라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카롤리나를 수녀원에 들어보내는 피달마와 엘리제타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울리노는 한밤중에 카롤리나와 도망가려다가 온가족과 로빈슨에게 들키고 만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한 사이임을 밝히고 모두 그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마침내 로빈슨 백작도 엘리제타와의 결혼을 받아들인다.



Arthaus DVD 101 636

###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 최고의 화질로 만나는 네덜란드 버전의 독특한 호두까기 인형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11년 암스테르담 뮤직 시어터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최신 공연 실황을 담았다.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 이후 유수의 발레단들이 저마다의 개성적인 프로덕션을 내놓고 있는데,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이 공연 역시 1996년 처음 공개된 투르 판 샤와 웨인 이글링의 안무를 토대로 하였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 겨울 명절인 성 니콜라스 축일의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하는 이 프로덕션은 클라라의 남동생인 프리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생쥐 왕이 1막이 아닌 2막에 죽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달라졌다. 볼쇼이 발레단과 빈 국립 발레단을 거친 뒤 2007년부터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약 중인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앤나 치간코바가 클라라를 열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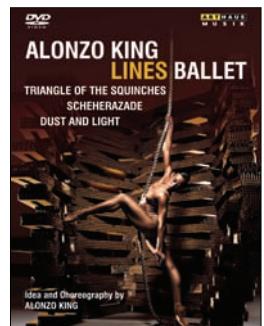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630

### 글라주노프: 발레 <라이몬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발레단

#### 프티파가 안무한 마지막 로맨틱 발레의 걸작을 최신 실황으로 만나다

<라이몬다>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를 맡았던 마지막 걸작이다.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프티파는 그의 저자였던 글라주노프에게 음악을 위촉했고, 글라주노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작품을 자신을 대표하는 걸작 발레음악으로 완성하였다.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음악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발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러시아 밖에서 이 작품의 인기는 그리 높지 못했지만, 누리에프의 현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은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에 버금가는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세르게이 비하레프가 리바이벌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2002년 바가노바 발레 콩쿠르에서 입상 이후 카로프 발레단의 히로인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올레시아 노비코바가 타이틀 룰을 우아하게 연기하였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인기스타인 프리데만 포겔이 상대역인 장 드 브린느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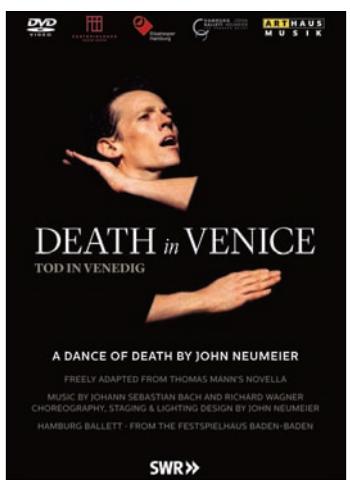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591

### 알론조 킹의 세 가지 모던 발레

Triangle of the Squinches, Scheherazade, Dust & Light

####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 알론조 킹의 대표작 3편

알론조 킹은 오늘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 발레 안무가의 한 사람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란 그는 1982년 Lines 발레단을 설립한 이후 200편에 가까운 안무 작품을 만들었다. 킹은 고전발레의 테크닉과 형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새로운 움직임의 안무를 만들어 낸다. 그는 저명한 작곡가와 뮤지션, 비주얼 아티스트 등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종합예술로의 현대무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해오고 있다. 본 영상물에는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세 편의 모던 발레를 담고 있다. 다양한 우주의 음향과 티베트 승려들의 노래 등을 접목한 미키 하트의 전위적인 음악을 바탕으로 한 2011년 최신작 'Triangle of the Squinches', 바로크 작곡가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서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육체의 매력을 담아낸 2009년작 'Dust & Light', 그리고 린스키-코르사코프의 명곡을 인도의 세계적인 타악기연주자인 자카르 후사인이 재해석한 음악을 기반으로 완성한 'Scheherazade'는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되었던 그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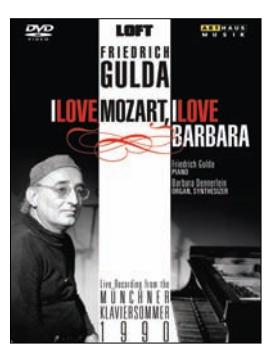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622

### 존 뉴마이어의 발레 <베니스에서의 죽음>

함부르크 발레단

#### 존 뉴마이어의 손을 통해 아름다운 모던 발레로 재탄생한 토마스 만의 소설

토마스 만이 1912년에 발표한 소설인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베니스로 휴양을 떠났다가 타지오라는 미소년의 절대적 아름다움에 매혹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소설가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루카노 비스콘티가 영화(1971년)로 제작하였고, 영국 작곡가 브리튼 역시 이를 토대로 동명 오페라(1973년)를 작곡하였다. 현재 함부르크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무용가인 존 뉴마이어는 이를 아름다운 모던 발레로 변모시켰다. 그는 주인공 아센바흐를 소설가가 아닌 무용안무가로 재설정하였고, 바흐의 '음악의 현정', 바그너의 '사랑의 죽음'과 같은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제스로 툴과 잉베이 말름스틴 등의 바로크 록음악까지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을 일관하는 사랑과 비극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본 영상물은 2004년 바덴-바덴 페슈트필하우스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뉴마이어의 페르소나인 로이드 리긴스가 아센바흐를, 함부르크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에드빈 레바초프가 타지오를 열연하였다.



Arthaus DVD 101 635

### 프리드리히 굴다 & 바르바라 덴델라인

I Love Mozart & I Love Barbara

#### 클래식 피아니스트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의 프리드리히 굴다의 두 모습

지난 2000년 1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프리드리히 굴다는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적인 성향과 클래식 연주회의 격식을 깨뜨린 파격적인 무대매너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었던 기인 피아니스트였다. 1946년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비슷한 연배의 동향 피아니스트들인 외르크 데무스, 폴 바두라스코와 더불어 빈의 삼총사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와 같은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와는 물론, 재즈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경지 to 구축했으며, 두 장르의 특성을 교묘하게 조합한 자신의 창작곡들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었다. 1990년 원현에서의 연주회를 담은 본 DVD는 굴다의 이런 유일무이한 개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인다. 연주회의 전반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굴다의 가장 큰 애정을 쏟았던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피아노독주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재즈 간연주자인 바르바라 덴델라인의 신서사이즈와 더불어 자신의 창작곡을 비롯한 크로스오버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Arthaus DVD 101 637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2012년 신년음악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과 이탈리아 오페라 합창과 아리아들

제시카 프라트(sop)/ 발터 프라카로(te)/ 알렉스 에스포시토(bass)/ 디에고 마테우스/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엘 시스테마'의 또 다른 열매 디에고 마테우스의 2012 라 페니체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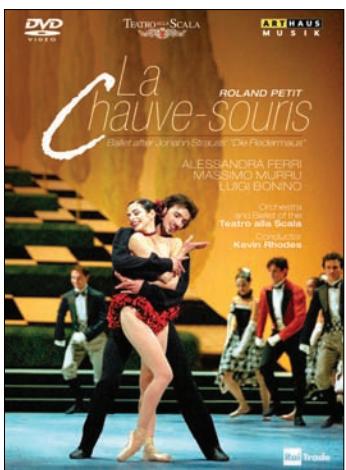
수상도시 베네치아에는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가 있다. 1792년에 건설된 이 이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잣더미가 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다시 부활하였다. 두 번째 재개관 이후 이 극장에서는 매년 초하루마다 화려한 신년음악회가 펼쳐진다. 본 콘서트에서는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여러 오페라 작곡가들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2012년의 신년음악회는 이 극장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베네수엘라의 젊은(1984년생) 지휘자 디에고 마테우스가 지휘봉을 잡았다. 두다발에 이어 '엘 시스테마'를 통한 또 다른 쾌거로 화제를 모은 이 지휘자는 콘서트의 전반부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전곡으로 채우는 모험적인 선곡으로 화제를 모았고, 후반부는 콘서트의 전통 그대로 베르디, 도니제티, 푸치니 등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으로 채웠다. 영국의 신성 제시카 프라트와 이탈리아의 일급 남성가수들인 발터 프라카로와 알렉스 에스포시토가 콘서트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 요한 쉬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의 음악에 의한 발레 〈박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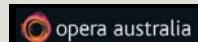
## 오페레타 최고의 명작 〈박쥐〉를 발레로 만든 유쾌하고 기발한 작품

요한 쉬트라우스의 〈박쥐〉는 빈 오페레타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며 요즘도 세계 각지의 연말연시 무대에 가장 많이 올려지는 최고의 인기작이다. 이 오페레타가 발레로 새롭게 태어났다. 평단의 찬사와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혼치않은 존재인 롤랑 프티가 자신의 아내인 프랑스 발레계의 수퍼스타 지지 장메르를 위해 1979년에 안무한 작품이다. 오페라의 복잡한 줄거리를 대폭 단순화하여 주요 등장인물을 요한, 그의 아내 벨라, 친구 울리히, 테너 가수, 차르디슈 무용수 정도로 압축시켰지만 원작의 유머와 기발함은 그대로 살아있다. 2003년 12월 밀라노 라스칼라 발레 실황이며, 오늘날 지지 장메르에 필적할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매력적인 발레리나 알레산드라페라가 벨라 역을 맡았다.

[ 구, TDK DVUS-BLCHS 와 동일영상을 ]



Arthaus DVD 107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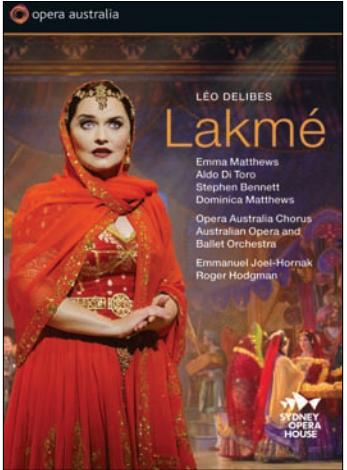


## EPC DVD

www.opera-australia.org.au

## 들리브: 라크메

엠마 매튜스(라크메)/ 스티븐 베네트(닐라칸타)/ 알도 디 토로(제랄드)/ 도미니카 매튜스(말리카) 외/  
엠마누엘 조엘-호낙/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Opera Australia OPOZ 56020

## '꽃의 이중창', '종의 노래' 등의 명곡들이 담긴 들리브의 대표 오페라

레오 들리브는 〈코펠리아〉, 〈실비아〉 등의 로맨틱 발레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작곡가지만, 오페라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기작 하나를 후대에 남겼다. 그가 만년에 완성한 〈라크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오페라의 공간적 배경은 인도다. 인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반영한 이 작품은 유럽의 군인과 현지의 아름다운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푸치니의 〈나비부인〉, 마이어베어의 〈아프리카의 여인〉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고금의 여성 이중창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인 '꽃의 이중창', 콜로리투라 소프라노 아리아의 대표곡 중 하나인 '종의 노래'가 바로 이 오페라에 수록된 대표곡들이며, 2막에 등장하는 화려한 발레음악 역시 콘서트 레프트와로 자주 공연되는 명곡이다. 오페라의 지령도에 비해 영상물로 만날 기회가 드문 작품인데, 2011년 9월 시드니 오페라ハウス에서 공연된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본 영상물이 그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것이다.

## [ 보조자료 ]

○ 〈라크메〉는 들리브가 죽기 8년 전인 1883년 4월 14일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다. 에드먼트 곤디네와 필립 질이 함께 완성한 리브레토는 피에르 로티의 소설 '로티의 결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19세기 영국 통치하의 인도가 배경이다. 브라만교의 사제인 니라칸타에게는 아름다운 딸 라크메가 있다. 호기심으로 니라칸타의 사원에 침입한 영국군 장교 제럴드는 라크메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영국에 큰 원한을 갖고 있던 니라칸타는 라크메를 미끼로 제럴드의 살해를 기도하지만, 상처를 입히는 데에서 그친다. 라크메는 제럴드를 간호하면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제럴드가 부대로 복귀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끝을 맺게 된다. 결국 라크메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본 영상에서 타이틀 룰을 맡은 엠마 매튜스는 현재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간판스타로 활약하면서 이 나라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콜로리투라 소프라노다. 1991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를 통해 데뷔한 그녀는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립 오페라 등의 이 나라의 주요 오페라단을 섭렵하면서 이 나라의 대표 오페라 스타로 자리매김하였다.



Opera Australia OPOZ 56023

**모차르트: 돈 조반니**

테디 나후 로즈(돈 조반니)/ 코날 코드(레포렐로)/ 레이첼 더킨(돈나 안나)/ 재클린 다크(돈나 엘비라)/ 타라인 피빅(체를리나)/ 헨리 추(돈 오타비오) 외/ 마크 위글워스/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색한의 상징과도 같은 전설적인 캐릭터인 돈 환의 이야기는 17세기 중반부터 유럽 일대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다. 몰리에르의 희곡 '돈 주양-석상과의 만찬', 바이런의 서사시 '돈 주양' 등도 이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들이다. 돈 환은 음악에서도 불세출의 걸작의 소재가 되었다. 다 폰테의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완성한 모차르트의 이탈리아어 오페라 <돈 조반니>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오페라를 통틀어서도 지금까지 가장 자주 무대에 오르는 인기작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0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최신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연출가 고란 예르베벨트는 파격이나 현대적인 재해석을 배제한 채, 고전적인 의상과 단정한 무대세트를 통해 이 작품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재현하였다. 타이틀 롤을 맡은 바리톤 테디 타후 로즈는 성악과 연기 양쪽 모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영국 지휘자 마크 위글워스의 생동감 넘치는 지휘도 훌륭하다.

## [ 보조자료 ]

○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크게 <후궁 탈출>, <마술 피리> 같은 독일어 오페라(정슈필)와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등 이탈리아어 오페라로 구별되는데 이중 작품성을 더 인정받는 것은 이탈리아 오페라이다. 또한 언어적인 특징과 더불어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전설적인 호색한의 얘기를 다룬 <돈 조반니>는 빈에서 작곡되어 1787년 10월 29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모차르트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오페라 부파와 달리 희극적인 요소와 무겁고 교훈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래서 드라마 지아코소(Drama Giacoso)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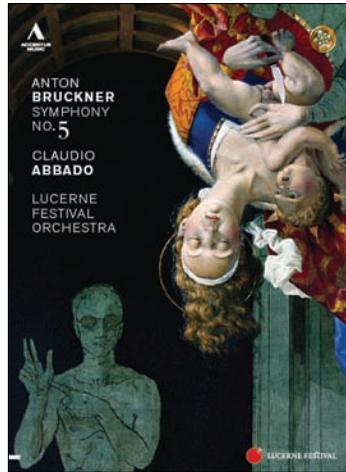
○ 이 영상물에서 타이틀 롤을 노래한 테디 타후 로즈는 1966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태어난 바리톤 가수다. 그는 자국의 여러 성악 콩쿠르를 석권한 이후, 런던의 길드홀 음악원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1998년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오페라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한 이후, 메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 함부르크 슈타츠 오페,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등의 일급 오페라 무대를 두루 섭렵하면서 뉴질랜드의 국민 성악가로서 큰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오리족의 피가 섞인 야성적인 얼굴과 훈칠한 키, 그리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갖춘 이 가수의 매력을 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ccentus DVD**

www.accentus.com

**브루크너: 교향곡 5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ccentus ACC 20243

##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 모습을 최고의 화질로 담은 영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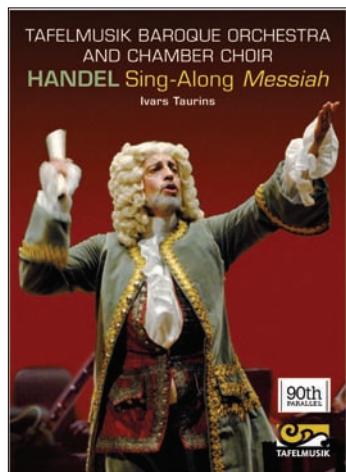
자신을 위해 결성된 스페셜 오케스트라이인 루체른 페스티벌과 더불어 만년의 예술흔을 완전히 불사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 클래식 영상을의 새로운 명품 레이블인 Accentus의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선보인다. 2011년 8월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브루크너가 완성한 가장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을 연주한 것이다. 아바도가 1990년대에 빈 필과 더불어 선보였었던 몇 편의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들은 자신의 말리 레코딩에 비해 저평가되었지만, 최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교향곡 7번(2005년)과 이번에 등장한 교향곡 5번의 실황연주들은 과거의 연주에 비해 더 한층 따뜻한 색조와 유려한 흐름으로 이 작곡가 특유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담당하게 그려내었다. 현재 독일 화단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화가인 미카엘 트리겔의 미스터리한 작품 'Anthropishes Prinzip'을 사용한 커버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격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

**Tafel Music DVD**

www.tafelmusik.org

**헨델: 싱-얼롱 메시아**

타펠무지크 실내 합창단,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이바스 토린스(지휘)



TMK 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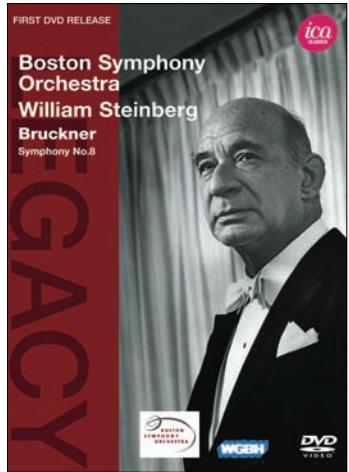
## 타펠무지크와 함께 모든 관객이 노래 부르는 가슴 뭉클한 순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음악을 듣는가? 송고한 영혼의 정화? 인성을 위한 교양? 예술의 탐구? 아니면 오락? 이 이유들은 모두 '즐거움'을 바탕에 두고 있다.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이 사람마다 제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편한 정장을 입고 2시간 동안 꿈쩍 않고 앉아 있어야 하는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즐거움도 달아날 것 같다며? 여기에 독특한 음악회가 있다. 타펠무지크가 1986년 12월부터 열어온 '싱-얼롱 메시아'는 메시아를 연주하면서 청중들이 객석에서 다 같이 합창을 부르는 독특한 참여형 콘서트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음악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영상물은 2010년 12월 토론토에서 열린 '싱-얼롱 메시아' 실황이다. 청중들이 악보를 받고 객석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연주자들이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헨델 분장을 한 지휘자 이바스 토린스가 악보를 맡아 쥔 지휘봉으로 지휘하며 연주 중간 중간에 의상을 떠는 모습까지 즐거움의 연속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리톤 가수인 정록기가 솔리스트로 참여하여 더욱 가치가 높다.



## ICA (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DVD

www.icartist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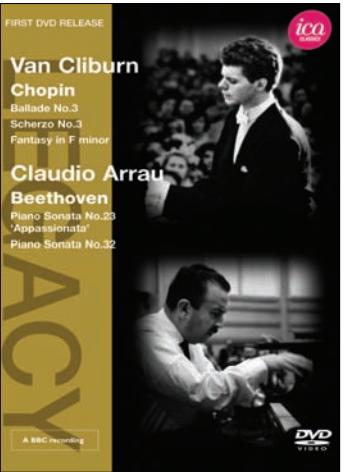


ICA DVD ICAD 5071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윌리엄 스타인버그/ 보스턴 심포니

**독일 출신의 미국 거장 윌리엄 스타인버그가 지휘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1899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난 윌리엄 스타인버그는 1938년 토스카니니의 요청으로 NBC 교향악 단의 보조지휘자를 맡으면서 미국을 자신의 활동기반으로 삼았다. 1969년에는 에리히 라인스도르프의 후임으로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에 취임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스타인버그는 1973년 세이지 오자와에게 바トン을 넘기면서 보스턴 심포니와의 관계를 마감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이들은 지금도 레퍼런스로 꼽히는 홀스트의 '행성'이나 힌데미트의 '화가 마티스'와 같은 걸출한 레코딩을 남기기도 했다. 브루크너의 가장 응대한 스케일의 걸작인 교향곡 8번을 담은 본 DVD 역시 이들의 짧지만 돈독했던 파트너십을 확인시켜 주는 값진 기록이다. 그가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에 취임하기 이전인 1962년 1월 9일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으로, 열악한 흙백화질과 모노 채널 오디오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교향곡을 당당하게 구축해나가는 스타인버그의 거장성을 충분히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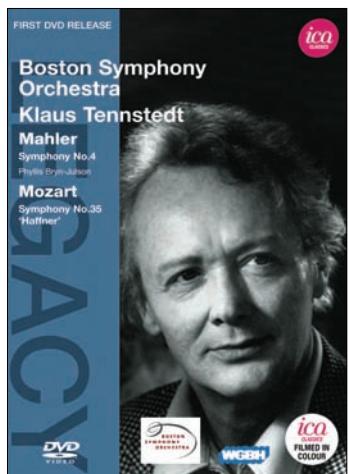
ICA DVD ICAD 5073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피아노 소나타 32번  
클라우디오 아라우

**쇼팽: 발라드 3번, 스케르초 3번, 판타지 f단조  
반 클라이번**

## 반 클라이번과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전성기를 담은 히스토리컬 영상을

20세기 중후반을 풍미했던 두 명의 위대한 피아노 비르투오조들의 전성기를 담은 귀중한 영상이 DVD로 출시되었다. 1958년 미국인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스타로 명성을 얻었던 반 클라이번과 뛰어난 기교로 각광받았던 칠레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그 주인공들이다. BBC의 한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기록들로 쇼팽의 발라드 3번, 스케르초 3번, 환상곡 등을 연주한 반 클라이번의 영상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직후인 1959년 6월,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연주한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영상은 같은 해의 10월에 녹화된 것들이다. 보너스로 제공되는 아라우의 베토벤 소나타 32번은 이보다 더 뒤인 1960년의 기록이지만, 화질 상태는 보다 열악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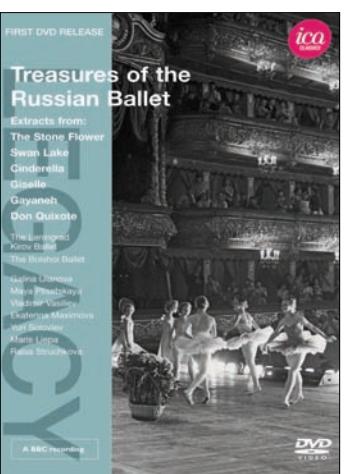
ICA DVD ICAD 5072

## 말러: 교향곡 4번/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필리스 브라이언-쥘슨(sop)/ 클라우스 텐슈테트/ 보스턴 심포니

## 20세기의 위대한 말러 스페셜리스트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말러 교향곡 4번

말러 교향곡 5번(1988년 실황)과 브루크너 교향곡 7번(1977년 실황)에 이어서 ICA에 또 하나의 값진 텐슈테트의 공연실황을 DVD로 출시하였다. 직전에 소개된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보다 조금 앞서의 기록인 1977년 1월 15일 보스턴 심포니와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텐슈테트는 1974년의 미국 데뷔콘서트 이후 보스턴 심포니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미국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본 DVD에 수록된 말러의 교향곡 4번도 20세기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와 가장 격조 있는 사운드로 사랑받았던 미국 악단 사이의 멋진 호흡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트와 매력적인 미성을 자랑하던 미국의 명 소프라노 필리스 바리이언-쥘슨과 함께 한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이후 스튜디오 레코딩에 비해 한층 더 유장한 흐름과 풍부한 표정을 머금고 있으며, 함께 수록된 모차르트의 하프너교향곡도 거장 시대의 당당한 연주에 대한 향수를 가득 머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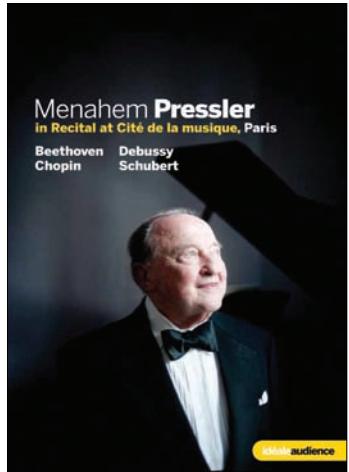
ICA DVD ICAD 5074

## 키로프 발레단과 볼쇼이 발레단의 러시아 발레의 보석들

**석화, 백조의 호수, 지젤, 가야네, 신데렐라, 돈키호테의 명장면들**

## 구소련시절 키로프 발레단과 볼쇼이 발레단의 전설들을 만나다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안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통해 러시아의 로맨틱 발레는 유럽의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그 전통은 볼세비키 혁명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레닌그라드(現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키로프 발레단과 모스크바의 볼쇼이 발레단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발레단들로 무용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본 DVD에는 냉전의 서슬이 시퍼렇던 1960년 전후, 영국 공연에 나섰던 키로프 발레단과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담은 BBC의 기록들이 수록되었다. 1960년 7월 키로프 발레단이 코VENT가든에서 공연했던 '석화'의 1막, 1956년 10월 볼쇼이 발레단이 역시 코VENT가든에서 공연했던 '백조의 호수'의 2막 발췌, 그리고 1963년 TV 방송을 위해 BBC의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신데렐라', '지젤', '가야네', '돈키호테'의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다. 지금은 전설이 된 구소련의 발레 스타들인 유리 솔로비에프, 갈리나 울리노바, 에카테리나 막시모바, 마야 필세츠카야 등의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는 값진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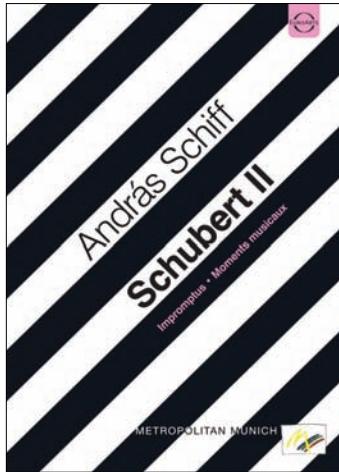
Ideal Audience DVD  
3079668

## 메나헴 프레슬러 파리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 31번/ 슈베르트: 소나타 D960/ 드뷔시: 판화/ 쇼팽: 마주르카, 야상곡)

## 보자르 트리오의 전설, 메나헴 프레슬러가 88세에 펼쳤던 감동의 리사이틀

1923년 독일의 막데부르크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는 피아노트리오의 대명사와도 같은 양상불인 보자르트리오의 창립멤버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연주자이다. 1939년 나치의 핵박을 피해 독일을 탈출한 그는 1946년 샌프란시스코의 드뷔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활동 초기에는 솔로 피아니스트로 활약했지만, 그의 이름이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각인된 계기는 1955년 다니엘 기레, 버나드 그린하우스와 더불어 보자르트리오를 창단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루체른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가질 때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실내악의 대명사와도 같은 전설적인 캐리어를 구가했었다. 프레슬러는 보자르트리오의 활동 중단 이후에도 솔로 피아니스트로 여전히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11년 3월 23일 파리 시테 드 라 무지크에서 있었던 리사이틀 실황을 담은 것으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변함 없는 그의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생생한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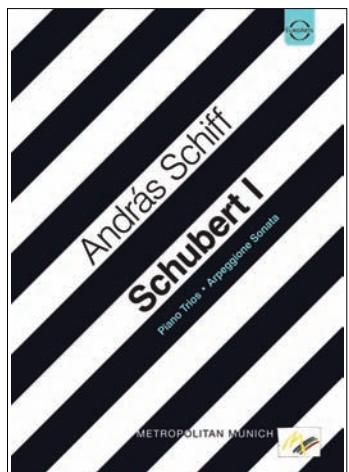
EuroArts DVD 2066808

## 언드라시 쉬프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즉흥곡 D899&935, 악흥의 순간 D780)

## 언드라시 쉬프의 감미로운 터치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들

1953년 형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언드라시 쉬프는 1980년대 후반 Decca를 통해 발매된 일련의 바흐 건반음악 레코딩들로 일약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바흐 외에도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그리고 슈만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아 있는데, 특히 슈베르트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피아노독주곡은 물론, 실내악의 피아노파트와 가곡의 반주 등을 가리지 않고 이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탐닉해왔는데, 본 DVD는 슈베르트의 피아노작품에 대한 그의 특별한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작곡가의 여러 피아노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품인 두 세트의 즉흥곡(D.899, D.935)과 6개의 악흥의 순간 D.780을 언드라시 쉬프의 간결하고도 부드러운 터치로 감상하는 즐거움이 각별하다. 1980년대 후반에 녹화된 영상들이지만, 녹화시기에 비해 화질이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EuroArts DVD 2066798

##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소나타, 피아노트리오 1,2번

언드라시 쉬프(pf)/ 미클로시 페레니(vc)/ 유우코 시오카와(vn)

## 쉬프와 페레니가 함께 연주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슈베르트의 가장 인기 높은 실내악 작품들을 함께 담은 영상물이다. 출탄 코치슈, 데즈 랑키와 더불어 형가리의 피아노 삼총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상급 피아니스트 언드라시 쉬프와 이 나라의 간판 첼리스트이자 내한공연을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인 미클로시 페레니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담백하게 연주하였고, 두 편의 피아노 트리오에서는 쉬프의 아내인 일본계 바이올리니스트 유우코 시오카와가 이들과 함께 긴밀한 호흡을 맞추었다. 슈베르트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도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품에 속하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물론이거니와, 영화 '해피엔드'를 비롯하여 여러 CF의 배경음악으로 2악장의 선율이 사용됨으로써 더 한층 친근해진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D.929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기에, 슈베르트의 실내악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을 위한 출렁한 선물이 될 것이다. 1991년 오스트리아 북부에 위치한 한 고택의 실내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실내악 본연의 아기자기한 묘미가 고스란히 전달되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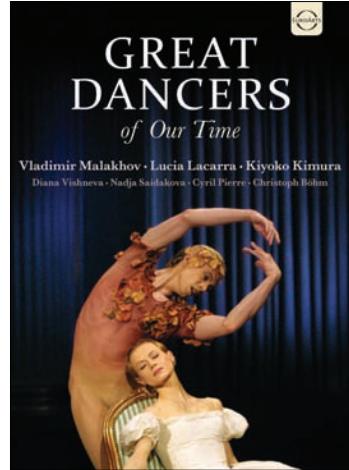
EuroArts DVD 2066768

## 언드라시 쉬프가 연주하는 바흐

(이탈리아협주곡, 반음계 환상곡과 푸가, 프랑스모음곡 5번, 카프리치오 BWV992)

## 브뤼노 몽생종이 감독한 언드라시 쉬프의 바흐 리사이틀

헝가리 출신의 정상급 피아니스트 언드라시 쉬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Decca를 통해 출시되었던 일련의 바흐 건반음악 레코딩들로 이 시대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진작을 입증하기 시작했었다. 쉬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점인 1989년에 녹화된 본 DVD는 당시 그가 가장 특별한 열정을 쏟았던 분야인 JS 바흐의 건반 작품들을 수록한 것으로, 피아노 다큐멘터리의 대가 브뤼노 몽생종의 탁월한 혜안으로 연출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다. 바흐가 아른슈타트 시절 완성한 극초기 작품인 '사랑하는 형과의 작별에 즈음한 카프리치오' BWV992, 다양한 기악작품들에 몰입하던 곤텐시절의 작품인 프랑스모음곡 5번 BWV816과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BWV903, 그리고 원숙기에 접어든 라이프치히시절에 출판된 이탈리아협주곡 BWV971에 이르기까지 작곡가의 전 생애에 걸친 주요 건반독주곡들을 골고루 엄선하여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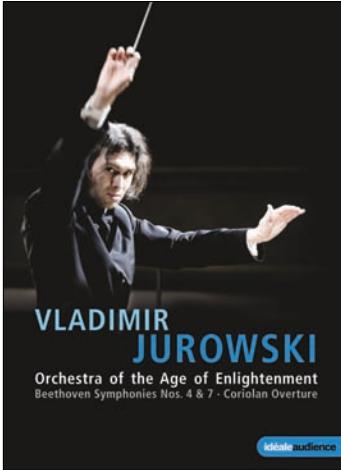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3478

## 우리시대의 위대한 무용수들

블라디미르 말라코프, 루치아 라카라, 키요코 키무라

블라디미르 말라코프가 리바이벌 한 니진스키의 대표작 '장미의 정령'을 만나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걸출한 무용수들을 본 DVD를 통해서 만난다. 루치아 라카라는 현재 바이에른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이다. '지젤', '백조의 호수', '라이몬다'와 같은 정통 로맨틱발레에서 특히 빼어난 활약을 보이며, 본 DVD에서도 '백조의 호수'와 '카멜리아의 여인'의 일부를 공연하였다. 일본 출신(교포라는 설이 있다.)의 키요코 키무라는 현재 라이프치히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현대발레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천재 안무가 우베 솔츠가 신뢰하는 무용수로 유명하다. 본 DVD에서는 바흐, 모차르트, 브루크너의 음악을 사용한 솔츠 안무의 세 작품을 선보인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블라디미르 말라코프는 현존 최고의 발레리노 중 한 사람이다. 현재 그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석으로 활약 중이며, 슈투트가르트 발레단과 빈 국립 발레단과도 자주 공연을 펼치고 있다. 본 DVD에서는 니진스키의 대표작으로 손꼽혔던 '장미의 정령'(무도회의 권유에 안무를 불임)을 비롯한 세 작품을 공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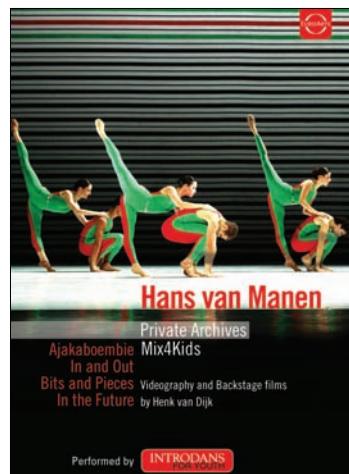


ADVD-028

## 베토벤: 코리올란서곡, 교향곡 4,7번

시대악기의 명징한 사운드와 젊은 지휘자의 기백으로 빛어낸 베토벤 교향곡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는 현재 영국 음악계를 선도해가는 젊은 마에스트로 그룹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화제의 뮤지션이다. 그는 현재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와 글라인드 본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겸하면서 콘서트와 오페라 양 분야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시대악기연주 분야까지 포함하는데, 그는 현재 사이먼 래틀, 이반 피셔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상임아티스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영상물은 2010년 2월 4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을 담은 것으로, 바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베토벤의 교향곡 4,7번을 연주한 것이다. 시대악기에 의한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한 때의 큰 유행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영상을 발견하기가 쉬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에 유롭스키의 생기로운 해석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협주가 결합된 이번 신보가 많은 베토벤 애호가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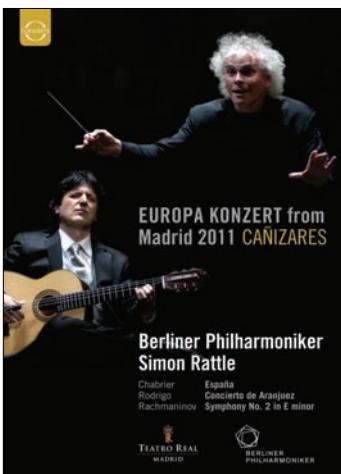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9108

## 한스 반 마넨 Private Archives

네덜란드 무용계를 대표하는 거물, 한스 반 마넨의 간결명료한 무용세계

한스 반 마넨은 네덜란드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다. 십대 후반인 1951년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캐리어는 초기에는 무용수로, 이후에는 안무가로서 이 나라 무용계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와 암스테르담 헤트 국립 발레단의 안무자를 역임했으며, 현재도 이들 두 단체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영국 로열 발레단, 덴마크 왕립 발레단,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캐나다 국립 발레단과 같은 유수의 발레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120편이 넘는 작품을 안무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자신의 작품 'Black Cake'를 공연한 유니버설 발레단을 위해 직접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었다. 본 영상물에는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던 발레단인 인트로단스 포 유스가 공연한 그의 작품들인 'Ajakaboombie', 'In & Out', 'Bits & Pieces', 'In the Future'의 무대와 백 스테이지 스케치가 함께 수록되었다. '현대무용계의 몬드리안'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단순명료한 구조와 간결한 춤사위로 대표되는 그의 개성을 이 영상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ADVD-033

## 2011년 유로파 콘체르트

샤브리에: 에스파냐/ 로드리고: 아랑페즈협주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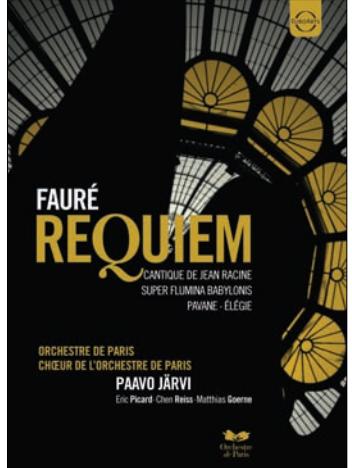
카니자레스(guitar)/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카

스페인의 열정을 가득 담은 2011년 유로파콘체르트 실황

매년 5월 1일마다 유럽 각 도시의 명소들을 순회하면서 펼쳐지는 유로파콘체르트(Europakonzert)는 한 여름밤의 야외음악회인 빌트뷔네 콘체르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음악이벤트로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영상물에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웅장한 오페라하우스인 테아트로 레알에서 펼쳐졌었던 2011년의 유로파콘체르트 실황이 수록되었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 역시 스페인이다. 남국 특유의 열정과 활력을 그려낸 샤브리에의 '에스파냐'가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며, 로드리고의 대표작인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아랑페즈협주곡'에서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플라멩고 기타리스트인 카니자레스가 독주를 맡았다. 호쾌한 박력과 아름다운 선율이 공존하는 작품인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대미를 장식한다. 이 교향곡은 3악장의 매력적인 선율이 주제가 에릭 칼멘의 히트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에 차용됨으로써 우리에게 더 한층 친숙해진 작품이기도 하다.

**포레 : 레퀴엠, 파반느, 엘레지, 장 라신 찬가, 바빌론 강가에서**

에릭 피카르(vc)/ 첸 레이스(sop)/ 마티아스 괴르네(br)/ 파보 예르비/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ADVD-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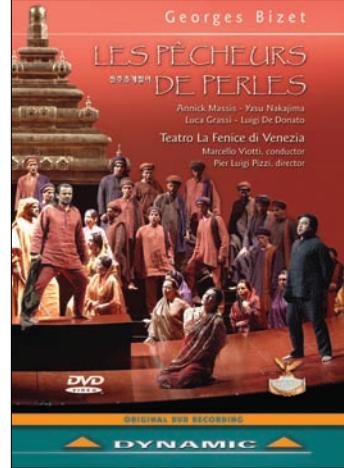
레퀴엠을 비롯한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포레의 레퀴엠은 막대한 관현악 편성으로 심판의 공포를 강조했던 베를리오즈나 베르디의 그것과 달리, 망자의 영혼에 대한 진잔한 위로라는 레퀴엠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던 작품이다. 포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미와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차워진 이 걸작을 뛰어난 화질의 최신 영상물로 감상하는 묘미가 각별하다. 파보 예르비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단아한 연주와 더불어 세계적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중후한 가창도 이 걸작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다양한 편곡들을 통해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한 작품인 파반느의 합창 버전, 단아한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또 다른 합창걸작인 '장 라신 찬가', 시편 137에 곡을 붙인 '바빌론 강가에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첼로의 중저음을 통해 표현되는 애상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작곡가의 또 다른 인기작인 '엘레지'가 파리 오케스트라의 첼로수석인 에릭 피카르드의 독주로 함께 수록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영상물이다.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나디르의 로망스', 그 황홀한 매력이 넘치는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한 조르쥬 비제는 그에 앞서 약간의 오페라를 더 남겼는데 그중 <진주조개잡이>가 가장 중요하다. 나디르와 주르가의 이중창 '성스런 사원에서',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오타-콩트로 전통이 남아있는 유명한 테너 아리아 '나디르의 로망스'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진주조개잡이>는 세일론, 즉 지금의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취미의 비극 오페라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이 생긴 이탈리아의 세계적 오페라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남아시아 섬나라의 특징을 놀랍도록 뚜렷하게 포착하여 그윽한 감동을 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리릭 소프라노 아니크 마시스(레일라)가 종교적 영성마저 느껴지는 놀라운 미성을 들려주며, 동양인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진출한 일본 테너 야수 나카지마(나디르)도 프랑스 리릭 오페라의 서정성을 잘 펼쳐내고 있다.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라 페니체 극장에서 공연된 2004년 4월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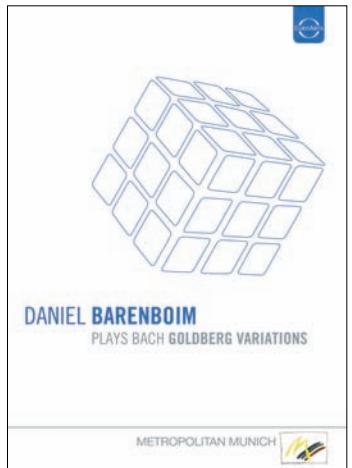
ADVD-036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다니엘 바렌보임(pf)

**바흐의 건반음악에 대한 바렌보임의 모든 노하우가 집대성된 골드베르크 변주곡**

라이프치히 시절 바흐가 '건반연습곡' (clavier-übung)의 타이틀로 정리했던 일련의 작품들은 건반음악에 대한 이 위대한 거장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한 위대한 음악적 유산이다. '건반연습곡' 시리즈의 4부가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 본 영상물은 지금은 지휘자로 더 바쁘게 활동 중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1992년 뮌헨의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용으로 녹화한 연주를 담았다. 이 무렵은 바렌보임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단히 몰입했던 시기로,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져온 이 걸작에 대한 그의 노하우를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그는 각 변주사이의 극명한 템포 변화와 다이내믹의 강렬한 대비를 지향하는 대신, 명료한 아티큘레이션과 유려한 프레이징, 그리고 별개의 악기들이 연주하는 듯한 각 변주 사이의 미묘한 색채감 변화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보다 큰 음악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변주의 반복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 반복시의 미묘한 표현의 변화에 주목해보는 것도 이 영상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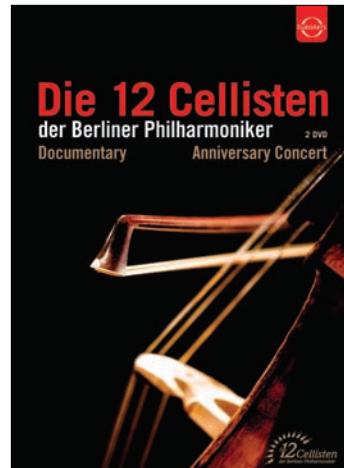
ADVD-035

**12 첼리스트의 40주년 기념 콘서트와 이들에 관한 특별한 다큐멘터리**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창립 40주년 기념 콘서트**

피아졸라: 천사의 모음곡, 비틀즈: 예스터데이, 피아프: 장밋빛 인생, 포레: 파반느 외

아네테 다슈(sop)/ 틸 브로너(trp)/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ADVD-043

베를린 필의 첼로 단원들이 함께하는 독특한 챔버 앙상블인 '12 첼리스트'는 1972년 절초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처음 결성된 이후 40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클래식 명곡들의 첼로 앙상블 편곡과 자신들만을 위해 위촉된 다양한 현대작품들은 물론, 피아졸라의 행고나 비틀즈의 히트송과 같은 대중적인 영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결성40주년을 기념하는 본 영상물과 함께 서울과 대구를 포함하는 월드 투어를 시작하였다. 본 영상물에는 2012년 5월 9일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40주년 기념 콘서트와 이 단체의 과거와 현재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인 'The 12 Cellists'가 함께 수록되었다. 포레의 '파반느', 라벨의 '보칼리스-에튀드', 비틀즈의 'Yesterday',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뒤크 엘링턴의 'Caravan', 피아졸라의 '천사 3부작', 미셸 르그랑과 엔리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 등등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이 수록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내한공연에서도 연주될 예정이다.

**KBS 가 뉴 미디어 매체 사용자를 위한  
'KBS Classic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정보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1,000곡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하고, KBS 1FM 방송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1.QR 코드 스캔 후, 자동연결
- 2.http://classic.kbs.co.kr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 3.애플 앱스토어, Tstore에서 'KBS classic Library'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사)	##7170142	##7270142
Faure : Berceuse Op.16 (포레 :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사'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www.autosmedia.co.kr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창립40주년기념 특별콘서트 다큐멘터리

## [ DVD + Blu-ray ]

- ✓ 가장 최근(2012년 5월 9일) 필하모니에서의 40주년 기념 콘서트실황 [ DVD 1 ]
- ✓ 12첼리스트의 과거와 현재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The 12 Cellists' [ DVD 2 ]
- ✓ 포레 <파반느>에서부터 비틀즈 <Yesterday>, 엔리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까지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 수록
- ✓ 상당수의 레퍼토리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

〈아울로스뉴스〉 2012년 8월호  
통권 제 52호 발행 : 2012년 8월 6일  
발행인 : 임용록  
출판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tosmedia.co.kr  
e-mail : autos@aut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autosmedia.co.kr 59